

천안시 1인 가구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2015. 11

제 출 문

천안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천안시 1인 가구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 11.

충남연구원 원장 강 현 수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체계	3
1) 연구 범위	3
2) 연구내용 및 체계	4
3) 연구 추진 경과	6
4) 선행연구 검토 관련 연구보고서	6
5) 선행연구 검토 : 관련 학술지	12
II. 지역 및 1인 가구 현황	23
1. 천안시 지역 일반 현황	25
1) 자연환경	25
2) 인문경제환경	26
2. 천안시 1인 가구 일반 현황	35
1) 천안시 1인 가구 기초자료 : 주요통계	35
2) 천안시 문화관련 통계	41
III. 1인 가구 실태조사	47
1. 의미연결망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1인 가구 키워드 도출	49
2. 1인 가구 대상 설문조사	55
1) 조사의 개요	55
2) 1인 가구 여가활동 실태 분석	60
3)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집단 특성별 인식비교	148
3. FGI 조사	180
1) 전문가 심층면접 1	180
2) 전문가 심층면접 2	182
3) 전문가 심층면접 3	185
4) 1인 가구 당사자 심층면접 1	188

IV. 정책제언	191
1. 정책제언	193
 [부록 1] 천안시 1인 가구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201
[부록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지(전문가)	207
[부록 3]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지(일반인)	209

표목차

[표 1] 선행연구 검토의 구조	7
[표 2] 농가 및 농가인구와 산업체 및 종사자수	27
[표 3] 산업구조 현황	27
[표 4] 천안시 산업단지 현황	28
[표 5] 천안시 주거 개발현황	29
[표 6] 천안시 주택보급 현황	29
[표 7] 도시공원현황	30
[표 8] 체육시설현황	30
[표 9] 문화공간현황	31
[표 10] 시장 및 유통업체 현황	31
[표 11] 교육시설현황	32
[표 12] 특수학급현황	32
[표 13] 의료시설현황	33
[표 14] 천안시 주요사회복지시설 현황	34
[표 15]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41
[표 16]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42
[표 17] 천안시 1인 가구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의 주요 조사항목	57
[표 18] 천안시 1인 가구 대상 인구사회학적 특성(단위: 건수, %)	59
[표 19] 여가시간 활용의 예	60
[표 20] 1인 가구의 여가시간 활용 우선순위(단위: 건수)	63
[표 21] 평일 TV 및 인터넷 이용시간 응답결과(단위: 건수, %)	63
[표 22] 대상집단별 평일 TV 시청 시간 응답결과	65
[표 23] 대상집단별 평일 인터넷 접속 시간 응답결과	67
[표 24] 주말 TV 및 인터넷 이용시간 응답결과(단위: 건수, %)	68
[표 25] 대상집단별 주말 TV 시청 시간 응답결과	70
[표 26] 대상집단별 주말 인터넷 접속시간 응답결과	72
[표 27] 문화예술의 활동참여 여부에 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73
[표 28] 집단별 문화예술의 활동 참여여부에 관한 응답결과	75
[표 29] 문화예술활동 참여형태에 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76
[표 30] 집단별 문화예술의 활동 참여형태에 관한 응답결과	78
[표 31] 문화예술 방문장소에 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79
[표 32] 집단별 문화예술 방문장소에 관한 응답결과	81

[표 33] 문화예술참여 횟수에 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82
[표 34] 집단별 문화예술 참여 횟수에 관한 응답결과	84
[표 35] 주요 참여대상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85
[표 36] 대상집단별 주요 참여대상에 대한 응답결과	87
[표 37]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월별 평균 지출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88
[표 38]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월별 평균 지출에 대한 응답결과	90
[표 39] 문화예술 활동참여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91
[표 40] 대상집단별 문화예술 활동참여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	93
[표 41] 문화예술 활동 장애요인 우선순위 비교(단위: 건수)	95
[표 4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정책적 제언 우선순위 비교(단위: 건수)	96
[표 43] 문화예술 참여의사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단위: 건수, %)	96
[표 44] 대상집단별 문화예술 참여의사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	98
[표 45] 참여하고 싶은 형태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99
[표 46] 대상집단별 참여하고 싶은 형태에 대한 응답결과	101
[표 47] 방문예정지에 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102
[표 48] 대상집단별 방문예정지에 관한 응답결과	104
[표 49] 문화예술지출 적정성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105
[표 50] 대상집단별 문화예술지출 적정성에 대한 응답결과	107
[표 5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과 환경인식 응답결과(단위: 건수, %)	108
[표 52] 대상집단별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111
[표 53] 대상집단별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113
[표 54] 대상집단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환경인식에 대한 응답결과	115
[표 55]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117
[표 56] 대상집단별 삶의 질에 관한 응답결과	121
[표 57] 대상집단별 아동 및 청소년 교육에 관한 응답결과	123
[표 58] 대상집단별 시민의 애착심에 관한 응답결과	125
[표 59] 대상집단별 천안시의 이미지에 관한 응답결과	127
[표 60] 대상집단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응답결과	129
[표 61] 생활만족도에 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130
[표 62] 대상집단별 생활만족도에 관한 응답결과	132
[표 63] 천안시 상주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133
[표 64] 대상집단별 천안시 상주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35
[표 65] 향후 지속적 거주계획 응답결과(단위: 건수, %)	136
[표 66] 대상집단별 향후 거주계획 응답결과	137

[표 67] 적극적 참여의향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138
[표 68] 대상집단별 적극적 참여의향에 대한 응답결과	139
[표 69]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148
[표 70]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149
[표 71]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149
[표 72]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150
[표 73]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분석	151
[표 74]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151
[표 75]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152
[표 76]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153
[표 77]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154
[표 78]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154
[표 79]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155
[표 80]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155
[표 81]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156
[표 82]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157
[표 83]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158
[표 84]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159
[표 85]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160
[표 86]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161
[표 87]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162
[표 88]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163
[표 89]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165
[표 90]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166
[표 91]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167
[표 92]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168
[표 93]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169
[표 94]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170
[표 95]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171
[표 96]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172
[표 97]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173
[표 98]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174
[표 99]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175
[표 100]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176

[표 101]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177
[표 102]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177
[표 103]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178
[표 104]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179
[표 105]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천안시 1인 가구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의 문제점	189
[표 106]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천안시 1인 가구 네트워킹의 문제점	189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의 체계	5
[그림 2] 천안시 인구규모	26
[그림 3] 가구원수별 전국 가구수 (2010년)	35
[그림 4] 천안시 1인 가구 비율 비교	35
[그림 5] 전체가구-1인 가구 가계수지 비교(소득기준)	36
[그림 6] 충청남도 장래가구추계(1인 가구)	36
[그림 7] 천안시 연령대별 1인 가구수	37
[그림 8] 천안시 1인 가구 구성원 성별	37
[그림 9] 천안시 성별-연령대별 1인 가구수	38
[그림 10] 천안시 거주형태별 1인 가구수	38
[그림 11] 천안시 거주지 점유유형별 1인 가구수	39
[그림 12] 천안시 혼인상태별 1인 가구수	40
[그림 13] 천안시 교육상태-연령별 1인 가구수	40
[그림 14] 천안시 정책 추진 희망부문	41
[그림 15] 여가활동의 상대	42
[그림 16] 지역문화행사 참여경험	43
[그림 17] 참여 지역문화행사 만족도	43
[그림 18] 참여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불만족 사유	44
[그림 19] 지역문화행사 불참 사유	44
[그림 20] 희망하는 지역문화행사의 유형	45
[그림 21] 1인 가구 관련 키워드 연결망 (degree centrality)	51
[그림 22] 1인 가구 관련 키워드 연결망 (betweenness centrality)	53
[그림 23] 1인 가구의 여가시간 활용 우선순위(단위: 건수)	61
[그림 24] 1인 가구의 여가시간 활용 방식 1순위(단위: 건수)	62
[그림 25] 1인 가구의 평일 TV시청과 인터넷 활용 시간 비율(단위: %)	64
[그림 26] 1인 가구의 주말 TV시청과 인터넷 활용 시간 비율(단위: %)	68
[그림 27] 1인 가구의 문화예술 참여활동 비율(단위: %)	73
[그림 28]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형태 비율(단위: %)	76
[그림 29]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장소별 비율(단위: %)	79
[그림 30]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횟수 비율(단위: %)	82
[그림 31]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주요 참여대상 비율(단위: %)	85

[그림 32]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월평균 지출 비율(단위: %)	88
[그림 33]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만족도 비율(단위: %)	91
[그림 34] 문화예술 활동 장애요인(단위: 건수)	94
[그림 35] 문화예술 활동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단위: 건수)	95
[그림 36]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의사 비율(단위: %)	97
[그림 37]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형태 비율(단위: %)	99
[그림 38]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방문예정지 비율(단위: %)	102
[그림 39]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지출의 적정성 비율(단위: %)	105
[그림 40] 1인 가구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비율(단위: %)	109
[그림 41]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 지원요구 인식에 관한 비율(단위: %)	109
[그림 42] 1인 가구 문화예술활동의 환경 인식에 관한 비율(단위: %)	110
[그림 43]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인식 비율(단위: %)	118
[그림 44]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 성장 도움 인식 비율(단위: %)	118
[그림 45]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애착심 증가 인식 비율(단위: %)	119
[그림 46] 문화예술활동을 천안시의 이미지 향상 인식 비율(단위: %)	119
[그림 47]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식 비율(단위: %)	120
[그림 48]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 인식 비율(단위: %)	130
[그림 49] 1인 가구의 주말 및 휴일 천안시 상주 여부 비율(단위: %)	133
[그림 50] 1인 가구의 지속적 거주계획에 인식 비율(단위: %)	136
[그림 51]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적극적 참여의향 정도 인식 비율(단위: %)	138
[그림 52] 1인 가구의 여가활용 우선순위(단위: 건수)	140
[그림 53] 1인 가구의 여가활용 1순위(단위: 건수)	140
[그림 54] 평일과 주말의 TV, 인터넷 활용시간(단위: %)	141
[그림 55] 참여형태와 방문장소(단위: %)	141
[그림 56] 참여횟수(단위: %)	142
[그림 57] 주요참여 대상(단위: %)	142
[그림 58]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월평균 지출(단위: %)	143
[그림 5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만족도(단위: %)	143
[그림 60] 장애요인 및 정책제언 우선순위(단위: 건수)	144
[그림 61] 장애요인 및 정책제언 1순위(단위: 건수)	144
[그림 62] 참여하고 싶은 형태와 방문예정지(단위: %)	145
[그림 63] 문화예술활동 비참여집단의 지출의 적정성(단위: %)	145
[그림 64]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정책지원과 환경인식(단위: %)	146
[그림 65] 문화예술활동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단위: %)	146

[그림 66]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단위: %)	147
[그림 67] 1인 가구 근로자의 여가 활동 유형	190
[그림 68]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천안시 문화정책의 방향성	190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체계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무지개다리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하고 있음
-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는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를 위해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음
- 본 연구는 2015년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인 가구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통하여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천안시 1인 가구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천안시 지역 내 1인 가구의 현황 파악 및 문화예술활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천안시 1인 가구 문화 특성 발굴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 생태계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충청도 연령대별 가구분포에서 20대~30대까지 1인 가구 비중이 높으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20대에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분포되어 있는 만큼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천안시 1인 가구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수행함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체계

1)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 (현황분석은 2014년)

(2)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천안시 전체

(3) 내용적 범위

■ 천안시 1인 가구의 이해 및 현황 분석

- 관련 통계 자료·조사 및 데이터 분석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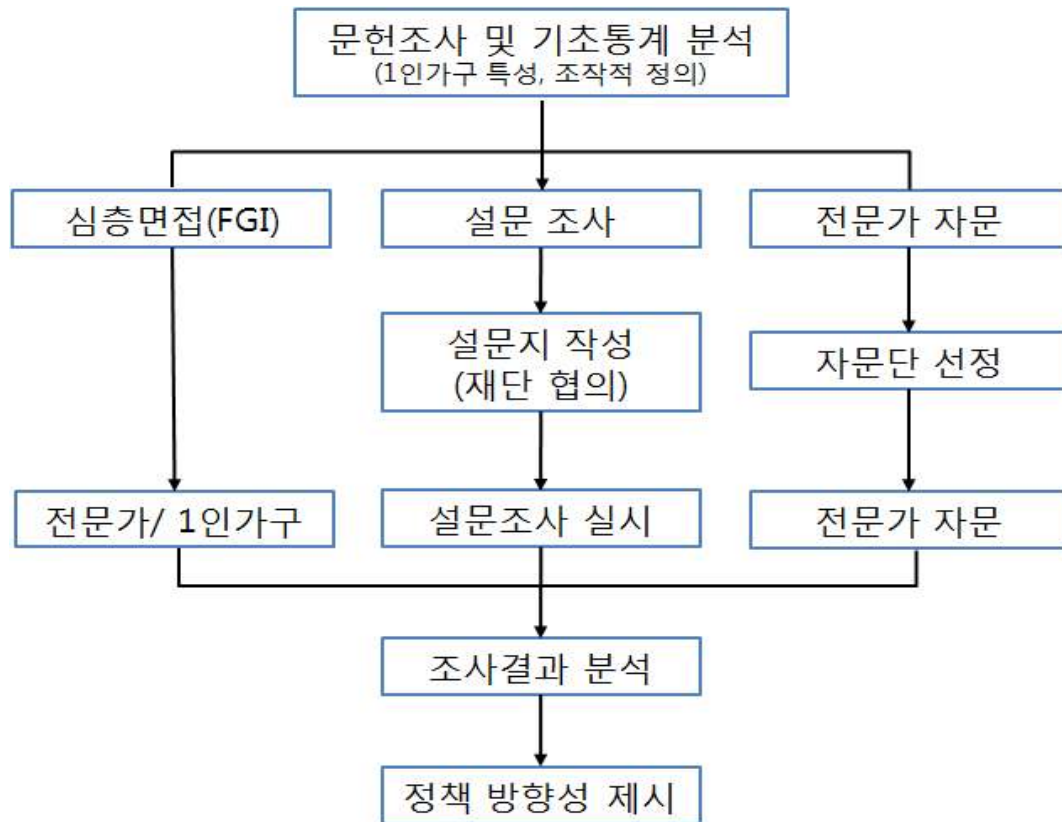
- 천안시 규모 및 특징 등 일반현황
- 1인 가구의 의미 및 특성 등 일반현황
- 천안시 1인 가구 통계 및 기본 현황
- 천안시 1인 가구 문화예술 활동 파악 및 욕구 분석
- 천안시 1인 가구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을 위한 시사점 도출

2) 연구방법 및 체계

■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국내외 1인 가구 문화예술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지역 현황 및 1인 가구 기초통계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의미연결망분석)
 - 중앙일간지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까지 8월31일 까지 게재된 1인 가구 기사의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1인 가구 키워드를 도출함
- 1인 가구 설문조사
 - 기간 : 8월 20일~9월 30일
 - 표본수 : 160명
 - 조사대상 : 천안시 거주,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가구
 - 조사내용 : 인구사회학적특성/여가시간의 활용/문화예술활동참여
/문화예술활동참여의사/ 문화예술활동과 지역사회
-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전문가 및 1인 가구,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심층면접(FGI)를 실시하여 천안시의 문화적 환경, 1인 가구 문화적 특징, 정책 방향을 도출
-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종합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천안시 1인 가구 문화예술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그림 1] 연구의 체계



3) 연구 추진 경과

- 설문조사기간 : 8월 20일 ~9월 30일
- FGI (심층면접)일정
 - 2015년 10월 05일 : 주찬 무기공장 대표
 - 2015년 10월 08일 : 장동순 협동조합 우리동네 사무국장
 - 2015년 10월 08일 : 서울연구원 변미리 박사
 - 2015년 10월 27일 : 송혜진(삼성디스플레이근로자)
- 중간보고회 개최 : 2015년 10월 16일
- 전문가 자문 일정
 - 2015년 10월 29일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 2015년 10월 29일 변미리 박사(서울연구원)
- 최종보고회 개최 : 2015년 11월 20일

4) 선행연구 검토 관련 연구보고서

- 청년 1인 가구 대상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문화정책 및 청년 1인 가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음
 - 1인 가구는 국내 가구 중 약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1인 가구가 점차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임
 - 이전의 복지, 문화 정책 등이 주로 2인 이상의 다인가구를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구주 단독으로 거주하는 1인 가구 대상의 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청년 세대에 1인 가구란 가장 일반적인 삶의 유형 중 하나로 정착하고 있음
 - 앞으로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수록 경제적 요인에 의한 평균 혼인연령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경향은 현재의 20~30대가 점차 2인 이상의 가구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결국 1인 가구의 문제는 청년세대의 자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층의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청년 1인 가구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을 검토할 것임
 - 학술논문은 청년 1인 가구를 주제로 수행한 연구 중 주로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함

[표 1] 선행연구 검토의 구조

선행연구	분류1	분류2	비고
연구보고서	1인 가구 및 문화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연구	개괄적 연구	문화적 연구	문화요인 중심
		경제적 연구	경제요인 중심

■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문화향수실태조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문화 활동에 발맞추어, 국민의 문화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 문화 진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더불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함께 언급됨
 - 이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 짐
 - 서베이는 조사원이 직접 표집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진행됨
- 전국 만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규모의 조사인 만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향유 실태와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음.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연평균 5회)에 있으며, 그 중 영화, 대중음악에 대한 관람 비율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문화예술행사를 경험하는 장소는 거주지가 위치한 지역사회라고 응답한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음
 -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접근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음. 더불어 향후 문화예술행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관람비용을 꼽은 비중

(34.2%)이 다른 부문(작품의 질 25.9%, 접근성 18.7%, 다양성 6.6% 등)보다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문화바우처와 같이 관람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대책 정책연구

-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1인 가구 등의 소규모 가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발간됨
 -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센서스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1인 가구에 대한 유형화를 수행하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여 정책수요조사를 진행함
- 이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문제의 핵심으로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1인 가구 유형이 동질적이지 않고 다양한 세대, 계층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토대로 보다 입체적이고, 사회연결망 구축과 같은 다각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여기서 주요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는 바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주거주택 부문: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량 확대를 통해 1인 가구 주거선택 기회 확대 ② 사회적 안정만 확보: 1인 가구 중 여성, 고령자 비율이 높고,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량하기에 범죄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③ 공유사회 부문: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공유사회 및 공유경제를 1인 가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함. 저성장 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사회적 가족과 같은 대안적 친밀성과 시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순환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임

■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여가문화 향유 및 소비주체로서의 1인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대응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기초통계 수집과 언론 키워드 분석과 같은 계량적 방법론과 함께 1인 가구 및 관련인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함

- 이 연구에서는 1인 가구 여가활동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를 3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① 여가복지적 접근: 1인 가구 대상 여가정책 지원강화 ② 여가산업적 접근: 1인 가구 여가수요 확대 및 여가 창조산업 육성 ③ 여가기반적 접근: 1인 가구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강화가 그 것임
 - 1인 가구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 보고서는 1인 가구 대상의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음. 향후 1인 가구 대상 정책입안 과정에서 1인 가구가 동질적이지 않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가복지 정책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1인 가구는 노년층 1인 가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역시 시급한 상황임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고서는 ① 국내 및 해외의 다문화 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분석 ② 대전·충남 지역의 다문화가족 대상 현장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③ 상기 조사를 토대로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및 연구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연구는 개방형 설문을 활용한 심층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여 대전 및 충남 지역 거주중인 다문화가족 대상 인터뷰 조사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함
- 이 보고서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가 정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 이전 보다도 결혼 이후의 언어습득, 자녀양육 문제 있어 경제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가계수입 확보, 경제활동과 같은 경제문제는 국적이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이 보고서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민간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거시적 정책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의 업무협조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함의임

■ 전주시 문화예술동호회 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

-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전주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문화예술동호회 현황 파악하여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시민예술촌운영관 제안을 위한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발간됨
 - 이 연구는 질적, 양적 방법을 혼합하여 문화예술동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서베이와 동호인 및 관련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심층면접의 경우 스노우볼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진행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동호인들의 연령비율은 20~30대 15.7%, 40~50대 34.9%, 60대 이상이 31.5%로 나타나, 청년층에 비해 중년층을 중심으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함
 - 성별로는 남성 35.3%, 여성 64.7%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주제는 음악·무용이 60% 이상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음
 - 경제활동상황은 주부가 39.8%로 가장 많았으며, 은퇴자를 포함할 경우 비경제활동 비율은 80%가까이 늘어남
 - 문화 동호인의 주요 행위자들은 중년층 주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 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함의는 동호회 구성에 있어 공공 및 민간단체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확보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임
 - 이에 따라 동호회 등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 강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무지개다리사업 연구보고서 : 제주의 문화다양성-문화 예술가의 제주이주 현황조사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제주로 이주한 문화예술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삶과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음
 -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조사방법론은 설문지를 활용한 서베이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주 문화예술가들이 제주로 이주한 이유는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주된 요인이었으며 정착과정에서 생계, 사회인프라, 정착민의 텃세와 같은 요인에 의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 연구가 제주도라는 상대적으로 특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들 이주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원주민 및 원주민 예술가들과의 상호교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함
 - 더불어 이주 문화예술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생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함을 강조했다는 점도 중요한 함의 중 하나임

■ 서울시민의 문화향유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이 조사는 시민들의 세대 내 그룹별 문화향유 특성을 파악하여 세대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런 만큼 앞서 살펴본 보고서와는 달리 구체적인 결론이나 함의를 제시하기 보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요약한 내용이 중심임
 - 이 조사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재단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구조화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서베이 방식을 사용하였음
 - 이러한 조사방법론 역시 앞서의 보고서가 오프라인 서베이와 심층면접 등의 현장 중심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것과 차별되는 특징 중 하나임
- 조사결과는 기본적으로 세대별로 문화향유 유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음.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① 20대 문화열광족: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낮음 ② 30대 화려한 싱글, 육아맘: 출산, 육아 요인에 따른 문화생활 변동이 큼 ③ 40대 가족 중심의 프렌디, 킬처맘과 개인중심의 블루 싱글녀 ④ 50~60대 낭만족과 액티브시니어: 문화생활 시간이 다시 늘어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음
 -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대별 그룹별로 문화생활 유형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세대 별로 세분화된 문화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연령, 결혼유무와 같은 생애주기별 주요 사건에 따라 문화향유 상황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 사업을 기획할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기존의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1인 가구의 현황 및 주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현재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대부분이 1인 가구를 경제적 지원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함
 - 1인 가구가 자발적 선택이 아닌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세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음
-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제적 요인과 함께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천안시의 경우, 천안시 이외의 지역에서 통학 및 출근을 위해 이주한 비율이 높아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애착형성을 위한 문화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기존의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관련 문화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천안시를 비롯한 다수의 청년층 1인 가구가 경제 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문화지원 정책을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투-트랙(Two-Tracks)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선행연구 검토 : 관련 학술지

-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반해, 학계를 중심으로는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한 연구나 특정 세대에 대한 연구, 경제, 문화, 주거유형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청년과 노년 1인 가구를 가장 한계 상황에 놓인 집단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앞서 1인 가구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적, 신체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과 노년 세대의 1인 가구 문제가 가장 시급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과 일치함
-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1인 가구 일반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와 경제, 문화와 같은 세부 요인에 집중한 연구로 구분됨. 아래에서는 세부 요인에 대한 연구 중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함
- 청년 1인 가구 연구의 경우 주로 20~30대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 및 주거 문제와 같은 경제요인에 대한 연구와 청년층의 가치관, 문화 등에 대한 문화요인에 대한 연구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개괄적 연구

- 1인 가구에 대한 개괄적 연구는 특정 세대나 주제에 중심의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보다는 1인 가구 자체의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임
-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학술지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 연구과제 등을 통해 수행된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음
- 이러한 연구 중 서울시정개발원(2009)에서 발간한 “1인 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라는 연구는 지자체 중심의 1인 가구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1인 가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여기서 서울 1인 가구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과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① 골드세대: 개인주의적 싱글 ② 산업예비군: 청년층 중심의 취업희망자 ③ 불안한 독신자: 중장년층 중심의 이혼, 기러기 가족 등 ④ 실버세대: 노년층 중심의 저소득층이 그것임. 이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앞서 관련 서울문화재단의 연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 유형이 생애주기별로 상당히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대상 집단의 생애주기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임

- 지자체의 연구 중 천안시의 가구별 문화여가 상황에 대한 조사로는 천안문화재단(2013)의 “천안문화여가조사”가 있음. 천안문화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 시민 절반 이상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불만을 보이고 있으며 1인 가구(27.5%), 2인 가구(49.7%)가 전체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천안시의 지역 문화 행사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행사의 확대를 요구하는 응답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 조사는 천안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특징이 있어, 향후 천안시의 청년 1인 가구 대상의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1인 가구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연구 중 현대경제연구원(2015)에서 발표한 “싱글족(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노년층의 소득불안을 1인 가구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1인 가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 4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다음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에 대한 요약임. ① 가족구조 변화를 반영한 주택복지 ②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재취업 일자리 마련 ③ 청년층 1인 가구의 정주여건 개선 ④ 1인 가구 맞춤형 소비환경 조성
 - 이 보고서 역시 다른 연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청년과 노년층이라는 두 세대를 1인 가구 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꼽고 있음. 특히 가족구조변화를 앞으로의 트렌드로 이해함에 따라 1인 가구 자체가 구조적 맥락에 의해 점차 보편화 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논의를 참고할 때, 향후 1인 가구 정책이 단시일 내의 임시방편으로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1인 가구의 개괄적 특성과 관련한 학술지 논문도 주로 1인 가구 그 자체의 특성과 함께 한계상황에 직면한 세대인 청년과 노년세대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
 - 최셋별(2014)은 ‘사회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1인 가구의 문화 활동 참여 점수가 다른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특히 성별과 거주지가 1인 가구의 문화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지적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인 가구의 문화 활동 점수가 낮은 것과 성별, 거주지는 모두 경제적 요인과 연관될 수 있음
- 이 연구가 중요한 것은 1인 가구의 문화생활 수준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있음
- 본 연구에서 직접 언급되는 점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가계소득수준이 보다 높은 다인가구에 비해 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
- 변미리(2008)의 연구는 1인 가구의 증가양상이 청년층의 결혼관 변화와 대도시 중심의 취업형 단독가구 증가와 함께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 이 연구 역시 1인 가구 증가추세가 청년과 노년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취업활동을 하거나 출퇴근을 목적으로 작업장 인근에 주거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인 가구를 형성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천안시의 경우 천안시를 중심으로 다수가 위치한 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통학을 목적으로 1인 가구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반정호(2012)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청년층 1인 가구에서 주거불안, 노년층 1인 가구에서 고용불안이 주된 문제임을 지적하며 1인 가구에 대한 소형임대주택 공급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함
 - 청년층의 경우 전월세와 같은 임대주택 거주 비중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고시원과 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의 경우 실업, 소득불안정과 같은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기 이전에 보다 시급하게 거주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거주안정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 내의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살펴 볼 수 있는 연구 중 1인 가구의 소비패턴에 대한 전상민(2013)는 유용한 함의를 제공함
 -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 복지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1인 가구 소비패턴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칩거생활 지출형 ② 사교적 지출형 ③ 의료비 지출형 ④ 월세·교통비 지출형 ⑤ 외식·오락비 지출형으로 구분됨. 다섯 가지 유형 중 청년층은 월세·교통비 지출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노년층은 칩거생활, 의료비 지출형이 많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
 - 청년층 1인 가구가 월세 및 교통비 지출형에 속한다는 사실은 불안정한 소득의 대부분이 주거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사실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없이는 다른 부문에 지출할 여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세부연구

- 앞서 검토한 1인 가구의 전반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달리 세부요인에 대한 연구는 1인 가구의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는 문화요인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와 경제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를 대상으로 세부연구를 분류하였음

(1) 문화요인

- 문화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년층 1인 가구의 의식, 가치관에 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음
 - 청년층 1인 가구의 가치관에 대한 검토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어떠한 점을 관심사로 삼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가치관에 대한 접근을 토대로 다른 경제 요인에서 파생하는 특성과는 다른 독자적인 차원의 문제와 요구사항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가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인 가족 구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우민희 외(2015)의 연구는 청년층 1인 가구의 여가활동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연구를 통해 1인 가구의 여가활동이 일반 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 있음

- 이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 청년층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결정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함
- 이 연구의 핵심은 청년층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기성세대 및 사회의 통념과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기존의 의식이 일종의 편견일 수 있음을 보여줌
- 더불어 청년세대의 개인중심적 가치관에 의해 이들이 1인 가구를 선호한다는 인식과는 달리 경제적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1인 가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이해할 수도 있음
- 반면 정민우와 이나영(2011)의 연구는 청년세대 비혼남녀의 주거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년세대가 이전의 부모세대와 다른 가족 개념을 지닌 세대임을 보이고자 함
 - 청년세대에게 집은 독립의 표상임과 동시에 가족과 유사한 대안적 친밀성을 모색하는 공간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핵심적 주장임
 - 앞선 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기존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상이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두 연구의 가족에 대한 접근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임
 - 우민희 외(2015)의 연구가 가족 그 자체에 대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연구는 가족을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집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여부에 따라 이 두 연구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 정민우와 이나영(2011)의 다른 연구에서는 고시원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불평등과 문화적 차원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 여기서 고시원은 불안정한 주거와 규범적인 집에 대한 의미가 변형된 공간으로 청년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불안이 공간화된 장소로 제시되고 있음
 -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으로서의 주거공간을 고시원이라고 할 때 고시원은 거주지이지만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주형태임
 - 청년층에게 고시원은 기거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려우며, 앞서 연구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대안적 친밀성을 모색하는 공간의 의미도 가질 수 없는 주거형태인 것임

- 결국 낮은 주거비라는 경제적 요인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청년층의 주거불평등 문제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이와 유사하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연구한 호정화(2014)는 비혼 1인 가구 중 청년층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비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가치관에 대한 연구 결과, 비혼 1인 가구인 경우 비혼 가족가구와 달리 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2012년의 응답자가 2008년에 비해 보다 탈전통적인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1인 가구 전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비혼 1인 가구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비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혼보다 적극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삶의 지향을 의미하기 때문임
- 앞선 연구들과 달리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인식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로는 정순희와 임은정(2014)의 연구를 꼽을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며 3가지 인식의 경향을 제시하고 있음. ① ‘정상적 삶을 사는 청년다움’이라는 규범에 대한 불만 ② 살기위한 투쟁 ③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 위의 세 가지 인식이 청년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청년층의 삶에 대한 인식의 토대임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첫 번째 정상성에 대한 반발은 기존의 전통적 다인가구중심의 가구를 정상성으로 인지하는 사회 일반의 인식에 대한 청년층의 저항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자신의 자발적 선택보다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구조적 압력에 의해 선택한 1인 가구를 비정상성으로 규정하는 사회에 대한 반발인 것임
 - 그 결과 이들 청년층의 삶은 자신에게 구조적 압력을 행사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이데올로기에 몸을 맡기게 됨
 - 결국 이러한 청년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정책이란 이들의 일상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2) 경제요인

- 지금까지 검토한 문화요인 관련 연구와 달리 경제요인 관련 연구는 1인 가구의 빈곤, 실업, 가계소득 등의 경제적 특성에 집중하고 있음
 - 신상영(2014)은 서울시 일반가구 중 2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0대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이와 함께 1인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가구 원룸형 주택과 보증부 월세가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라는 점을 들어 소형주거 중심의 주택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함
 - 이 연구는 1인 가구 중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주거선택의 폭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보증부 월세가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점유 형태라는 점은 그 밖의 자가소유나 전세 등 목돈을 요구하는 주거형태는 청년층 1인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 동시에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소형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거비 부담 문제와 연관하여 검토해야할 문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 김도희(2012)는 청년층의 실업과 빈곤 문제로 인한 1인 가구 문제를 다루며 청년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청년 세대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세대인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정책과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핵심적 주장임
 - 청년층의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한 세대의 위기일뿐만 아니라, 향후 출산과 육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중추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임
 - 지역사회의 지속성 역시 해당 지역 내의 청년층이 혼인을 통해 다인가구를 구성하고, 지역경제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함. 그만큼 청년층의 빈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이영분 외(2011)의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 1인 가구가 모두 경

제적으로 자립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음

-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1인 가구가 모두 경제적 자립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임
- 천안시와 같이 대학생 중심의 2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 내에서 취업활동 등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달성한 경우보다는 부모 등의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주거비 등의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천안시 거주 중인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접근이 보다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음
- 청년 1인 가구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이현정 (2015)의 연구가 있음
 - 이 연구는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청년 1인 가구 중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과 주거 빈곤 문제를 분석하고 있음
 - 그 결과 독립한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연쇄효과를 확인하며, 청년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의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함
 - 앞서 이영분 외(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일자리 부족에 따른 실업, 불안정한 근로조건, 저임금 등으로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경제적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모 및 보호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한 것임
 -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청년층 1인 가구의 문제에 접근할 때 청년층이더라도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제상황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외생변수로서의 부모소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함

■ 시사점

- 연구보고서와 달리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학술적 접근 중 문화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다수 게재되어 있음

- 문화적 요인에 대한 접근을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여가생활 및 문화적 소비 유형, 가족에 대한 가치관 등이 기존의 다인가구 및 기성세대와 차별성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1인 가구에 대한 개괄적 연구를 통해서 1인 가구의 개념 및 국내 1인 가구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음 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비자발적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가치관이 기존의 기성세대와 차별되는 지점이 있으며, 보다 다양한 유형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지만 이것을 뒷받침 해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제시하고 있음
- 1인 가구에 대한 문화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청년 1인 가구가 자발적 선택 보다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함 선택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 둘째, 기성세대에 비해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선호한다는 점
 - 셋째, 여가 및 문화소비의 유형이 경제적 상황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 넷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기존의 세대 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중심적인 성향을 지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청년 1인 세대에 대한 문화정책이 단순히 지역사회 문화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천안시 1인 가구에 대한 문화정책은 청년 세대 1인 가구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충족이라는 문화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반드시 경제적 지원과 연계하여 실행하였을 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제2장

지역 및 1인 가구 현황

1. 천안시 지역 일반 현황

2. 천안시 1인 가구 일반 현황

제2장 지역 및 1인 가구 현황

1. 천안시 지역 일반 현황

1) 자연환경

(1) 지리적 현황

- 천안시의 면적은 2012년 기준 636.07km²로, 충청남도 전체면적 8,203.89km²의 7.75%를 차지함
- 행정구역은 4개 읍, 8개 면, 행정동 18개 동, 법정동 30개 동으로, 크게 동남구와 서북구로 구분함
 - 동남구에는 9개 동과 1개 읍 및 7개 면이 포함됨
 - 서북구에는 9개 동과 3개 읍 및 1개 면이 포함됨

(2) 지형 및 지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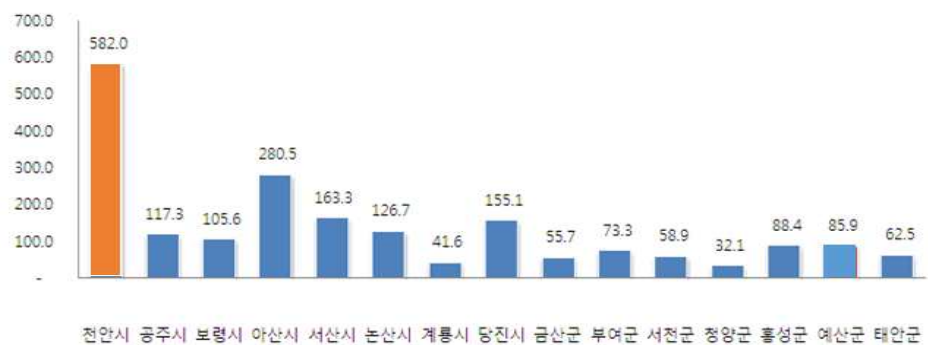
- 천안시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차령산맥의 태조산(424m)줄기를 중심으로 동서측으로 지역이 분리되어 있으며 북측지역은 평택평야까지 탁 트인 얕은 구릉성 평지이며 동측은 국사봉, 만근산, 망경산 줄기를 아산시와 진천군과도 인접하고 있음
- 수계는 안성천, 삽교천, 금강수계로 구분되어 북부지역은 성환, 성거, 직산, 입장지역의 지표수가 북류하여 안성천으로 유출되어 서해로 유입되며, 동부지역은 성거, 진천, 전의가 분수령이 되어 남류, 동류하여 미호천 상류를 이루어 금강으로 유입되며 서남부지역은 직산, 목천읍계가 분수령이 되어 서류하여 곡교천으로 유출되어 서해로 유입됨
- 교통과 산업단지, 지리적 여건상 타지역 주민의 이동이 많은 만큼 이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2) 인문경제환경

(1) 인구 현황

- 천안시의 인구는 612,212명(2014년 7월 31일 현재)으로 동남구 269,877명(44.1%), 서북구 342,335(55.9%)명임
- 충남도 중 천안시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양군이 1.6%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2] 천안시 인구규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2011

- 중심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18개 동에 천안시 인구의 약 75.2%가 밀집해 있으며, 의료기관 총 613개 중 대학병원을 포함한 529개가 이 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있음
- 18개 동을 제외한 부분은 농촌지역으로 중심지역에 비해 낙후됨

(2) 산업구조(산업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 농가인구의 비율을 보면 2005년 18.4%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3년 말 현재 농가인구는 36,031명(13.4%), 사업체 종사자수는 232,368명(86.6%)로 나타났음. 농업인구보다 지역 내 산업단지 종사자수가 증가하는 만큼 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수요증가에 대비한 복지공급체계가 필요한 것임

[표 2] 농가 및 농가인구와 산업체 및 종사자수

(단위 : 가구, 개소, 명)

구분	인구 계	농가 및 농가인구			산업체 및 종사자수		
		농가	농가인구	비율	사업체수	종사자수	비율
2004	196,056	10,615	33,269	17.0%	31,124	162,787	83.0%
2005	215,458	12,574	39,571	18.4%	32,527	175,887	81.6%
2006	221,221	12,591	39,035	17.6%	33,616	182,186	82.4%
2007	226,480	12,424	38,371	16.9%	34,919	188,109	83.1%
2008	232,658	12,885	38,733	16.6%	35,458	193,925	83.4%
2009	234,520	13,408	39,769	17.0%	35,825	194,751	83.0%
2010	244,369	12,434	38,456	15.7%	35,311	205,913	84.3%
2011	255,875	12,372	38,264	15.0%	36,095	217,611	85.0%
2012	265,234	12,356	37,631	14.2%	38,263	227,603	85.8%
2013	268,399	12,283	36,031	13.4%	40,270	232,368	86.6%

출처 : 천안시 시정주요통계 및 천안시 통계연보

- 2012년 말 기준 천안시의 총 종사자수는 23만 2,368명이며 대부분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즉, 천안시의 산업구조는 1차 및 2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3차 산업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2년 말 기준 천안시의 종사자별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0.1%, 2차 산업이 37.7%, 3차 산업이 62.2%로 나타났음

[표 3] 산업구조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종사자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인	비율	인	비율	인	비율	인	비율
2008	193,925	100.0%	388	0.2%	75,663	39.0%	117,874	60.8%
2009	194,751	100.0%	316	0.2%	74,985	38.5%	119,450	61.3%
2010	205,913	100.0%	263	0.1%	76,963	37.4%	128,687	62.5%
2011	217,657	100.0%	283	0.1%	83,761	38.5%	133,613	61.4%
2012	227,603	100.0%	286	0.1%	88,723	39.0%	138,599	60.9%
2013	232,368	100.0%	254	0.1%	87,528	37.7%	144,586	62.2%

출처 : 천안시 시정주요통계 및 천안시 통계연보

- 천안시의 산업단지는 지방공단 9개소, 농공단지 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지방 공단으로는 마정일반산업단지, 천흥일반산업단지, 풍세일반산업단지, 산업기술산업단지, 제2일반산업단지, 제3일반산업단지, 제4일반산업단지, 제5일반산업단지, 천안외국인투자지역이 있으며 농공단지는 동면동공단지, 목천농공단지, 백석농공단지, 직산농공단지 등이 운영되고 있음. 산업단지 내 종사자와 주변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역복지 자연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4] 천안시 산업단지 현황

(단위:개소, 명)

구분	산업단지					가동업체	종업원수
	계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기타단지		
2004	14					198	24,569
2005	14					242	27,180
2006	13					375	27,933
2007	13	1	7	4	1	340	27,791
2008	12	1	7	4	—	377	27,067
2009	11	—	7	4	—	417	27,246
2010	15	—	11	4	—	431	28,216
2011	15	—	11	4	—	453	32,801
2012	13	—	9	4	—	482	39,779
2013	13	—	9	4	—	577	38,867

출처 : 천안시 시정주요통계 및 천안시 통계연보

(3) 지역특성 변화(재개발 및 재건축, 노후주택 및 신규건축 비율 등)

- 「2020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을 40개 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음.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 재개발사업이 27개 구역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대상지역은 1개 구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중심축 변화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표 5] 천안시 주거 개발현황

(단위:개소)

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40	4	27	5	4

출처: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4) 주택상황(주택보급률)

- 천안시의 주택 보급률은 2009년 116.79%에서 2010년 94.9%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이는 주택 보급률 계산 방식에 있어서 주택수 산정시 다가구 주택 및 가구수의 산정방법이 변화되어 발생한 결과임
- 천안시 주택수는 2013년 기준 22만 9900가구로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0.65%임. 이는 2010년 94.9%에 비해 약 5.7% 증가한 수치로 주택보급률이 다소 높아짐을 볼 수 있음

[표 6] 천안시 주택보급 현황

(단위: 세대, 호, %)

구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계	일반주택	아파트	기타	
2005	128,824	150,132	46,986	100,792	2,354	116.54
2006	135,214	158,012	46,944	108,714	2,354	116.86
2007	140,942	162,044	47,029	112,661	2,354	114.97
2008	144,297	165,344	47,723	115,267	2,354	114.59
2009	146,346	170,919	47,678	120,887	2,354	116.79
2010	215,471	204,397	63,339	126,506	14,552	94.9
2011	214,478	214,071	81,013	130,704	2,354	99.8
2012	222,600	223,383	88,788	132,241	2,354	100.3
2013	229,900	231,394	92,424	136,616	2,354	100.65

출처 : 천안시 시정주요통계 및 천안시 통계연보

2010년부터 주택보급률은 신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2009년 까지)에서는 주택수(다가구주택은 1호)/1인 가구 및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비율로 계산, 신주택보급률(2010년부터)에서는 주택수(다가구주택은 개별 가구로 인정)/보통가구 +1인 가구 + 5인 이하 비혈연가구의 비율로 계산

(5) 교류의 장

- 도시공원은 2013년 기준 248개로 어린이 공원 155개, 근린공원 70개 등 있었음. 이는 2009년에 비해 23개가 증가한 것임

[표 7] 도시공원현황

(단위:개소, 천㎡)

구분		계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	주제공원	소공원
2009	개소	225	151	59	4	4	7
	면적	11,551	364	4,566	6,201	416	4
2010	개소	246	154	75	4	4	9
	면적	12,349	371	5,353	6,201	416	8
2011	개소	250	157	75	4	4	10
	면적	12,366	387	5,351	6,201	416	11
2012	개소	242	153	71	4	4	10
	면적	12,322	373	5,319	6,201	416	11
2013	개소	248	155	70	4	4	15
	면적	12,338	381	5,317	6,200	417	23

출처 : 천안시 시정주요통계 및 천안시 통계연보

- 체육시설은 2013년 106개로 2007년 93개에 비해 13개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2010년 이후 동네체육시설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체육시설은 감소하고 있음

[표 8] 체육시설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종합 경기장	실내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배드 민턴장	국궁장	동네체육 시설
2004	6	1	2	1	1	—	1	—
2005	6	1	2	1	1	—	1	—
2006	11	2	5	3	—	—	1	—
2007	93	2	6	3	—	1	1	81
2008	104	3	6	3	—	—	1	92
2009	126	1	7	3	—	—	1	114
2010	139	1	7	3	—	—	1	127
2011	130	1	7	4	—	—	1	117
2012	113	1	7	4	1	—	1	99
2013	106	1	13	5	1	1	2	83

출처 : 천안시 시정주요통계 및 천안시 통계연보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2004-2006 데이터 부재

- 문화공간은 2007년 이후 크게 변화가 없어서 22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미술관이 1개에서 2013년 2개가 증가하여 3개가 된 반면, 공공 공연장이 2012년 8개에서 2013년 3개로 급격히 감소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임

[표 9] 문화공간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영화관	미술관	화랑	공공 공연 장	민간 공연 장	시민 회관	복지 회관	청소 년회 관	문예 회관	기타 (문화 원)
2007	22	4	1	1	7	2	1	1	1	1	3
2008	22	3	1	1	7	3	1	1	1	1	3
2009	22	3	1	1	7	3	1	1	1	1	3
2010	21	3	1	1	8	1	1	1	1	1	3
2011	21	3	1	1	8	1	1	1	1	1	3
2012	21	3	1	1	8	2	1	2	-	3	2
2013	22	4	3	1	3	2	1	2	1	3	2

출처 : 천안시 시정주요통계 및 천안시 통계연보

(6) 주요 생활편의시설

- 대형 유통업체는 2004년 22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2013년 23개임. 같은 기간 대형마트가 5개에서 9개로 4개가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임. 대형마트 입점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표 10] 시장 및 유통업체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백화점	대형마트	등록시장	인정시장	쇼핑센터
2004	22	2	5	14		-
2005	21	2	5	14		-
2006	21	2	5	14		-
2007	18	2	5	4	5	2
2008	18	2	6	3	4	3
2009	18	2	6	3	4	3
2010	19	2	7	3	4	3
2011	20	2	7	3	5	3
2012	23	2	9	3	5	4
2013	23	2	9	3	5	4

출처 : 천안시 시정주요통계 및 천안시 통계연보

- 교육시설 중 학교는 2004년 123개에서 2013년 143개로 20개가 증가하였음. 2014년 현재 초등학교 7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2개, 특수학교 2개, 대학 3개, 대학교 9개, 대학원 8개 등임. 교육시설은 지역 복지실천의 중요한 장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는바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표 11] 교육시설현황

(단위:개교)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2004	123	57	26	17	2	3	9	9
2005	128	61	26	17	2	3	10	9
2006	132	62	26	19	2	3	10	10
2007	138	67	26	20	2	3	10	10
2008	139	68	27	21	2	2	10	9
2009	140	68	28	21	2	2	10	9
2010	141	69	28	21	2	2	10	9
2011	142	70	29	21	2	2	9	9
2012	143	70	29	22	2	2	9	9
2013	143	70	30	22	2	2	9	8

출처 : 천안시 시정주요통계 및 천안시 통계연보

- 특수학급의 경우 2014년 현재 초등학교 66학급, 중학교 29학급, 고등학교 21학급 이며, 학생 수는 초등학교 344명, 중학교 169명, 고등학교 164명이 재학중에 있음

[표 12] 특수학급현황

(단위:개소, 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	학급수	116	66	29	21
	학생수	677	344	169	164

출처 : 천안시 시정주요통계 및 천안시 통계연보

- 의료시설은 2004년 418개에서 2013년 624개로 206개가 증가하였는데, 병원이 3개에서 3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의원이 237개에서 296개, 치과병의원이 94개에서 150개, 한방병의원이 80개에서 144개로 증가하였음

[표 13] 의료시설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2004	418	4	3	237	94	80
2005	450	4	4	245	107	90
2006	497	4	5	263	121	104
2007	530	4	5	273	125	118
2008	549	4	16	286	124	119
2009	567	4	18	284	136	125
2010	584	4	22	299	134	125
2011	606	4	26	299	144	133
2012	612	4	28	295	144	141
2013	624	4	30	296	150	144

출처 : 천안시 시정주요통계 및 천안시 통계연보

(7) 주요 사회복지시설현황

- 2014년 4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1,714 개소임. 이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1,300개소를 제외하면 총 41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이 267개소로 가장 많으며, 아동복지시설이 6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7개소, 여성복지시설 17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천안시는 2개소에 불과하여, 인구수가 더 적은 아산시 5개소에 비해 크게 적은 상황임. 이마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고는 복지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천안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지역 주민들은 서비스 접근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표 14] 천안시 주요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개소)

구분		개소수	구분		개소수
총계		1,714	소계		69
지역 복지	소계	3	아동 복지	아동양육시설	3
	사회복지관	2		지역아동센터	56
	자활센터	1		공동생활가정	10
여성 복지	소계	17	청소년 복지	소계	8
	가정폭력상담소	2		청소년상담실	1
	성폭력상담소	3		청소년 쉼터	1
	성매매피해상담소	1		청소년 수련시설	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청소년 문화의집	1
	이주여성 쉼터	1	외국인 복지	소계	6
	폭력피해여성 자립쉼터	1		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1		외국인 쉼터	2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		이주동포의 집	1
	가정폭력교육훈련시설	2		기타	1
	기타	3	장애인 복지	소계	27
노인 복지	소계	1,567		거주시설	7
	경로당(할머니방 포함)	1,300		직업재활시설	3
	노인복지관	2		장애인복지관	2
	노인교실	5		지원센터	4
	노인의료복지시설	54		주간,단기보호시설	6
	장기요양기관	176		공동생활시설	2
	노인거주시설	7		장애인체육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	23		장애인기타시설 (점자도서관 등)	2
노숙인 시설	소계	1	정신보건 복지시설	소계	16
	노숙인자활시설	1		정신요양시설	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12
				기타지원센터 (정신건강,알코올상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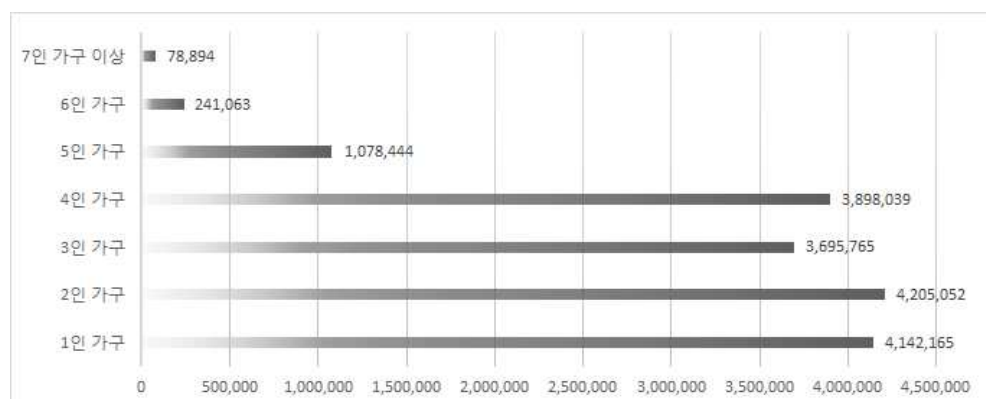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2. 천안시 1인 가구 일반 현황

1) 천안시 1인 가구 기초자료 : 주요통계

-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1700만 가구) 중 약 25%(410만 가구)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화된 주거형태임

[그림 3] 가구원수별 전국 가구수 (2010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 천안시의 1인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충청남도 역시 지속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천안시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1인 가구 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충청남도 내 가구 중 25%를 넘는 비중을 차지함

[그림 4] 천안시 1인 가구 비율 비교



- 1인 가구와 전체 가구의 평균 가계소득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1인 가구의 가계 소득은 전체 가구의 평균에 비하여 절반을 밑돌고 있을 정도로 낮음
- 1인 가구, 이른바 ‘싱글족’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에 맞추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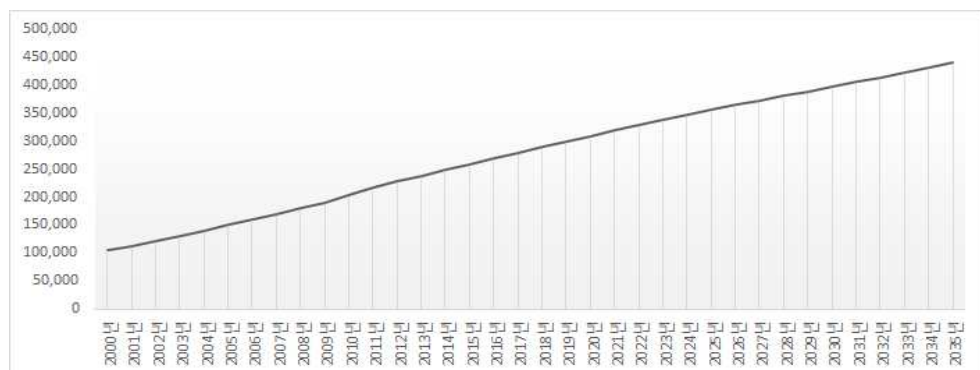
[그림 5] 전체가구-1인 가구 가계수지 비교(소득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

- 장래 가구추계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속한 충청남도의 1인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
- 2035년에는 2000년에 비해 약 4배 이상 1인 가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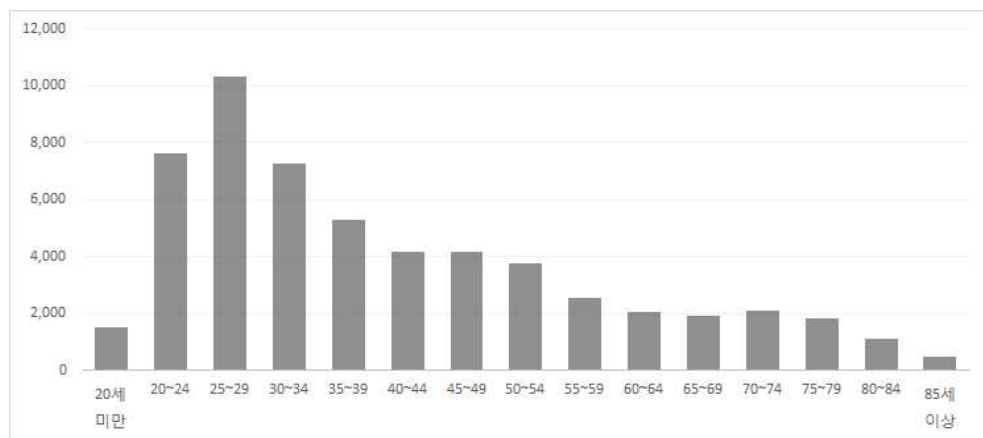
[그림 6] 충청남도 장래가구추계(1인 가구)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0

- 연령대별 1인 가구 분포를 볼 경우에도 20대~30대 까지 1인 가구 비중이 높으며, 그 후 60대부터 다시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생애 주기 중 미혼 비중이 높은 청년기와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배우자와의 사별 비중이 늘어나는 노년기에 1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함
- 천안시의 경우 20대에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분포되어 있는 만큼, 청년층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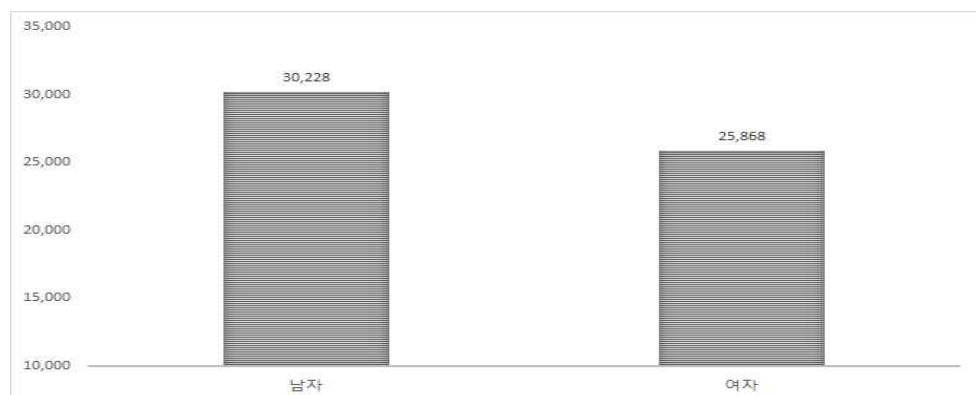
[그림 7] 천안시 연령대별 1인 가구수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 천안시 1인 가구 구성원의 성별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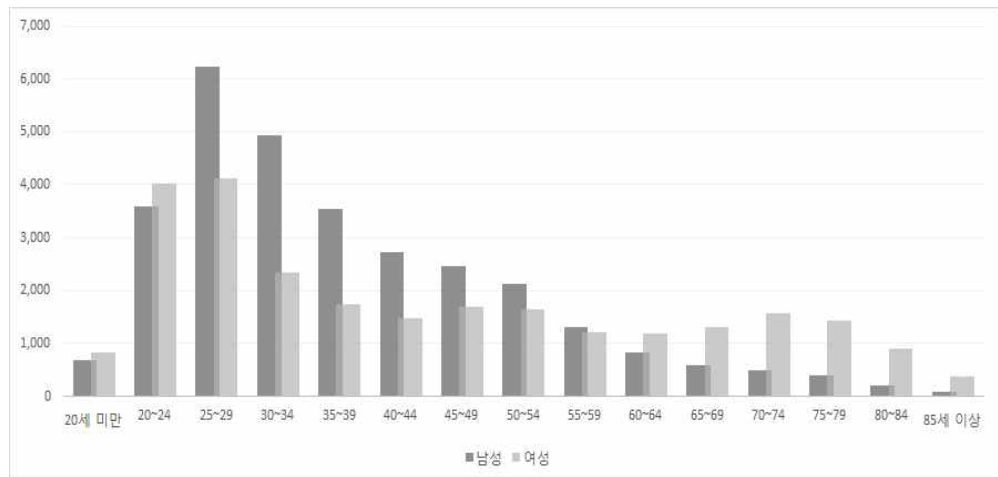
[그림 8] 천안시 1인 가구 구성원 성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 성별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경우 20대~50대 구간에서 남성 1인 가구 비중이 높으나, 60대 이후부터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을 통해, 60대 이후 사별 경험이 있는 1인 가구의 특징과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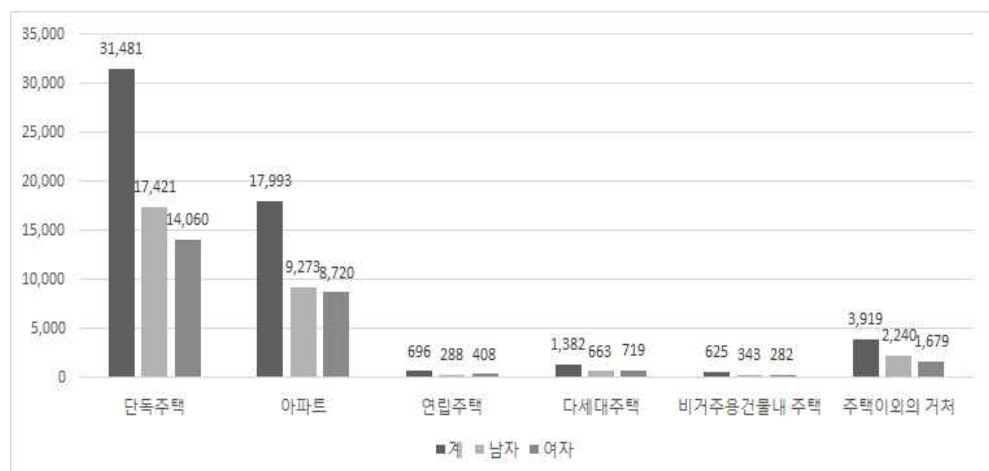
[그림 9] 천안시 성별-연령대별 1인 가구수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 거주형태별로 1인 가구를 분류한 경우 가장 많은 거주 유형은 단독가구와 아파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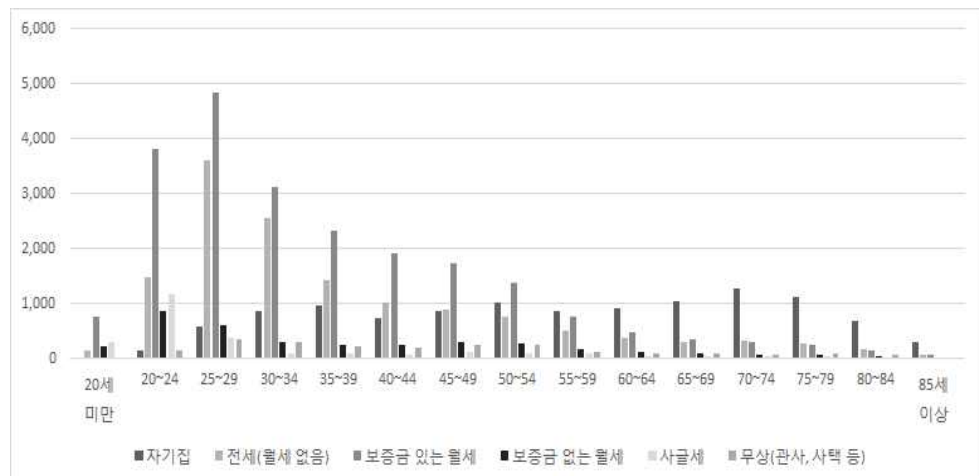
[그림 10] 천안시 거주형태별 1인 가구수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 거주지의 점유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전·월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대의 경우 월세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음.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20대의 주거유형이 대부분 전세, 월세와 같은 임대주거 형태에 한정되는 상황임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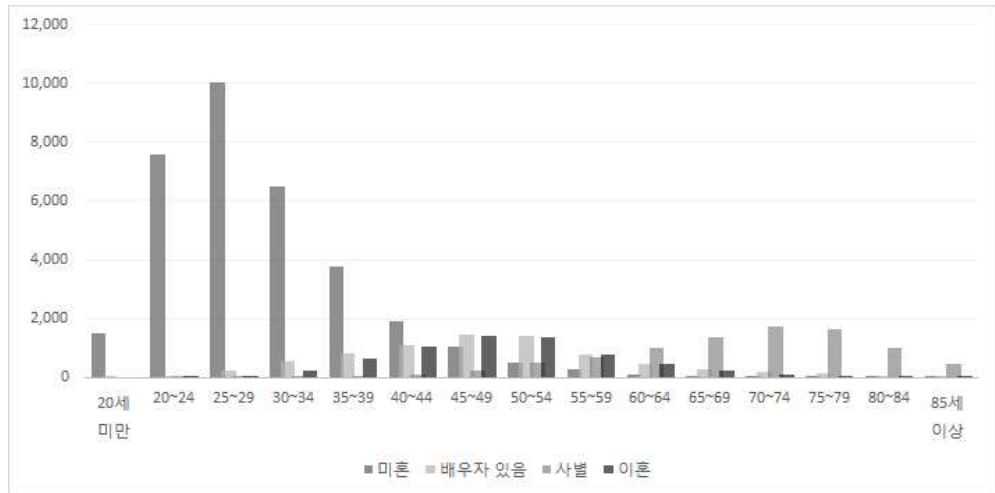
[그림 11] 천안시 거주지 점유유형별 1인 가구수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 천안시 1인 가구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20~30대까지는 미혼자 중심의 1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40대~50대까지는 혼인자 중심, 60대 이후로는 사별 경험에 있는 가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접근은 미혼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40대 초반부터 미혼과 혼인 가구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지며, 20대와 30대까지는 미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천안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학가에 주로 미혼 20대 학생들이 거주하는 특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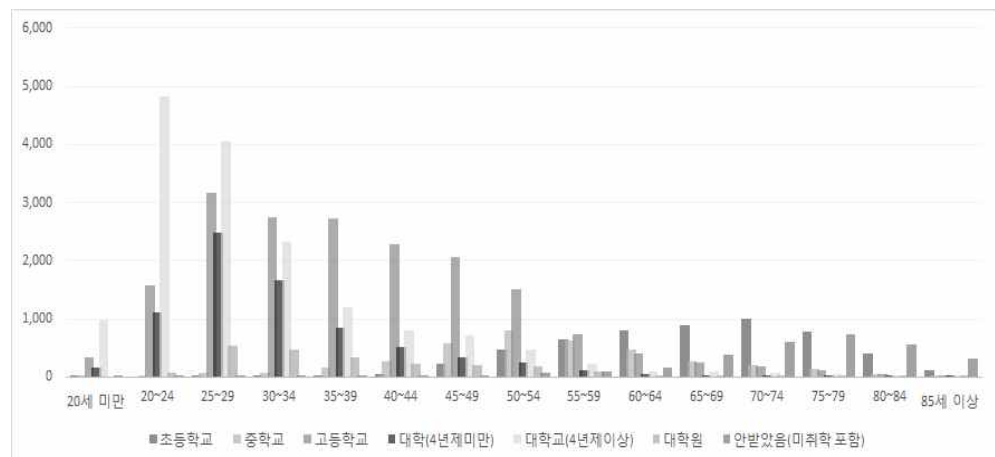
[그림 12] 천안시 혼인상태별 1인 가구수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 천안시의 1인 가구의 교육상태를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4년제 대학교 이상 재학중인 가구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천안권에 밀집한 대학교 재학생들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음
- 천안시의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대학생 중심의 1인 가구가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파악하여,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대학생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그림 13] 천안시 교육상태-연령별 1인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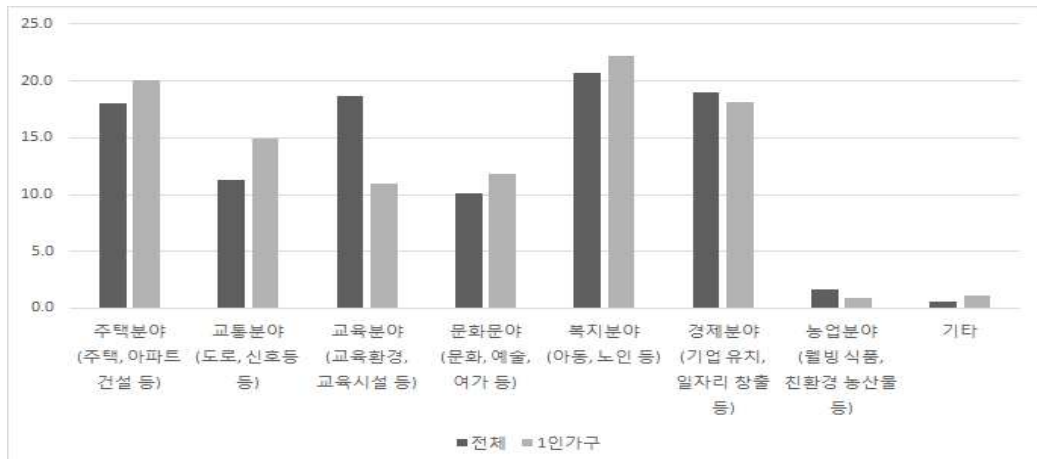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2) 천안시 문화관련 통계

- 천안시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정책 부문 중 문화분야에 대한 수요가 전체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14] 천안시 정책 추진 희망부문



자료: 충청남도사회조사, 2011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TV시청이 23.5%로 가장 많으며, 연령대 별로도 가장 많은 여가활동으로 나타남
- 20대~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컴퓨터, 사교관련 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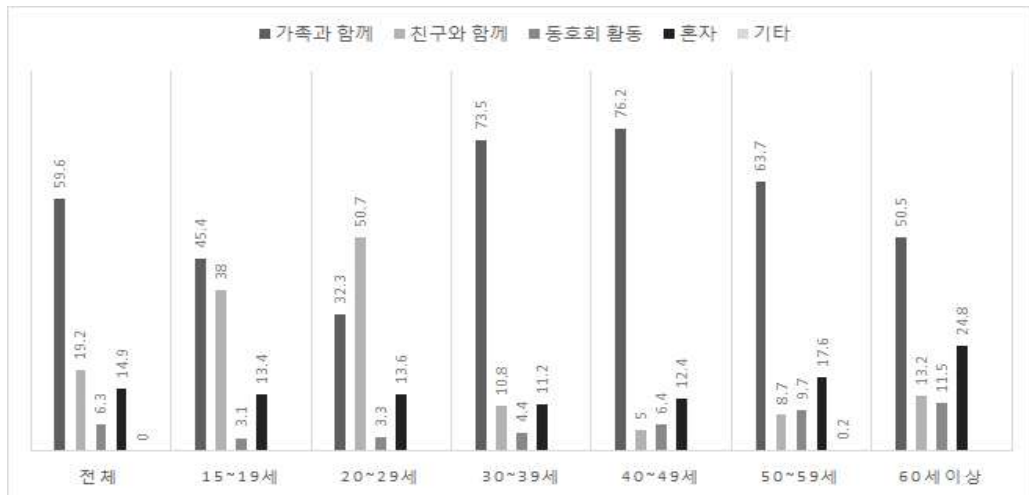
[표 15]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구분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창작적 취미	자기 계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	기타
전체	23.5	7.5	3.5	1.3	5.5	6.9	1.6	2.5	0.3	10.8	14.6	12.8	8.9	0.4
15~19세	24.9	0.5	4.2	1.4	6.8	23.9	2.4	9.5	-	7.8	0.8	7.3	10.3	-
20~29세	17.1	4.3	7.5	2.4	4.3	14.7	4	3.4	-	5.3	6.1	11	19.6	0.3
30~39세	26.4	8.8	2.3	1.4	2.6	5.7	0.8	1.3	-	7.7	19.4	15.5	7.9	0.2
40~49세	20.1	11.1	3.6	0.8	9.1	1.9	0.8	2	0.2	12.4	18	16.6	3	0.5
50~59세	24.9	10.6	2.1	1	7.1	2	1.8	2	1.3	14.6	20.6	9	2.5	0.7
60세이상	30.5	4.9	0.9	0.4	3.3	0.7	0.5	-	0.5	18.7	15	12.1	12.1	0.4

자료: 충청남도사회조사, 2011

- 여가활동 상대는 가족이 가장 많은 비중(55.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대의 경우 가족과 함께한다는 비중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남(45.4%)

[그림 15] 여가활동의 상대



자료: 충청남도사회조사, 2011

-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여행(4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음
-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스포츠활동(13.4%) 및 자기계발(16.5%)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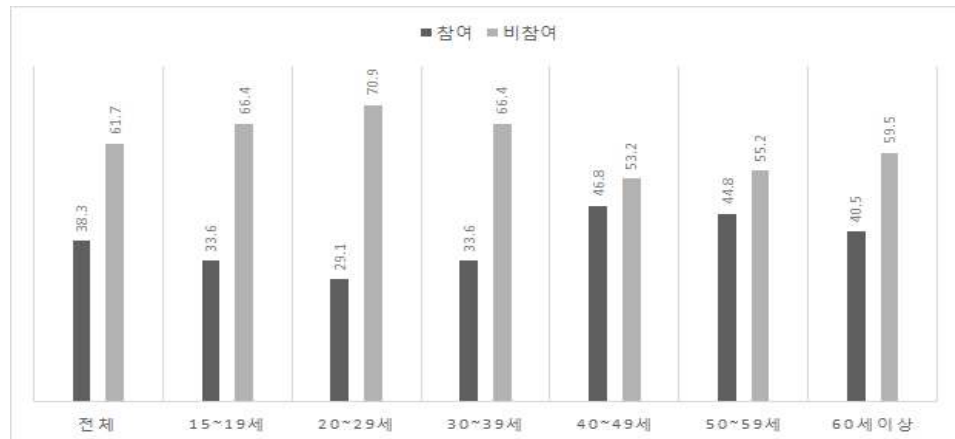
[표 16]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구분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창작적 취미	자기 계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	기타
전체	2.7	43.6	9.7	2.5	9.9	2	4.6	9	2.9	3.7	0.5	4.4	4.4	0.2
15~19세	2.8	23.9	12.9	2.7	12.4	10.3	10.8	7.9	2.1	0.4	0.4	6	7.4	-
20~29세	1.7	40	11.7	3.7	13.4	2.4	2.4	16.5	1.4	2.2	0.3	2	2.4	-
30~39세	1.5	48.8	12	2.8	10.4	1.2	4	11	1.4	0.4	0.2	4	2.3	-
40~49세	2	50.9	9.6	1.7	10.4	0.2	5.2	8.4	2.9	3.2	0.1	3.2	2.1	-
50~59세	2.2	48.5	7.2	3.4	7.8	1	6.4	4.7	5.1	5.3	0.2	4.5	3.6	-
60세이상	7.6	36.3	3.7	0.9	4.4	0.9	1.6	2	5.6	12.1	2.2	8.7	12.8	1.1

자료: 충청남도사회조사, 2011

- 지역문화행사 참여여부를 묻는 항목에 절반 이상(61.7%)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비율이 가장 낮은 세대는 20대(29.1%)로 나타나, 청년층의 지역 문화행사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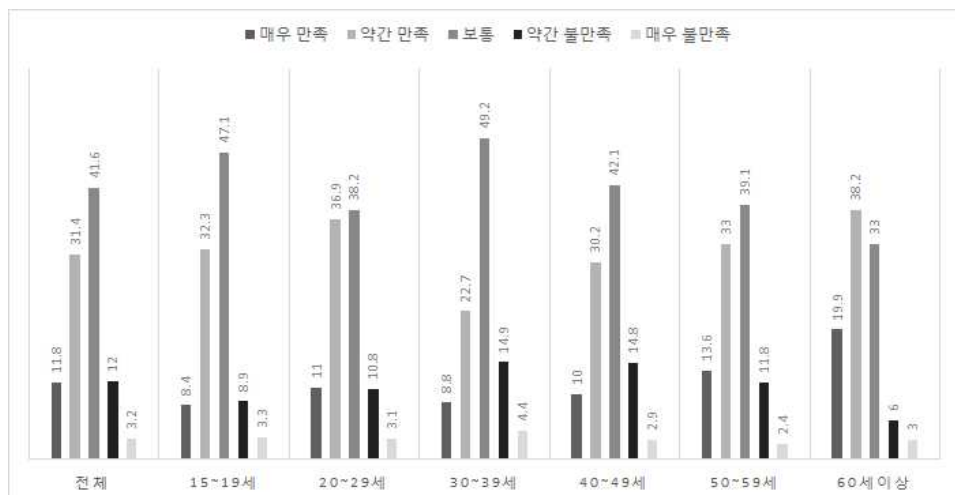
[그림 16] 지역문화행사 참여경험



자료: 충청남도사회조사, 2011

- 참여했던 지역문화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매우, 약간)이 약 43%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양호함
- 하지만 20~30대에서 매우 만족, 만족 등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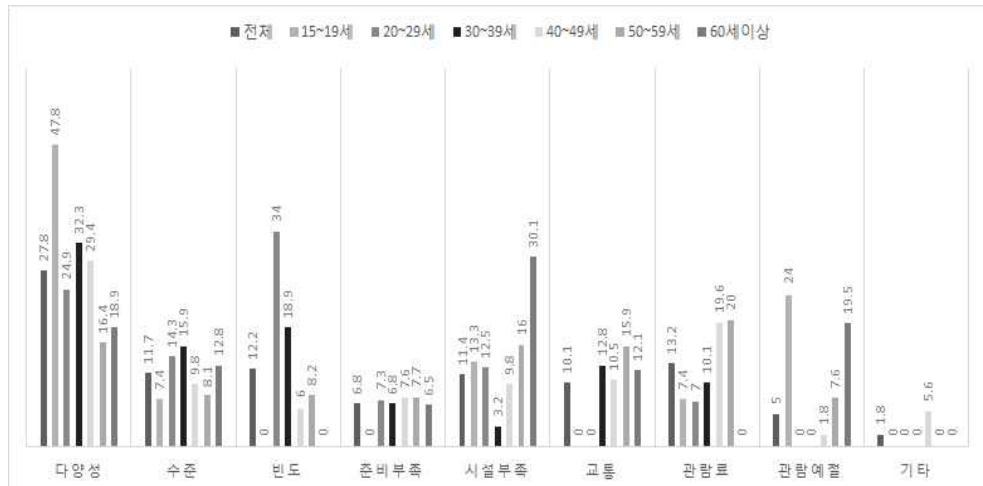
[그림 17] 참여 지역문화행사 만족도



자료: 충청남도사회조사, 2011

- 참여했던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불만족 사유의 경우 다양성이 부족 (27.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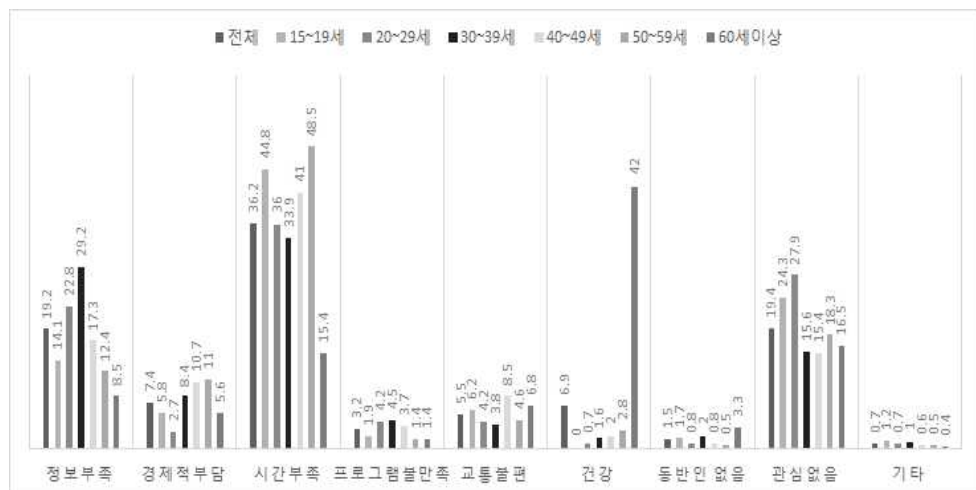
[그림 18] 참여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불만족 사유



자료: 충청남도사회조사, 2011

- 20대의 경우 행사의 빈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음
- 지역문화행사에 불참한 사유 중 시간부족(36.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시간부족은 20대(44.8%)와 50대(48.5%)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60대는 건강문제(42%)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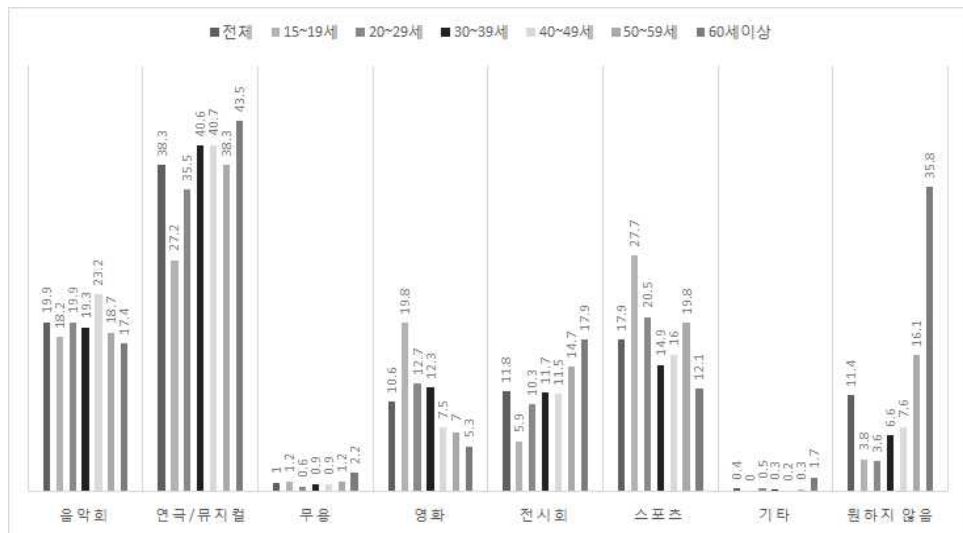
[그림 19] 지역문화행사 불참 사유



자료: 충청남도사회조사, 2011

- 향후 개최를 희망하는 지역문화 행사의 유형으로는 연극 및 뮤지컬 등의 무대공연(38.3%)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타남
- 20대에서는 스포츠(27.7%)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60세 이상에서는 문화행사에 대한 희망여부가 현저히 낮게 (35.8%) 나타남

[그림 20] 희망하는 지역문화행사의 유형



자료: 충청남도사회조사, 2011

제3장

1인 가구 실태조사

1. 의미연결망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1인 가구 키워드 도출
2. 1인 가구 대상 설문조사
3. FGI 조사

제3장 1인 가구 실태조사

1. 의미연결망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1인 가구 키워드 도출

- 모든 1인 가구를 설명할 수 있는 만능의 사회학적 개념은 없음(노명우, 2013)
 - 실제로 1인 가구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1인 가구 연구에 쓰인 통계청의 1인 가구 개념을 원용하고자 함 (변미리 외, 2014)
 - 천안시의 1인 가구란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를 의미함
- 천안시 1인 가구의 연구에 앞서 전반적인 1인 가구에 대한 주요 프레임이 생산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년세대와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였음
 - 모든 1인 가구를 설명할 수 있는 만능의 사회학적 개념은 없음(노명우, 2013)
 - 실제로 1인 가구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1인 가구 연구에 쓰인 통계청의 1인 가구 개념을 원용하고자 함 (변미리 외, 2014)
 - 천안시의 1인 가구란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를 의미함
 - 신문 기사를 통해 주요 키워드 분석을 위해서 텍스트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음
 - 의미연결망분석은 텍스트 간 연결망을 확인함으로써 담론의 유형을 범주화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방법임
- 텍스트에 반영된 주요 개념을 키워드로 설정하고, 텍스트에서 추출한 키워드들 간의 관계망을 엮어낸 후, 어떤 키워드가 해당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는지, 어떤 키워드 사이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부각되는지를 도식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이 방법을 통해 기존의 담론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빈도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 빈도분석은 텍스트 장르에 따라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휘들이 과대하게 대표되거나, 중요한 키워드 임에도 등장 빈도가 낮아 과소하게 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은 특정 단어가 아닌 ‘단어 간의 관계’ 즉, 어휘들 간의 관계와 유형을 보여줄 수 있음
- 개념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이나 특정 담론을 구성하는 중심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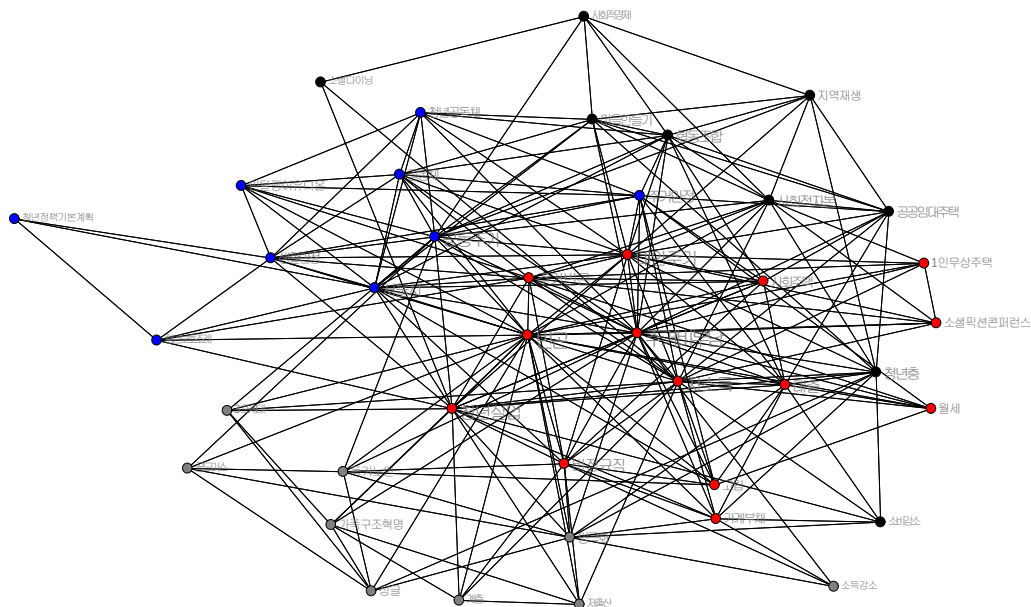
■ 분석을 위한 텍스트는 1차적으로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되었으며, 형태소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기사 내의 텍스트에서 사용된 명사들 중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 단어들을 선별하였음

- 여기서 선별한 단어들 중 동일한 의미로 판단된 단어를 통합하거나 무의미한 단어를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였음
- 추출한 키워드는 연결망 작성을 위해 한국어 내용분석 패키지인 KrKwic과 KrTitle을 사용하여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 후 UCINET을 통해 분석하였음

■ 신문기사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게재된 기사 중 유료발행부수 상위 5개 전국일간지로부터 추출하였음¹⁾

- 5개 신문사 중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서 직접 기사를 검색하였으며, 그 외의 신문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서비스(KINDS)²⁾를 통해서 검색하였음

[그림 21] 1인 가구 관련 키워드 연결망 (degree centrality)



■ 위의 연결망³⁾에서 볼 수 있듯 청년층 1인 가구와 관련된 키워드를 취합한 결과 ‘주거비 부담’, ‘빈곤’, ‘청년실업’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어휘들이 청년 1인 가구를 다룬 텍스트에서 주요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거와 관련된 이슈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청년 1인 가구 문제에서 핵심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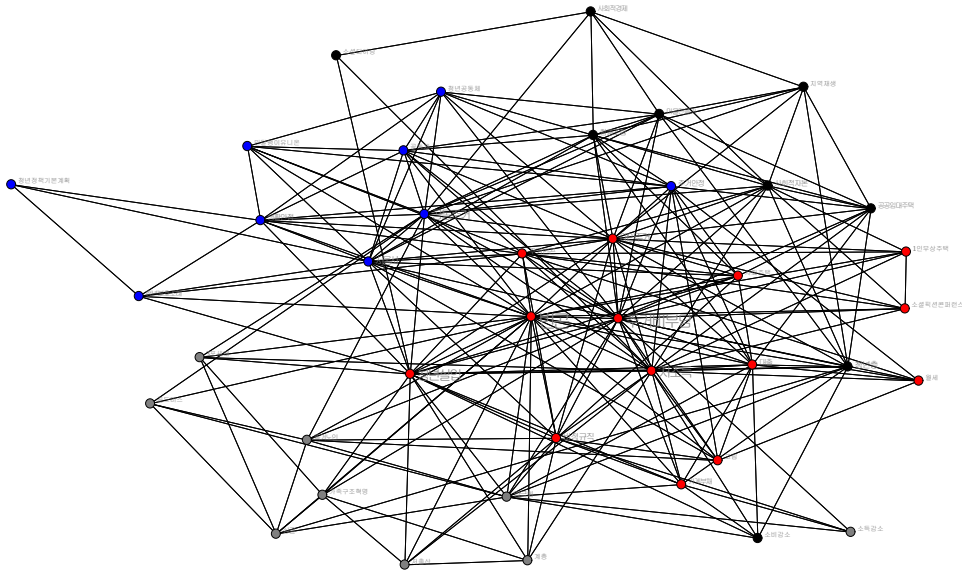
1) 2013년 유료발행부수: 조선일보(1,294,239부), 중앙일보(811,083부), 동아일보(707,346부), 한겨레(200,831부), 경향신문(169,156부), 한국일보(158,848부). 한국ABC협회 ‘2014매체별 정기간사’ 결과

2)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통합검색서비스(<http://www.kinds.or.kr>)

3) <그림 21>은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척도로 연결망으로 분석한 것으로, 중심성은 특정 노드(키워드)가 연결망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척도임

- 연결망 내에서 노드의 색을 통해 분류한 영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영역① 경제적 한계상황(핵심영역): 주거비와 같은 경제적 이슈들은 ‘청년실업’, ‘비정규직’, ‘가계부채’, ‘저소득’ 과 같은 경제적 한계상황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모여 하나의 영역(붉은색)을 구성하고 있었음
- 이 영역은 청년 1인 거주 문제의 핵심적 이슈들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상 경제적 문제로 회귀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 영역② 청년중심의 대안주거: 붉은색 영역을 중심으로 ‘대안주거’, ‘공동체’, ‘주거안정’ 등의 청년 세대 중심의 대안주거 운동에 대한 키워드들이 하나의 영역(푸른색)을 형성하고 있음
- 공동주거에서 ‘서울시’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난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재생사업이나 대학생 임대주택 등의 사업이 대안주거의 주요 사례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
- 영역③ 공동체중심의 대안주거: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사회자본’ 등의 키워드로 묶인 영역(검은색)은 푸른색 영역과 마찬가지로 붉은색 영역에 해당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주거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접근과 관련된 이슈를 포함함
- 이 영역이 푸른색 영역과 다른 점은, 특정 세대에 의한 운동 보다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성격을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 있음
- 영역④ 구조적 맥락: 마지막으로 ‘가족구조혁명’, ‘독거노인’, ‘저출산’ 등의 키워드로 구성된 영역(회색)에서는 1인 가구가 형성된 구조적 맥락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생산된 텍스트들이 모여있음
- 여기서는 ①번 영역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담론이 구성되어 있으나, 경제적 이슈 그 자체 보다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문제를 조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그림 22] 1인 가구 관련 키워드 연결망 (betweenness centrality)



■ 위의 연결망⁴⁾은 앞서 살펴본 연결망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을 통해 연결망을 해석할 수 있도록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결망임

- 앞서 살펴본 연결망이 중요 키워드에 대한 해석이었다면, 위의 연결망은 키워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연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임
- 이 경우, 여전히 ‘주거비 부담’과 ‘빈곤’이 청년 1인 가구와 연관된 다른 개념들을 연결하는 매개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만큼 청년 1인 가구와 불안정한 청년의 한계적 경제상황이 핵심적인 쟁점임을 알 수 있음
- 중심성과 달리 사이중심성에서 ‘빈곤’과 ‘주거비 부담’을 제외한 다른 키워드에서 키워드의 크기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이 둘 두 키워드를 통해 대부분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함

■ 결국 주거비와 빈곤 문제가 중심성(degree)과 사이중심성(betweenness) 양쪽 모두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거비와 빈곤 문제 그 자

4) <그림 22>는 사이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토대로 동일한 연결망을 분석한 것으로, 사이중심성은 특정 노드(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매개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척도이다. 중심성(degree)이 주요 행위자라면 사이중심성(betweenness)은 브로커와 같은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키워드라고 이해할 수 있음

체가 청년 1인 가구의 현실을 구성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청년 1인 가구로부터 파생하는 문제의 핵심임을 의미함

- 키워드에 의해 구성된 영역은 두 연결망 모두 동일하지만 각각의 영역들 내에서도 빈곤과 주거비 부담과 같은 수준으로 다른 키워드를 매개하는 영향력을 지닌 키워드는 발견할 수 없었음

■ 두 가지 유형의 연결망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년 1인 가구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들은 주거비와 빈곤, 실업 등 경제적 한계상황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경제적 문제들이 핵심적인 이슈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색에 대한 담론들이 구성되어 있었음
- 이들 대안 담론들은 주로 청년 세대 및 지역 공동체 중심의 대안주거운동의 형태로 논의되고 있었음
- 한국 사회 내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라이프스타일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결국 청년 세대의 1인 가구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탐색 보다는 경제적 한계상황이라는 생존의 문제로 접근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더불어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과 함께, 저출산에 따른 경제성장의 정체 문제를 함께 지적하기도 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청년 세대의 1인 가구 문제가 장기지속되는 사회 문제로 자리매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천안의 1인 가구는 전반적인 1인 가구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천안의 높은 GRDP가 말해주듯이 천안의 청년1인 가구는 경제적 빈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일반적인 청년 1인 가구와 비교하여, 천안의 청년 1인 가구는 균질적인 집단(대학생+근로자)을 형성하고 있음

- 천안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은 성정2동, 두정동, 안서동 이며 독거 청년의 50%이상은 타 지역에서 이주한 국내 이주민임
- 천안의 1인 가구는 경제적 빈곤보다는 타인과의 관계맺기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가 문제시 되고 있음

2. 1인 가구 대상 설문조사

1) 조사의 개요

- 조사기간 : 2015년 8월 20일부터~ 2015년 9월 30일
- 조사대상 : 천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 1인 가구
- 수행기관 : 천안문화재단, 천안복지세상
- 표본수 : 160명
- 설문조사 내용 : 인구사회학적특성/여가시간의 활용/문화예술활동참여/문화예술활동참여의사/ 문화예술활동과 지역사회

(1) 변수의 구성

- 환경사무의 협력강화 및 역량조사 강화 현황분석을 위하여 총 29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설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여가시간의 활용,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향후 문화예술 활동 참여 의사,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크게 5개로 범주화하여 살펴봄
- 첫째, 천안시 1인 가구의 문화예술 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적 현황 및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임. 이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 주거형태, 주거방식에 따른 변수임. 그 밖에 문화예술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활동에 참여한 여부에 따라 설문문항을 다르게 하여 질문토록 하였음
- 둘째, 여가시간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묻는 질문임. 이는 독서/방송, 컴퓨터/인터넷, 레저/문화, 친목/유흥, 기타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여가활동의 예시표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TV시청과 인터넷

활용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여가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음

- 셋째,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에 관한 항목은 먼저 문화예술활동(감상, 관람, 비평, 창작 등)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대상집단과 그렇지 않은 대상집단으로 구분하였음. 이에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대상집단을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예술활동의 참여형태, 문화예술활동시 주로 방문하는 장소, 문화예술활동에 얼마나 자주참여하는지에 대한 빈도, 주로 누구와 함께 문화예술활동을 하는지 여부, 월평균 문화예술활동의 지출비용,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시 만족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음. 이와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문화예술활동 할 때 장애요인과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을 함께 하였음
- 넷째, 향후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의사에 관한 항목임. 이는 문화예술활동을 현재 참여하지 않은 대상집단으로 하여금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문화예술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묻도록 하였음. 그리고 향후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활동의 형태, 향후 방문할 문화예술 활동장소, 월별 문화예술 활동 지출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을 통하여 분석하였음
- 마지막으로 천안시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사회에 관한 항목임. 먼저 천안시의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정책적 지원과 문화예술활동의 환경에 관한 사항들을 3가지 질문을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천안시의 삶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심, 천안시의 이미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그리고 천안시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주말이나 휴일에 상주여부, 향후 거주계획,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향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음
- 이상의 변수를 이용하여 본 장에서는 각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함께 실시함. 따라서 각 변수별 일반현황과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고자 함. 그리고 집단별 특성에 따라 여

가 및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전반적 인식 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본 설문은 천안시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을 활용하였으며 통계는 SPSS 20.K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표 17] 천안시 1인 가구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의 주요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척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성별, ②연령, ③혼인상태, ④학력, ⑤직업, ⑥월평균수입, ⑦주거형태, ⑧주거방식	명목·서열척도
여가시간의 활용	①여가시간 활용(독서/방송, 컴퓨터/인터넷, 레저/문화, 친목/유흥, 기타), ②평균 TV시청과 인터넷 사용시간	명목·서열척도
문화예술 활동 참여	①문화예술 활동 참여여부, ②문화예술 활동참여형태, ③문화예술활동 장소, ④문화예술활동 참여정도, ⑤주로 누구와 참여하는지에 관한 항목, ⑥월평균 지출, ⑦문화예술활동 참여 장애요인, ⑧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제언	명목·서열척도
	⑨문화예술참여 만족도	Likert 5점척도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사	①문화예술활동 참여의사, ②문화예술활동 참여형태, ③문화예술활동 예정방문지, ④문화예술활동 평균 지출 적정성	명목·서열척도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사회	①문화예술활동 정책적 지원과 환경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 문화 예술활동을 위한 좋은환경), ②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 향상,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성장에 도움, 천안시 와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천안시의 이미지 향상, 지역 경제활성화), ③천안시의 삶의 만족도	Likert 5점척도
	④주말이나 휴일에 상주 여부, ⑤향후 천안시에 거주계획, ⑥문화예술 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의향	명목·서열척도

(2) 인구·사회학적 현황

- 본 연구는 2015년 천안시 주민 160명을 대상으로 여가 및 문화예술활동 관련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자 함. 앞서 먼저 본 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을 파악할 것임
- 첫째, 2015년 천안시 1인 가구 문화예술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응답한 각 개별 응답자의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가 68명으로 42.5%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여자가 92명으로 5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둘째,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대에서 40대까지가 설문대상자로 포함되었으며 그중 10대가 25명으로 15.6%의 비중을 차지하고 20대가 121명으로 75.6%의 비중을, 30대가 13명으로 8.1%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대가 1명으로 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셋째,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의 경우가 6명으로 3.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혼(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가 153명으로 9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즉 1인 가구의 경우 그 대다수가 비혼인인 경우가 많았음을 보이고 있음
- 넷째,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이 5명으로 3.1%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교 재학의 경우가 109명으로 68.1%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대졸이 41명으로 25.6%의 비중을 마지막으로 대학원졸이 5명으로 3.1%의 비율을 보임
- 다섯째,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학생이 103명으로 64.4%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사무가 18명으로 11.3%, 판매 및 서비스직이 5명으로 3.1%, 생산 및 기술직이 7명으로 4.4%, 무직(은퇴)이 1명으로 0.6%, 공무원 및 군인이 3명으로 1.9%, 그리고 기타가 2명으로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여섯째, 주거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가의 경우 21명으로 13.1%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세가 24명으로 15%의 비율을 기숙사 거주가 17명으로 10.6% 월세가 77명으로 48.1%의 비율을 기타가 2명으로 1.3%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일곱째, 주거방식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취가 126명으로 78.8%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숙(기숙사)이 18명으로 11.3%의 비율을 셰어 및 동거가 7명으로 4.4%의 비율을 기타가 2명으로 1.3%의 비율을 보임
- 마지막으로 월평균 수입을 통한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이 46명으로 28.8%의 비율을 100-200만원이 33명으로 20.6%로 비율을 200-300만원이 17명으로 17.6%의 비율을 300-400만원이 8명으로 5%의 비율을 500만원 이상이 2명으로 1.3%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용돈(아르바이트)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54명으로 33.8%의 비율을 보임

[표 18] 천안시 1인 가구 대상 인구·사회학적 특성(단위: 건수, %)

구분		응답 수	구성비(%)
성별	남	68	42.5
	여	92	57.5
	합계	160	100
연령	10대	25	15.6
	20대	121	75.6
	30대	13	8.1
	40대	1	0.6
	합계	160	100
혼인상태	기혼	6	3.8
	비혼	153	95.6
	무응답	1	0.6
	합계	160	100.0
학력	고졸	5	3.1
	대재	109	68.1
	대졸	41	25.6
	대학원	5	3.1
	합계	160	100
직업	학생	103	64.4
	일반사무	18	11.3
	판매 및 서비스	5	3.1
	생산 및 기술직	7	4.4
	전문직	14	8.8
	무직(은퇴)	1	0.6
	공무원 및 군인	3	1.9
	기타	2	1.3
	무응답	7	4.4
	합계	160	100.0
주거형태	자가	21	13.1
	전세	24	15.0

	기숙사	17	10.6
	월세	77	48.1
	기타	2	1.3
	무응답	19	11.9
	합계	160	100.0
주거방식	자취	126	78.8
	하숙(기숙사)	18	11.3
	쉐어 및 동거	7	4.4
	기타	2	1.3
	무응답	7	4.4
	합계	160	100.0
월 수입	100만원 미만	46	28.8
	100-200만원	33	20.6
	200-300만원	17	10.6
	300-400만원	8	5.0
	500만원 이상	2	1.3
	용돈(아르바이트)	54	33.8
	합계	160	100

2) 1인 가구 여가활동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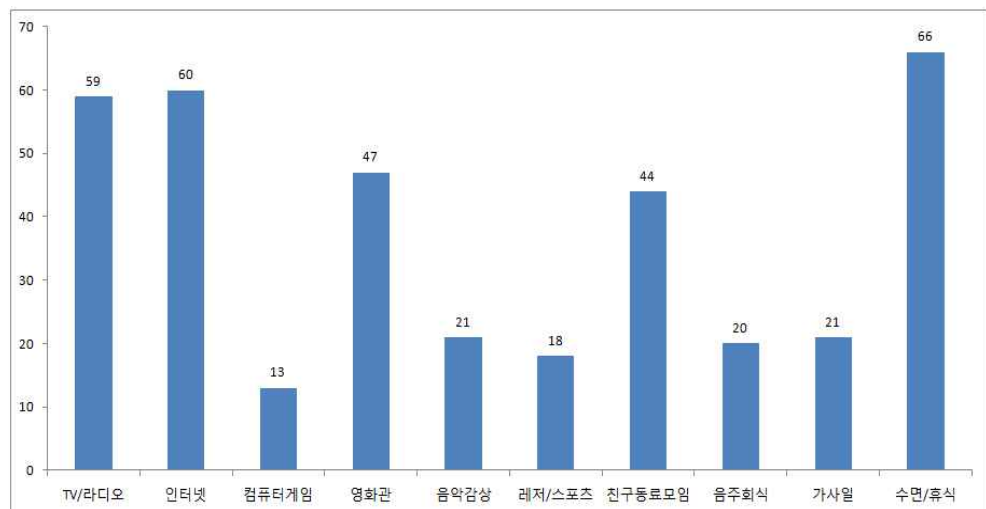
(1) 여가시간 활용 우선순위 분석

[표 19] 여가시간 활용의 예

구분	여가활동
독서/방송	독서, TV/라디오
컴퓨터/인터넷	인터넷, PC방, 컴퓨터 게임
레저/문화	공연관람, 미술/박물관관람, 영화관, 운동경기관람, 음악감상, 비디오/DVD,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문학, 합창, 서예, 그림, 연극, 무용 등), 문화예술 강좌 및 수강(문학, 합창, 서예, 그림, 연극, 무용 등), 공예, 제과/제빵/커피 만들기, 레저/스포츠(운동, 등산, 자전거 등)
친목/유흥	가족모임 및 가족의식, 친구동료모임, 음주회식, 노래방, 기타
기타	자기개발(공부, 학원 등), 가사일(빨래, 요리, 청소 등), 쇼핑(장보기, 홈쇼핑 등), 수면/휴식, 종교활동, 드라이브, 산책,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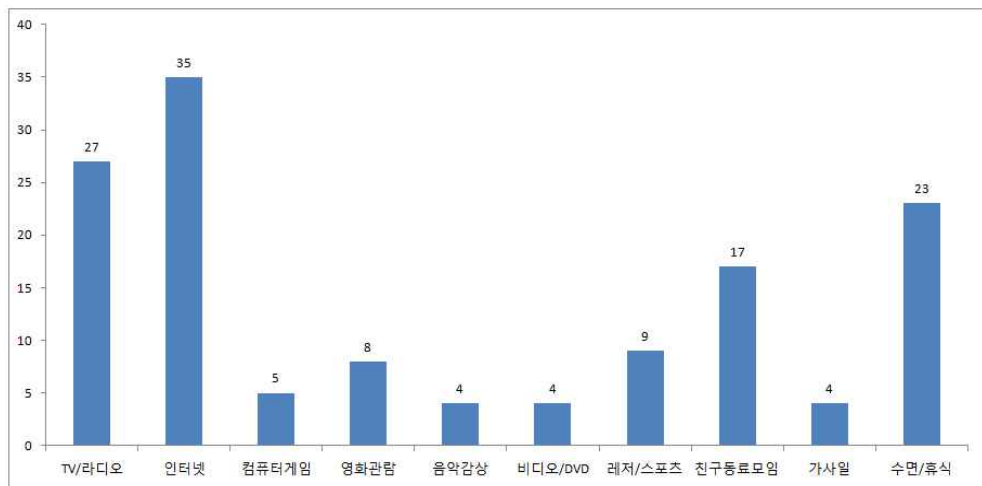
- 본 논의는 다음 위의 <표 19>를 중심으로 하여 여가시간에 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현황은 다음 <그림 23>에서 보듯이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게 하였음. 즉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복수로 하게끔 하였으며 그에 따라 중복응답에 대한 처리를 하였음. 먼저 천안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경우 여가시간에 주로 수면/휴식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 그리고 인터넷, TV/라디오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영화관에서 영화감상을 한다든지, 친구동료들의 모임 등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

[그림 23] 1인 가구의 여가시간 활용 우선순위(단위: 건수)



- 다음 <그림 24>에서 보듯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여가시간 활용방식에 있어서 1순위를 응답한 빈도수를 파악하였음.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여가시간에 인터넷의 접속이며, 그 다음으로 수면 및 휴식임 그리고 그 뒤로 TV/라디오 시청 및 청취, 친구동료 모임 등이 그 뒤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

[그림 24] 1인 가구의 여가시간 활용 방식 1순위(단위: 건수)



- 다음 <표 20>은 천안시의 1인 가구의 여가활용시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선정하고 그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였음. 먼저 우선순위의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35명이 응답한 인터넷의 활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TV/라디오의 시청 및 청취가 27명이 응답하여 2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수면 및 휴식이 23명이 응답하였으며 친구와 동료모임이 17명이 응답하여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음.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면 및 휴식이 21명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영화관람이 18명 인터넷 활용이 15명 그리고 친구동료 모임, TV/라디오 시청 및 청취가 각각 12명이 응답하여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음. 마지막으로 3순위에 해당하는 응답의 경우 수면 및 휴식이 22명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영화관람이 21명, TV/라디오 시청 및 청취가 20명으로 그 뒤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

[표 20] 1인 가구의 여가시간 활용 우선순위(단위: 건수)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TV/라디오	27	12	20	59
인터넷	35	15	10	60
컴퓨터게임	5	5	3	13
영화관람	8	18	21	47
음악감상	4	2	15	21
비디오/DVD	4	3	1	8
레저/스포츠	9	5	4	18
친구동료모임	17	12	15	44
음주회식	3	7	10	20
가사일	4	6	10	21
수면/휴식	23	21	22	66

(2) 가구 내 TV 시청 및 인터넷 활용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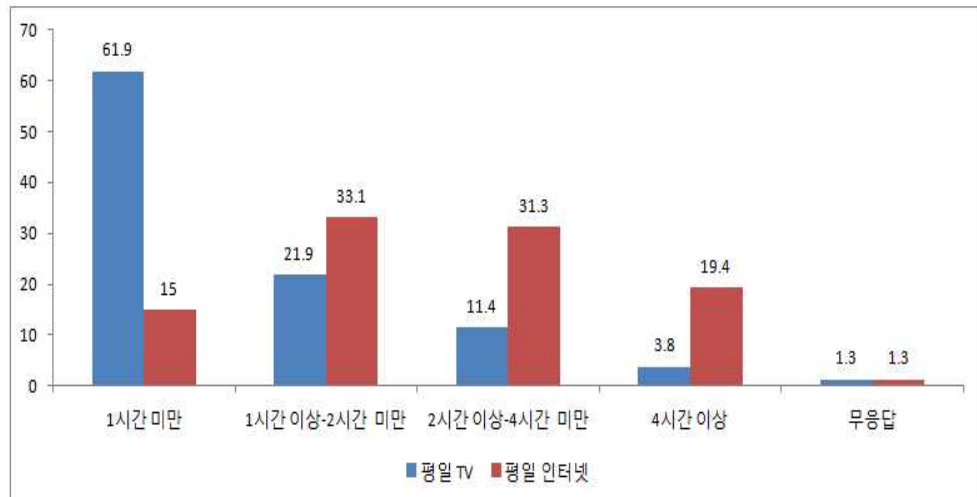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평일 TV 및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응답결과에 있어서 먼저 TV 시청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각각 61.9%, 21.9%의 비율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평일 인터넷 접속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33.1%,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31.3%의 비율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 평일 TV 및 인터넷 이용시간 응답결과(단위: 건수, %)

구분	평일 TV		평일 인터넷	
	빈도	%	빈도	%
1시간 미만	99	61.9	24	15.0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35	21.9	53	33.1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18	11.4	50	31.3
4시간 이상	6	3.8	31	19.4
무응답	2	1.3	2	1.3
합계	160	100.0	160	100.0

- 다음 <그림 25>는 평일 TV 시청시간과 평일 인터넷 활용시간에 대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그림 25] 1인 가구의 평일 TV시청과 인터넷 활용 시간 비율(단위: %)



- 다음 <표 22>는 대상집단별 평일 TV 시청 시간의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1시간 미만의 경우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비율 또한 비슷하게 나타남.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20대, 30대 모두 1시간 미만의 시청시간이 다수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30대의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역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혼인 상태에 따른 분석결과 기혼의 경우 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비혼의 경우 1시간 미만이 보다 높은 분포를 보임.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의 경우 1시간 미만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대별 분포도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역시 학생의 경우 1시간 미만의 TV시청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과 아르바이트의 경우 1시간 미만의 TV시청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주거형태별로 보면 자가의 경우 1시간 미만으로 TV 시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주거방식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1시간 미만으로 TV를 시청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2] 대상집단별 평일 TV 시청 시간 응답결과

구분		평일TV				전체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성별	남	45	15	5	2	67
	여	54	20	13	4	91
	무응답	0	0	0	0	2
전체		99	35	18	6	160
연령	10대	19	2	3	1	25
	20대	74	26	14	5	119
	30대	6	6	1	0	13
	40대	0	1	0	0	1
	무응답	0	0	0	0	2
전체		99	35	18	6	160
혼인	기혼	2	2	1	1	6
	비혼	97	33	16	5	151
	무응답	0	0	0	0	3
전체		99	35	17	6	160
학력	고졸 이하	2	2	1	0	5
	대재	76	17	11	5	109
	대졸 이상	18	14	6	1	39
	대학원	3	2	0	0	5
	무응답	0	0	0	0	2
전체		99	35	18	6	160
직업	학생	71	18	10	4	103
	일반사무	9	5	3	0	17
	판매 및 서비스직	3	2	0	0	5
	생산 및 기술직	3	2	1	1	7
	전문직	6	5	2	0	13
	무직(은퇴)	0	0	1	0	1
	공무원 및 군인	1	0	1	1	3
	기타	2	0	0	0	2
	무응답	0	0	0	0	9
전체		95	32	18	6	160
월수입	100만원 미만	31	10	2	3	46
	100~200만원	16	9	6	0	31
	200~300만원	10	4	1	2	17
	300~400만원	4	4	0	0	8
	500만원 이상	1	1	0	0	2
	용돈(아르바이트)	37	7	9	1	54
	무응답	0	0	0	0	2
전체		99	35	18	6	160
주거형태	자가	16	4	0	1	21
	전세	12	7	3	1	23
	기숙사	10	2	3	2	17
	월세	44	19	12	1	76
	기타	1	1	0	0	2
무응답		0	0	0	0	21
전체		83	33	18	5	160
주거방식	자취	79	30	13	2	124
	하숙(기숙사)	12	2	3	1	18
	쉐어 및 동거	4	2	1	0	7
	기타	1	0	0	1	2
	무응답	0	0	0	0	9
전체		96	34	17	4	160

- 다음 <표 23>은 대상집단별 평일 인터넷 접속 시간의 응답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2-4시간 미만의 경우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비율 또한 비슷하게 나타남.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2시간 미만-4시간 미만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며 20대와 30대는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냄. 혼인 상태에 따른 분석결과 기혼의 경우 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비혼의 경우 2-4시간 미만의 인터넷 접속시간이 높은 분포를 보임.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과 졸업, 그리고 대학원의 경우 각각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분포가 다른 시간대별 분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역시 학생의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인터넷 접속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일반사무직의 경우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판매 및 서비스, 그리고 생산직의 경우 1시간 미만의 인터넷 접속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전문직의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의 경우 분포가 다른 시간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수입이 100만원 미만과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충당하는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에 가장 높은 분포로 인터넷 접속시간을 할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0-200만원, 200-300만원의 경우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으로 인터넷 접속을 하는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남. 주거형태별로 보면 자가, 전세, 기숙사의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으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의 경우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으로 인터넷 접속이 높게 나타남

[표 23] 대상집단별 평일 인터넷 접속 시간 응답결과

구분		평일 인터넷				전체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성별	남	11	26	20	9	66
	여	13	27	30	22	92
	무응답	0	0	0	0	2
전체		24	53	50	31	160
연령	10대	2	4	9	10	25
	20대	17	43	38	21	119
	30대	5	6	2	0	13
	40대	0	0	1	0	1
	무응답	0	0	0	0	2
전체		24	53	50	31	160
혼인	기혼	3	0	3	0	6
	비혼	21	53	46	31	151
	무응답	0	0	0	0	3
전체		24	53	49	31	160
학력	고졸 이하	1	1	3	0	5
	대재	10	35	33	30	108
	대졸 이상	10	15	14	1	40
	대학원	3	2	0	0	5
	무응답	0	0	0	0	2
전체		24	53	50	31	160
직업	학생	10	35	31	26	102
	일반사무	2	6	8	1	17
	판매 및 서비스직	3	0	1	1	5
	생산 및 기술직	3	1	3	0	7
	전문직	4	5	5	0	14
	무직(은퇴)	0	1	0	0	1
	공무원 및 군인	1	0	0	2	3
	기타	0	1	1	0	2
전체		23	49	49	30	160
월수입	100만원 미만	3	17	11	14	45
	100-200만원	6	10	14	3	33
	200-300만원	5	6	5	0	16
	300-400만원	3	3	2	0	8
	500만원 이상	2	0	0	0	2
	용돈(아르바이트)	5	17	18	14	54
	무응답	0	0	0	0	2
전체		24	53	50	31	160
주거형태	자가	4	8	4	5	21
	전세	6	8	6	4	24
	기숙사	2	6	5	2	15
	월세	9	27	28	13	77
	기타	1	0	0	1	2
	무응답	0	0	0	0	21
전체		22	49	43	25	160
주거방식	자취	16	43	39	28	126
	하숙(기숙사)	4	6	5	1	16
	쉐어 및 동거	2	2	3	0	7
	기타	1	0	0	1	2
	무응답	0	0	0	0	9
전체		23	51	47	3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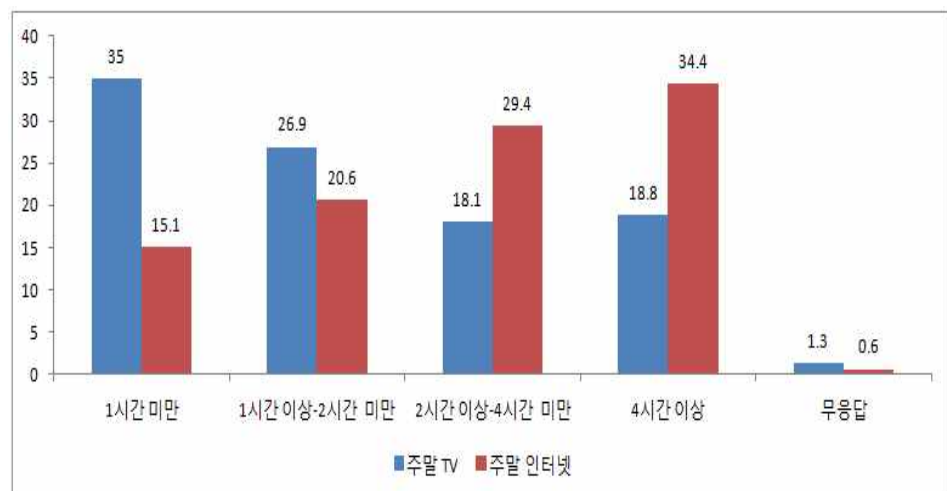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주말 TV 및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응답결과에 있어 먼저 TV 시청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각각 35.0%, 26.9%의 비율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평일 인터넷접속 시간의 경우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29.4%, 4시간 이상이 34.4%의 비율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주말에 인터넷 및 TV 시청시간이 평일에 비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4] 주말 TV 및 인터넷 이용시간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주말 TV		주말 인터넷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1시간 미만	56	35.0	24	15.1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3	26.9	33	20.6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29	18.1	47	29.4
4시간 이상	30	18.8	55	34.4
무응답	2	1.3	1	0.6
합계	160	100.0	159	100.0

- 다음 <그림 26>은 주말 TV 시청시간과 평일 인터넷 활용시간에 대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그림 26] 1인 가구의 주말 TV시청과 인터넷 활용 시간 비율(단위: %)



- 다음 <표 25>는 대상집단별 주말 TV 시청시간의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시간 미만의 경우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1시간 미만과 1시간이상-2시간 미만의 경우가 각각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2시간 미만-4시간 미만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며 20대와 30대는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냄. 혼인 상태에 따른 분석결과 기혼의 경우 2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높은 분포를 보이며 비혼의 경우 1시간 미만의 TV 시청시간이 높은 분포를 보임.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과 졸업, 그리고 대학원의 경우 각각 1시간 미만의 시간대별 분포가 다른 시간대별 분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역시 학생 및 일반사무직의 경우 1시간 미만의 TV시청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판매 및 서비스, 그리고 생산직의 경우 각 시간대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전문직 및 군인의 경우 가장 높은 분포에 해당하는 경우 1시간 미만으로 나타남.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수입이 모든 영역별로 1시간 미만의 TV 시청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주거형태별로 보면 자가, 월세 기숙사의 경우 1시간 만의 TV 시청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전세의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표 25] 대상집단별 주말 TV 시청 시간 응답결과

구분		주말 TV				전체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성별	남	32	19	11	5	67
	여	24	24	18	25	91
	유효(전체)	56	43	29	30	158
	결측(무응답)	2				
연령	10대	9	7	5	4	25
	20대	43	31	21	24	119
	30대	4	5	2	2	13
	40대	0	0	1	0	1
	유효(전체)	56	43	29	30	158
	결측(무응답)	2				
혼인	기혼	2	0	3	1	6
	비혼	54	43	25	29	151
	유효(전체)	56	43	28	30	157
	결측(무응답)	3				
학력	고졸 이하	1	2	2	0	5
	대재	42	30	18	19	109
	대졸 이상	11	9	8	11	39
	대학원	2	2	1	0	5
	유효(전체)	56	43	29	30	158
	결측(무응답)	2				
직업	학생	36	32	17	18	103
	일반사무	6	2	5	4	17
	판매 및 서비스직	1	2	1	1	5
	생산 및 기술직	1	2	2	2	7
	전문직	5	3	2	3	13
	무직(은퇴)	0	0	0	1	1
	공무원 및 군인	2	0	0	1	3
	기타	1	0	1	0	2
	유효(전체)	52	41	28	30	151
	결측(무응답)	9				
월수입	100만원 미만	17	14	9	6	46
	100-200만원	11	7	5	8	31
	200-300만원	8	3	4	2	17
	300-400만원	3	2	3	0	8
	500만원 이상	0	2	0	0	2
	용돈(아르바이트)	17	15	8	14	54
	유효(전체)	56	43	29	30	158
	결측(무응답)	2				
주거형태	자가	7	3	5	6	21
	전세	10	5	3	5	23
	기숙사	5	8	0	4	17
	월세	29	17	17	13	76
	기타	1	0	1	0	2
	유효(전체)	52	33	26	28	139
	결측(무응답)	21				
주거방식	자취	46	33	23	22	124
	하숙(기숙사)	7	7	0	4	18
	쉐어 및 동거	3	2	1	1	7
	기타	0	0	1	1	2
	유효(전체)	56	42	25	28	151
	결측(무응답)	9				

- 다음 <표 26>은 대상집단별 주말 인터넷 접속 시간의 응답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4시간 미만의 경우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4시간 이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4시간 이상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며 20대는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30대는 1시간 이하에서 가장 많은 분포가 나타남. 혼인 상태에 따른 분석결과 기혼의 경우 1시간 미만에서 비혼의 경우 2-4시간 미만의 의 인터넷 접속시간이 높은 분포를 보임.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과 졸업의 경우 4시간 이상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그리고 대학원의 경우 각각 1시간 이하에서 분포가 다른 시간대별 분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역시 학생과 일반사무직의 경우 4시간 이상에서 인터넷 접속 시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판매직 및 서비스직의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에서 생산직의 경우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의 인터넷 접속 시간을 할애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남. 그리고 전문직의 경우 1시간 미만 경우 분포가 다른 시간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수입이 100만원 미만과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충당하는 경우, 그리고 100-200만원의 경우 4시간 이상의 분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200-300만원의 경우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인터넷 접속을 하는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남. 주거형태별로 보면 자가와 월세의 경우 2시간 이상-2시간 미만, 전세의 경우 4시간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26] 대상집단별 주말 인터넷 접속시간 응답결과

구분		주말 인터넷				전체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성별	남	11	17	22	17	67
	여	13	16	25	38	92
	유효(전체)	24	33	47	55	159
	결측(무응답)	1				
연령	10대	0	3	7	15	25
	20대	19	27	35	39	120
	30대	5	3	4	1	13
	40대	0	0	1	0	1
	유효(전체)	24	33	47	55	159
	결측(무응답)	1				
혼인	기혼	3	0	1	2	6
	비혼	21	33	45	53	152
	유효(전체)	24	33	46	55	158
	결측(무응답)	2				
학력	고졸 이하	1	0	3	1	5
	대재	10	22	33	43	108
	대졸 이상	10	10	10	11	41
	대학원	3	1	1	0	5
	유효(전체)	24	33	47	55	159
	결측(무응답)	1				
직업	학생	8	21	32	41	102
	일반사무	5	2	5	6	18
	판매 및 서비스직	0	4	1	0	5
	생산 및 기술직	2	0	3	2	7
	전문직	6	2	2	4	14
	무직(은퇴)	0	1	0	0	1
	공무원 및 군인	2	0	0	1	3
	기타	0	0	2	0	2
	유효(전체)	23	30	45	54	152
	결측(무응답)	8				
월수입	100만원 미만	4	8	16	17	45
	100-200만원	7	7	9	10	33
	200-300만원	8	3	4	2	17
	300-400만원	1	2	3	2	8
	500만원 이상	0	2	0	0	2
	용돈(아르바이트)	4	11	15	24	54
	유효(전체)	24	33	47	55	159
	결측(무응답)	1				
주거형태	자가	3	5	8	5	21
	전세	6	2	6	10	24
	기숙사	3	4	1	8	16
	월세	9	18	28	22	77
	기타	1	0	0	1	2
	유효(전체)	22	29	43	46	140
	결측(무응답)	20				
주거방식	자취	17	26	40	43	126
	하숙(기숙사)	4	4	2	7	17
	쉐어 및 동거	1	3	1	2	7
	기타	0	0	0	2	2
	유효(전체)	22	33	43	54	152
	결측(무응답)	8				

(3)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소비 실태 분석

① 문화예술 참여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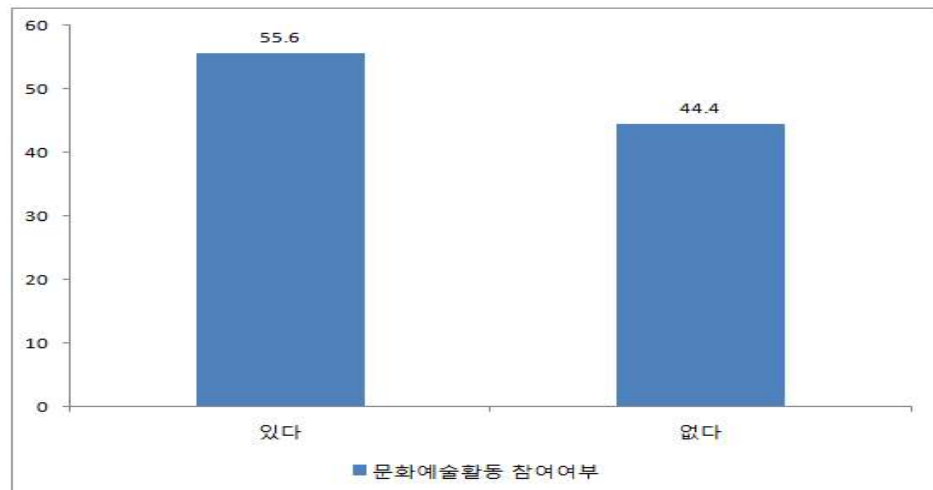
- 다음 <표 27>은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묻은 질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89명으로 55.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71명으로 44.4%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7] 문화예술의 활동참여 여부에 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있다	89	55.6
없다	71	44.4
합계	160	100.0

- 다음 <그림 27>은 문화예술 참여활동 여부의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7] 1인 가구의 문화예술 참여활동 비율(단위: %)



- 다음 <표 28>은 대상집단별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다가 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경우 참여하는 경우가 보다 높게 나타나며, 30대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혼인 상태에 따른 분석결과 기혼과 비혼 모두 참여한다고 보다 높은 분포를 보임.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을 제외한 다른 영역은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가 높은 분포를 보임.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역시 학생의 경우 참여한다고 높은 분포를 보이고 다른 직업별 분포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월 수입별로 살펴보면 수입이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충당하는 경우는 참여한다고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200-300만원의 300-400만원,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참여하지 않는다가 오히려 높은 분포를 나타냄. 주거형태별로 보면 기숙사와 기타를 제외하고 전세, 월세는 참여한다고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8] 집단별 문화예술의 활동 참여여부에 관한 응답결과

구분				전체
		있다	없다	
성별	남	29	39	68
	여	60	32	92
	유효(전체)	89	71	160
연령	10대	18	7	25
	20대	65	56	121
	30대	6	7	13
	40대	0	1	1
	유효(전체)	89	71	160
혼인	기혼	4	2	6
	비혼	85	68	153
	유효(전체)	89	70	159
	결측(무응답)	1		
학력	고졸 이하	2	3	5
	대재	69	40	109
	대졸 이상	16	25	41
	대학원	2	3	5
	유효(전체)	89	71	160
직업	학생	64	39	103
	일반사무	9	9	18
	판매 및 서비스직	2	3	5
	생산 및 기술직	2	5	7
	전문직	5	9	14
	무직(은퇴)	0	1	1
	공무원 및 군인	0	3	3
	기타	2	0	2
	유효(전체)	84	69	153
	결측(무응답)	7		
월수입	100만원 미만	33	13	46
	100-200만원	16	17	33
	200-300만원	6	11	17
	300-400만원	2	6	8
	500만원 이상	0	2	2
	용돈(아르바이트)	32	22	54
	유효(전체)	89	71	160
주거형태	자가	11	10	21
	전세	11	13	24
	기숙사	9	8	17
	월세	46	31	77
	기타	0	2	2
	유효(전체)	77	64	141
	결측(무응답)	19		
주거방식	자취	71	55	126
	하숙(기숙사)	10	8	18
	쉐어 및 동거	3	4	7
	기타	1	1	2
	유효(전체)	85	68	153
	결측(무응답)	7		

② 문화예술 활동 참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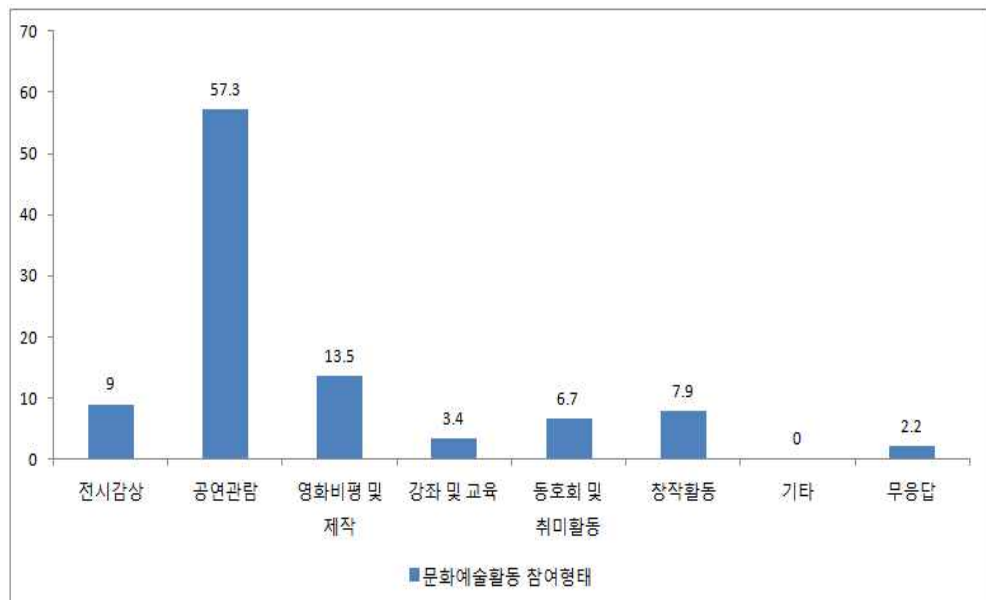
- 다음 <표 29>는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에 참여 형태에 관한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 참여 형태에 따라서 공연관람이 5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영화 비평 및 제작이 13.5%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전시감상이 9.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9] 문화예술활동 참여형태에 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전시감상	8	9.0
공연관람	51	57.3
영화비평 및 제작	12	13.5
강좌 및 교육	3	3.4
동호회 및 취미활동	6	6.7
창작활동	7	7.9
기타	0	0.0
무응답	2	2.2
합계	89	100.0

- 다음 <그림 28>은 문화예술 참여형태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음

[그림 28]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형태 비율(단위: %)



- 다음 <표 30>은 대상집단별 문화예술활동 참여형태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경우 모두 공연관람이 경우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별 구분을 보더라도 공연관람이 높은 분포를 보임. 혼인 상태에 따른 분석결과 비혼의 공연관람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영화비평가 제작부분임.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과 졸업, 그리고 대학원의 경우 각각 공연관람이 높은 분포를 보이며 그 밖에 모든 항목을 논의하여 보더라도 공연관람이 전반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특징이 있음

[표 30] 집단별 문화예술의 활동 참여형태에 관한 응답결과

구분		참여형태						전체
		전시장	공연관람	영화비평 및 제작	강좌 및 교육	동호회 및 취미활동	창작 활동	
성별	남	0	16	5	0	4	3	28
	여	8	35	7	3	2	4	59
	유효(전체)	8	51	12	3	6	7	87
	결측(무응답)	2						
연령	10대	1	10	2	0	1	3	17
	20대	6	38	9	3	4	4	64
	30대	1	3	1	0	1	0	6
	40대	0	0	0	0	0	0	0
	유효(전체)	8	51	12	3	6	7	87
	결측(무응답)	2						
혼인	기혼	0	2	0	2	0	0	4
	비혼	8	49	12	1	6	7	83
	유효(전체)	8	51	12	3	6	7	87
	결측(무응답)	2						
학력	고졸 이하	1	0	0	0	1	0	2
	대재	6	40	9	2	4	6	67
	대졸 이상	1	10	3	0	1	1	16
	대학원	0	1	0	1	0	0	2
	유효(전체)	8	51	12	3	6	7	87
	결측(무응답)	2						
직업	학생	6	37	9	2	3	5	62
	일반사무	2	5	0	0	0	2	9
	판매 및 서비스직	0	2	0	0	0	0	2
	생산 및 기술직	0	2	0	0	0	0	2
	전문직	0	1	1	0	3	0	5
	무직(은퇴)	0	0	0	0	0	0	0
	공무원 및 군인	0	0	0	0	0	0	0
	기타	0	2	0	0	0	0	2
	유효(전체)	8	49	10	2	6	7	87
	결측(무응답)	2						
월수입	100만원 미만	3	19	5	1	2	3	33
	100-200만원	1	8	2	1	1	2	15
	200-300만원	1	2	1	0	2	0	6
	300-400만원	0	2	0	0	0	0	2
	500만원 이상	0	0	0	0	0	0	0
	용돈(아르바이트)	3	20	4	1	1	2	31
	유효(전체)	8	51	12	3	6	7	87
	결측(무응답)	2						
주거형태	자가	3	8	0	0	0	0	11
	전세	2	5	0	0	2	2	11
	기숙사	0	5	0	0	1	1	7
	월세	2	27	10	2	3	2	46
	기타	0	0	0	0	0	0	0
	유효(전체)	7	45	10	2	6	5	75
	결측(무응답)	14						
주거방식	자취	6	39	11	3	6	6	71
	하숙(기숙사)	0	7	0	0	0	1	8
	쉐어 및 동거	0	2	1	0	0	0	3
	기타	0	1	0	0	0	0	1
	유효(전체)	6	49	12	3	6	7	83
	결측(무응답)	6						

③ 문화예술 방문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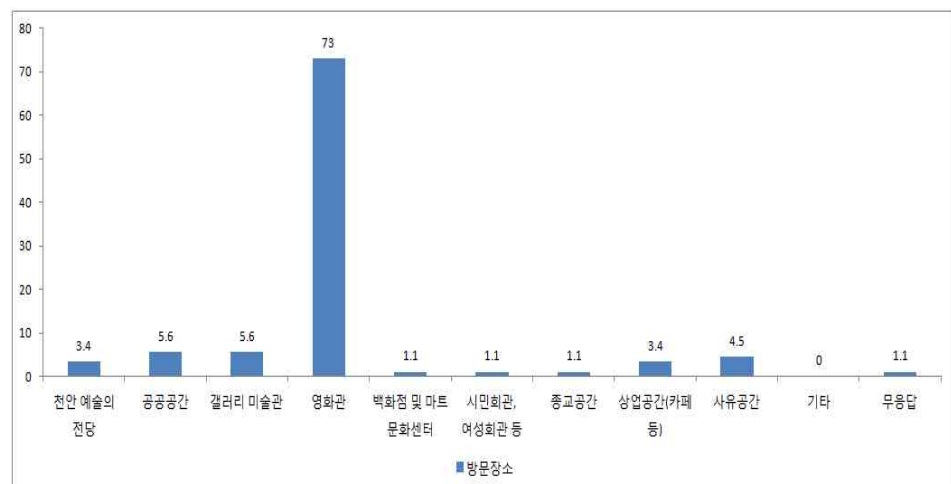
- 다음 <표 31>은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에 주 방문 장소에 관한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 방문장소에 있어서 영화관이 73.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공간(주민자치센터, 학교, 공공문화센터), 갤러리 및 미술관이 각각 5.6%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그다음으로 사유공간(집, 오피스텔)이 4.5%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 문화예술 방문장소에 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천안 예술의 전당	3	3.4
공공공간	5	5.6
갤러리 미술관	5	5.6
영화관	65	73.0
백화점 및 마트 문화센터	1	1.1
시민회관, 여성회관 등	1	1.1
종교공간	1	1.1
상업공간(카페 등)	3	3.4
사유공간	4	4.5
기타	0	0.0
무응답	1	1.1
합계	89	100.0

- 다음 <그림 29>는 문화예술 방문장소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음

[그림 29]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장소별 비율(단위: %)



- 다음 <표 32>는 대상집단별 문화예술장소의 방문에 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영화관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와 30대의 경우 영화관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갤러리 및 미술관, 공공공간 같은 장소가 그 뒤에 순서를 이루고 있음. 혼인상태, 학력별, 직업별, 수입정도, 거주형태나 방식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도 영화관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32] 집단별 문화예술 방문장소에 관한 응답결과

구분		방문장소									전체
		천안 예술의 전당	공공 공간	갤러리 및 미술관	영 화 관	백화점 및 마트 문화 센터	시민 회관, 여성회 관 등	종교 공간	상업 공간	사유 공간	
성별	남	1	1	1	22	0	0	0	2	2	29
	여	2	4	4	43	1	1	1	1	2	59
	유효(전체)	3	5	5	65	1	1	1	3	4	88
	결측(무응답)	1									
연령	10대	0	1	0	15	0	0	0	1	1	18
	20대	3	4	5	46	0	1	0	2	3	64
	30대	0	0	0	4	1	0	1	0	0	6
	40대	0	0	0	0	0	0	0	0	0	0
	유효(전체)	3	5	5	65	1	1	1	3	4	88
	결측(무응답)	1									
혼인	기혼	1	0	1	2	0	0	0	0	0	4
	비혼	2	5	4	63	1	1	1	3	4	84
	유효(전체)	3	5	5	65	1	1	1	3	4	88
	결측(무응답)	1									
학력	고졸 이하	0	0	0	1	0	0	1	0	0	2
	대재	1	5	5	51	0	0	0	3	3	68
	대졸 이상	1	0	0	12	1	1	0	0	1	16
	대학원	1	0	0	1	0	0	0	0	0	2
	유효(전체)	3	5	5	65	1	1	1	3	4	88
	결측(무응답)	1									
직업	학생	0	5	3	51	0	0	0	1	3	63
	일반사무	1	0	0	5	0	1	1	1	0	9
	판매 및 서비스직	0	0	1	1	0	0	0	0	0	2
	생산 및 기술직	0	0	0	2	0	0	0	0	0	2
	전문직	0	0	0	4	0	0	0	1	0	5
	무직(은퇴)	0	0	0	0	0	0	0	0	0	0
	공무원 및 군인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1	0	1	0	0	0	0	2
	유효(전체)	1	5	5	63	1	1	1	3	3	83
월수입	결측(무응답)	6									
	100만원 미만	0	2	4	22	1	0	0	1	2	32
	100~200만원	3	0	0	10	0	1	1	0	1	16
	200~300만원	0	0	0	5	0	0	0	1	0	6
	300~400만원	0	0	0	2	0	0	0	0	0	2
	500만원 이상	0	0	0	0	0	0	0	0	0	0
	용돈(아르바이트)	0	3	1	26	0	0	0	1	1	32
	유효(전체)	3	5	5	65	1	1	1	3	4	88
주거형태	결측(무응답)	1									
	자가	0	0	2	8	1	0	0	0	0	11
	전세	0	0	0	8	0	1	0	1	1	11
	기숙사	0	1	0	7	0	0	0	0	1	9
	월세	3	3	3	33	0	0	1	1	2	46
	기타	0	0	0	0	0	0	0	0	0	0
	유효(전체)	3	4	5	56	1	1	1	2	4	77
주거방식	결측(무응답)	12									
	자취	3	4	4	51	1	1	3	3	0	70
	하숙(기숙사)	0	1	0	8	0	0	0	1	0	10
	쉐어 및 동거	0	0	0	3	0	0	0	0	0	3
	기타	0	0	0	1	0	0	0	0	0	1
	유효(전체)	3	5	4	63	1	1	3	4	0	84
	결측(무응답)	5									

④ 문화예술 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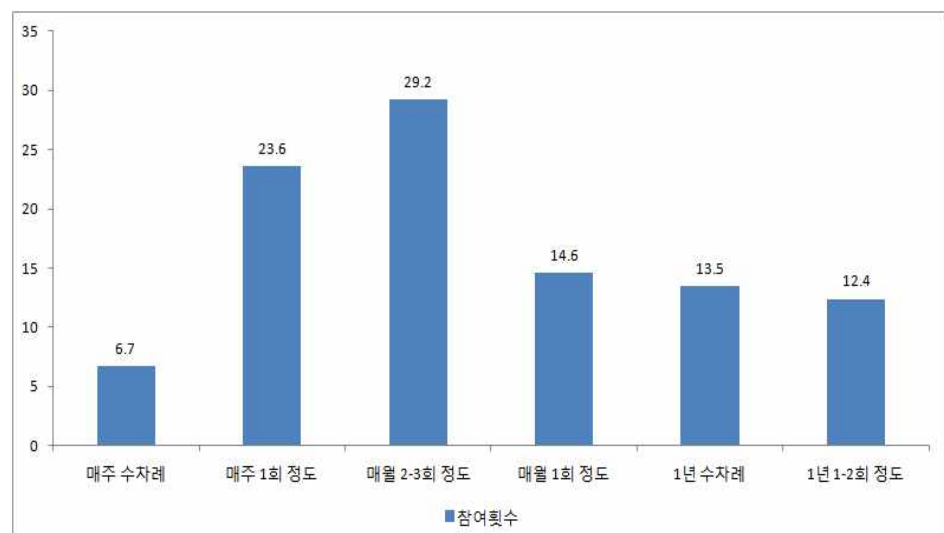
- 다음 <표 33>은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참여 횟수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월 2-3회 정도가 29.2%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매주 1회 정도가 23.6%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매월 1회 정도가 14.6%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3] 문화예술참여 횟수에 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매주 수차례	6	6.7
매주 1회 정도	21	23.6
매월 2-3회 정도	26	29.2
매월 1회 정도	13	14.6
1년 수차례	12	13.5
1년 1-2회 정도	11	12.4
합계	89	100.0

- 다음 <그림 30>은 문화예술 방문장소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0]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횟수 비율(단위: %)



- 다음 <표 34>는 대상집단별 문화예술 참여횟수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매월 2-3회가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뒤에 매주 1회와 1년에 수차례가 그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그리고 여자의 경우 역시 매월 2-3회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매주 1회, 매월1회와 1년 1-2회 정도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혼인 상태에 따른 분석결과 기혼의 경우 매월 2-3회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매주 1회, 매월 1회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기혼의 경우 6명이라는 제한된 응답자 속에서 1년 1-2회 정도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학력별, 수입별, 직업별, 거주형태와 거주방식에 따른 구분도 앞서 논의한 바와 비슷하게 매월 2-3회 정도가 높은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4] 집단별 문화예술 참여 횟수에 관한 응답결과

구분		참여 횟수						전체
		매우 수차례	매주 1회 정도	매월 2-3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1년 수차례	1년 1-2회 정도	
성별	남	3	6	8	4	6	2	29
	여	3	15	18	9	6	9	60
	유효(전체)	6	21	26	13	12	11	89
연령	10대	0	8	5	2	2	1	18
	20대	6	11	20	10	10	8	65
	30대	0	2	1	1	0	2	6
	40대	0	0	0	0	0	0	0
	유효(전체)	6	21	26	13	12	11	89
혼인	기혼	1	0	0	0	1	2	4
	비혼	5	21	26	13	11	9	85
	유효(전체)	6	21	26	13	12	11	89
학력	고졸 이하	0	0	0	0	0	2	2
	대재	4	18	18	10	11	8	69
	대졸 이상	0	3	8	3	1	1	16
	대학원	2	0	0	0	0	0	2
	유효(전체)	6	21	26	13	12	11	89
직업	학생	5	18	17	10	7	7	64
	일반사무	0	1	2	2	3	1	9
	판매 및 서비스직	0	0	1	0	0	1	2
	생산 및 기술직	0	0	1	0	0	1	2
	전문직	0	1	1	0	2	1	5
	무직(은퇴)	0	0	0	0	0	0	0
	공무원 및 군인	0	0	0	0	0	0	0
	기타	0	0	2	0	0	0	2
	유효(전체)	5	20	24	12	12	11	84
결측(무응답)		5						
월수입	100만원 미만	2	8	9	6	3	5	33
	100-200만원	1	1	6	3	3	2	16
	200-300만원	0	2	1	0	1	2	6
	300-400만원	0	1	0	1	0	0	2
	500만원 이상	0	0	0	0	0	0	0
	용돈(아르바이트)	3	9	10	3	5	2	32
	유효(전체)	6	21	26	13	12	11	89
주거형태	자가	0	2	2	4	1	2	11
	전세	0	3	3	2	1	2	11
	기숙사	0	3	2	2	0	2	9
	월세	6	9	15	5	7	4	46
	기타	0	0	0	0	0	0	0
	유효(전체)	6	17	22	13	9	10	77
결측(무응답)		12						
주거방식	자취	6	14	22	10	11	8	71
	하숙(기숙사)	0	6	1	1	0	2	10
	쉐어 및 동거	0	0	1	1	1	0	3
	기타	0	1	0	0	0	0	1
	유효(전체)	6	21	24	12	12	10	85
결측(무응답)		4						

⑤ 주요 참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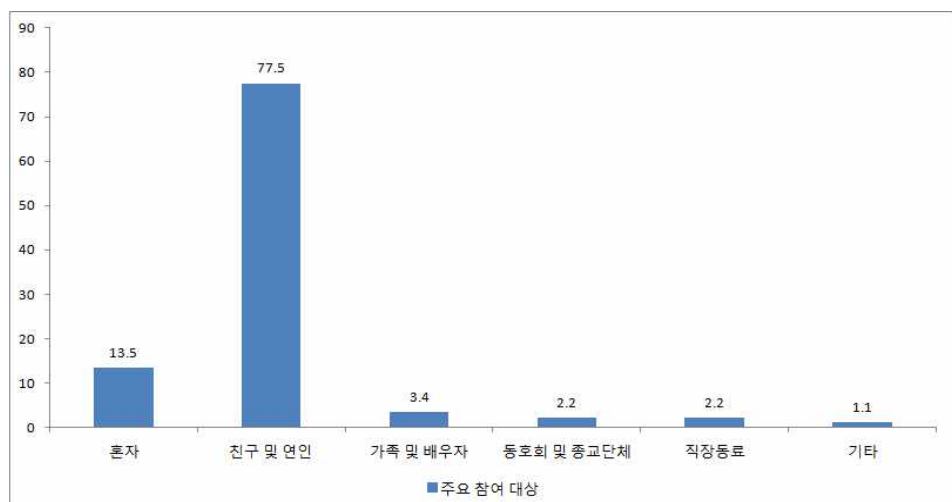
- 다음 <표 35>는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에 있어서 주로 누구와 함께 참여하는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친구 및 연인이 7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로 혼자가는 경우가 13.5%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그 밖에 가족 및 배우자, 동호회 및 종교단체, 직장동료, 기타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표 35] 주요 참여대상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혼자	12	13.5
친구 및 연인	69	77.5
가족 및 배우자	3	3.4
동호회 및 종교단체	2	2.2
직장동료	2	2.2
기타	1	1.1
합계	89	100.0

- 다음 <그림 31>은 문화예술 주요참여 대상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1]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주요 참여대상 비율(단위: %)



- 다음 <표 36>은 대상집단별로 주로 누구와 함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지에 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히 친구 및 연인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 다음으로 혼자가는 경우가 그 뒤로 높은 분포 순서를 보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이렇듯 성별, 연령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학력별, 수입정도, 혼인상태, 거주형태와 거주방식에 다른 대상집단별 분류 역시 비슷한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표 36] 대상집단별 주요 참여대상에 대한 응답결과

구분		참여 대상						전체
		혼자	친구 및 연인	가족 및 배우자	동호회 및 종교단체	직장 동료	기타	
성 별	남	5	22	0	0	2	0	29
	여	7	47	3	2	0	1	60
	유효(전체)	12	69	3	2	2	1	89
연 령	10대	3	14	0	1	0	0	18
	20대	8	51	3	0	2	1	65
	30대	1	4	0	1	0	0	6
	40대	0	0	0	0	0	0	0
	유효(전체)	12	69	3	2	2	1	89
학 력	기혼	0	3	0	0	0	1	4
	비혼	12	66	3	2	2	0	85
	유효(전체)	12	69	3	2	2	1	89
학 력	고졸 이하	0	1	0	1	0	0	2
	대재	9	55	2	1	2	0	69
	대졸 이상	3	12	1	0	0	0	16
	대학원	0	1	0	0	0	1	2
	유효(전체)	12	69	3	2	2	1	89
직 업	학생	8	53	2	1	0	0	64
	일반사무	2	4	1	1	1	0	9
	판매 및 서비스직	0	2	0	0	0	0	2
	생산 및 기술직	0	2	0	0	0	0	2
	전문직	2	3	0	0	0	0	5
	무직(은퇴)	0	0	0	0	0	0	0
	공무원 및 군인	0	0	0	0	0	0	0
	기타	0	1	0	0	1	0	2
	유효(전체)	12	65	3	2	2	0	84
	결측(무응답)	5						
월 수 입	100만원 미만	6	24	1	1	1	0	33
	100~200만원	3	10	0	1	1	1	16
	200~300만원	1	4	1	0	0	0	6
	300~400만원	0	2	0	0	0	0	2
	500만원 이상	0	0	0	0	0	0	0
	용돈(아르바이트)	2	29	1	0	0	0	31
	유효(전체)	12	69	3	2	2	1	89
주 거 형 태	자가	2	7	2	0	0	0	11
	전세	3	8	0	0	0	0	11
	기숙사	1	6	1	1	0	0	9
	월세	0	0	0	0	0	0	0
	기타	4	38	0	1	2	1	46
	유효(전체)	10	59	3	2	2	1	77
	결측(무응답)	12						
주 거 방 식	자취	8	58	0	2	2	1	71
	하숙(기숙사)	1	7	2	0	0	0	10
	쉐어 및 동거	2	1	0	0	0	0	3
	기타	1	0	0	0	0	0	1
	유효(전체)	12	66	2	2	2	1	85
	결측(무응답)	4						

⑥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월별 평균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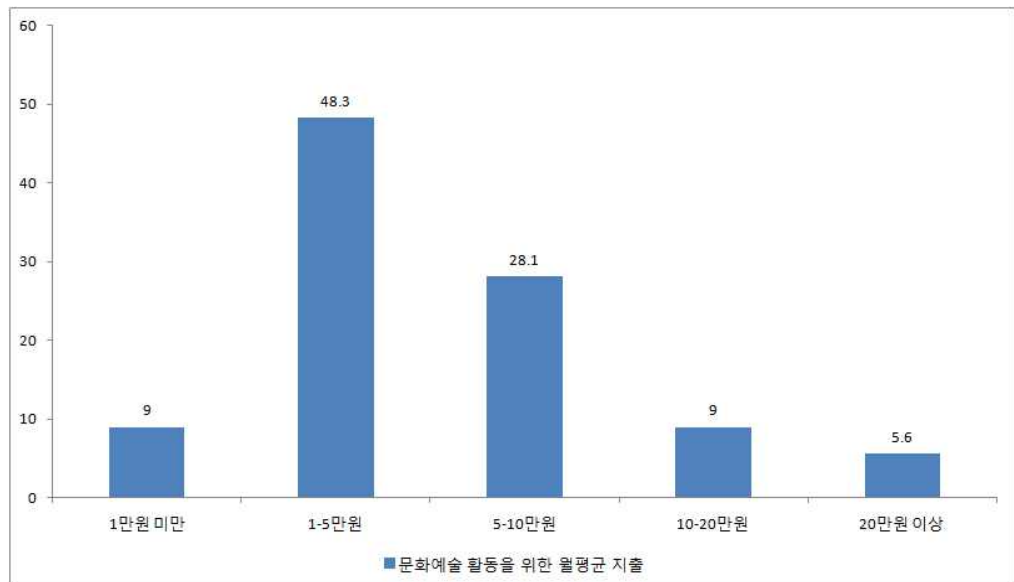
- 다음 <표 37>은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월별 평균지출 관한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월별 1-5만원 미만인 48.3%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5-10만원이 28.1%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1만원 미만과 10-20만원이 각각 9.0%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표 37]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월별 평균 지출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1만원 미만	8	9.0
1-5만원	43	48.3
5-10만원	25	28.1
10-20만원	8	9.0
20만원 이상	5	5.6
합계	89	100.0

- 다음 <그림 32>는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월평균 지출비율에 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32]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월평균 지출 비율(단위: %)



- 다음 <표 38>은 대상집단별 월평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출의 응답 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월 9-10만원의 문화활동 지출에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여자의 경우 1-5만원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그 뒤에 5-10만원이 높은 분포순서를 보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대, 20대 모두 1-5만원이 높은 분포를 보임. 월별 평균지출에 대한 분석 역시 혼인상태, 학력별, 직업별, 수입정도, 거주형태, 거주방식의 집단별 구분 역시도 1-5만원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38]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월별 평균 지출에 대한 응답결과

구분		월별 평균 지출 금액					전체
		1만원 미만	1~5만원	5~10만원	10~20만원	20만원 이상	
성별	남	3	8	9	6	3	29
	여	5	35	16	2	2	60
	유효(전체)	8	43	25	8	5	89
연령	10대	3	10	4	1	0	18
	20대	5	31	21	5	3	65
	30대	0	2	0	2	2	6
	40대	0	0	0	0	0	0
	유효(전체)	8	43	25	8	5	89
혼인	기혼	0	3	1	0	0	4
	비혼	8	40	24	8	5	85
	유효(전체)	8	43	25	8	5	89
학력	고졸 이하	0	1	0	1	0	2
	대재	8	33	21	5	2	69
	대졸 이상	0	9	3	1	3	16
	대학원	0	0	1	1	0	2
	유효(전체)	8	43	25	8	5	89
직업	학생	6	31	19	6	2	64
	일반사무	1	6	1	0	1	9
	판매 및 서비스직	1	0	1	0	0	2
	생산 및 기술직	0	2	0	0	0	2
	전문직	0	2	1	1	1	5
	무직(은퇴)	0	0	0	0	0	0
	공무원 및 군인	0	0	0	0	0	0
	기타	0	0	1	0	1	2
	유효(전체)	8	41	23	7	5	84
월수입	결측(무응답)	5					
	100만원 미만	6	12	9	3	3	33
	100~200만원	0	10	5	0	1	16
	200~300만원	0	3	1	2	0	6
	300~400만원	0	1	0	0	1	2
	500만원 이상	0	0	0	0	0	0
	용돈(아르바이트)	2	17	10	3	0	32
	유효(전체)	8	43	25	8	5	89
주거형태	자가	1	7	2	0	1	11
	전세	0	6	3	2	0	11
	기숙사	3	2	2	1	1	9
	월세	2	24	14	3	3	46
	기타	0	0	0	0	0	0
	무응답	0	0	0	0	0	12
	유효(전체)	6	39	21	6	5	89
주거방식	자취	6	33	23	8	1	71
	하숙(기숙사)	2	4	2	0	2	10
	쉐어 및 동거	0	2	0	0	1	3
	기타	0	1	0	0	0	1
	무응답	0	0	0	0	0	4
	유효(전체)	8	40	25	8	4	89

⑦ 문화예술 활동참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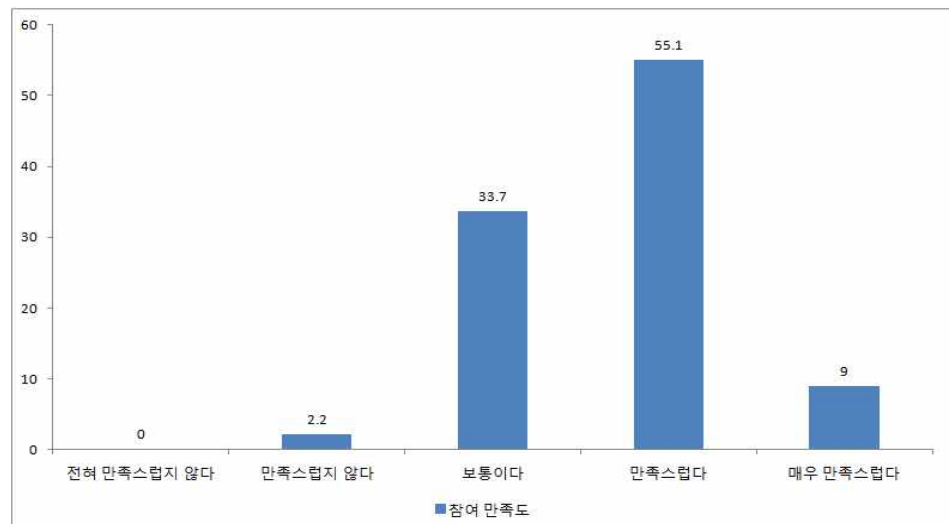
- 다음 <표 39>는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참여의 만족도에 관한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 응답결과를 보면 ‘보통이다’, ‘만족스럽다’가 각각 33.37%, 55.1%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이 3.71로 대체적으로 문화생활을 할시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9] 문화예술 활동참여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평균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0	0.0	3.71
만족스럽지 않다	2	2.2	
보통이다	30	33.7	
만족스럽다	49	55.1	
매우 만족스럽다	8	9.0	
합계	89	100.0	

- 다음 <그림 33>은 문화예술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3]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만족도 비율(단위: %)



- 다음 <표 40>은 대상집단별 문화예술참여의 만족도의 응답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만족스럽다’에 대한 분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족스럽다’에 대한 분포가 가장 높음. 이렇듯 성별, 연령별 특성 외에, 혼인상태, 학력별, 직업별, 수입정도, 거주상태와 방식에 따른 구분도 ‘만족스럽다’에 대한 분포가 모두 높게 나타남

[표 40] 대상집단별 문화예술 활동참여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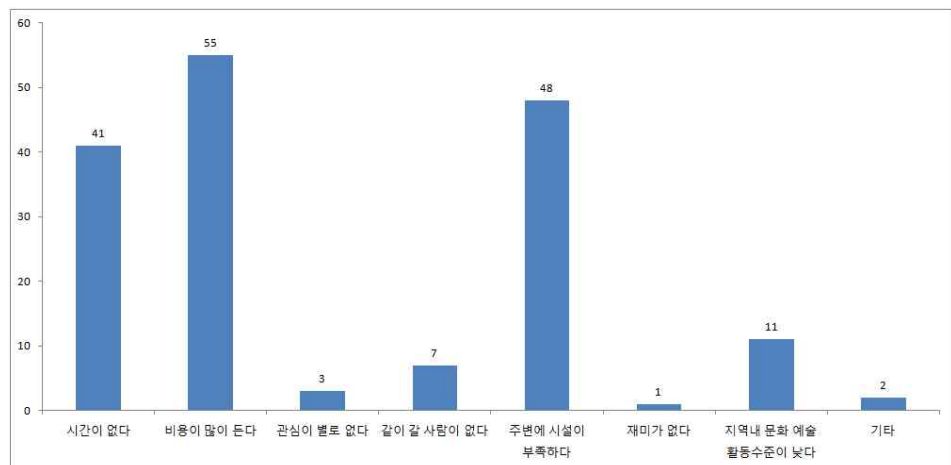
구분		참여활동 만족도					전체
		전혀 만족스러지 않다	만족 스럽지 않다	보통 이다	만족 스럽다	매우 만족 스럽다	
성별	남	0	0	10	14	5	29
	여	0	2	20	35	3	60
	유효(전체)	0	2	30	49	8	89
연령	10대	0	0	4	11	3	18
	20대	0	2	25	33	5	65
	30대	0	0	1	5	0	6
	40대	0	0	0	0	0	0
	유효(전체)	0	2	30	49	8	89
혼인	기혼	0	0	1	3	0	4
	비혼	0	2	29	46	8	85
	유효(전체)	0	2	30	49	8	89
학력	고졸 이하	0	0	0	2	0	2
	대재	0	2	24	35	8	69
	대졸 이상	0	0	5	11	0	16
	대학원	0	0	1	1	0	2
	유효(전체)	0	2	30	49	8	89
직업	학생	0	1	22	34	7	64
	일반사무	0	0	2	6	1	9
	판매 및 서비스직	0	1	0	1	0	2
	생산 및 기술직	0	0	0	2	0	2
	전문직	0	0	2	3	0	5
	무직(은퇴)	0	0	0	0	0	0
	공무원 및 군인	0	0	0	0	0	0
	기타	0	0	2	0	0	2
	유효(전체)	0	2	28	46	8	84
결측(무응답)		5					
월수입	100만원 미만	0	2	13	14	4	33
	100-200만원	0	0	5	10	1	16
	200-300만원	0	0	1	4	1	6
	300-400만원	0	0	1	1	0	2
	500만원 이상	0	0	0	0	0	0
	용돈(아르바이트)	0	0	10	20	2	32
	유효(전체)	0	2	30	49	8	89
주거형태	자가	0	1	3	7	0	11
	전세	0	0	7	2	2	11
	기숙사	0	1	1	7	0	9
	월세	0	0	15	27	4	46
	기타	0	0	0	0	0	0
	유효(전체)	0	2	26	43	6	77
	결측(무응답)	12					
주거방식	자취	0	1	23	39	8	71
	하숙(기숙사)	0	1	3	6	0	10
	쉐어 및 동거	0	0	2	1	0	3
	기타	0	0	0	1	0	1
	유효(전체)	0	2	28	47	8	85
결측(무응답)		4					

(4)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요인과 개선방향

① 문화예술활동 장애요인

-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우선시되는 것은 다음 <그림 34>에서 보듯이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게 하였음. 이 역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복수로 하게끔 하였으며 그에 따라 중복응답에 대한 처리를 하였음.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비용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그리고 주변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세 번째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 또한 제시됨

[그림 34] 문화예술 활동 장애요인(단위: 건수)



- 다음 <표 41>은 문화예술 활동 장애요인의 우선순위를 비교한 것임. 먼저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43명의 응답자가 인식한 비용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때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가 나타난다고 응답한 경우가 26명으로 다음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주변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3번째로 지적됨. 2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주변시설의 부족이 32명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적 측면에 관한 것이 각각 지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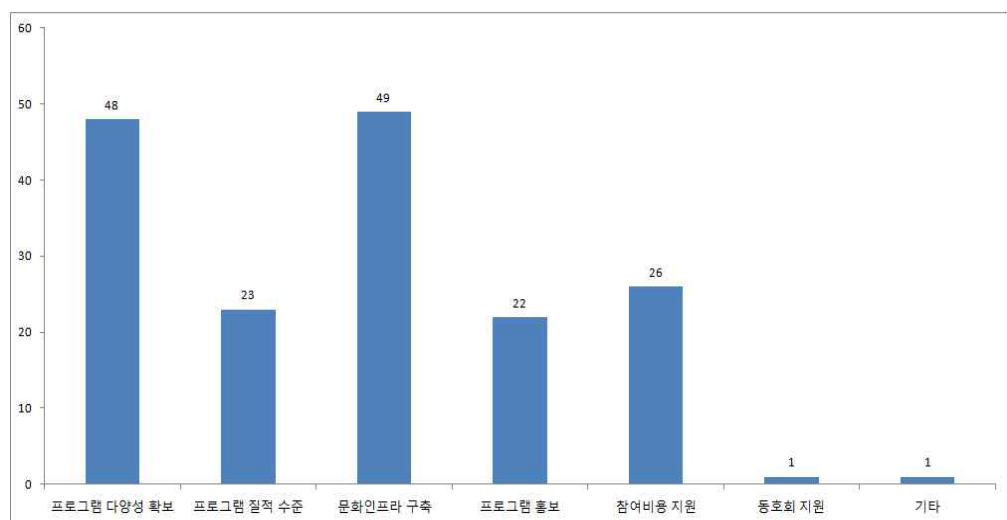
[표 41] 문화예술 활동 장애요인 우선순위 비교(단위: 건수)

항목	1순위	2순위
시간이 없다	26	15
비용이 많이 든다	43	12
관심이 별로 없다	1	2
같이 갈 사람이 없다	1	6
주변에 시설이 부족하다	16	32
재미가 없다	0	1
지역내 문화 예술 활동수준이 낮다	2	9
기타	0	2

② 문화예술 활동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문화예술 활동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우선시되는 것은 다음 <그림 35>에서 보듯이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게 하였음. 이 역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복수로 하게끔 하였으며 그에 따라 중복응답에 대한 처리를 하였음.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문화인프라 구축이 지적됨. 그리고 이와함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음. 그리고 그 밖에 참여를 위한 비용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확보, 프로그램의 홍보에 관한 것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5] 문화예술 활동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단위: 건수)



- 다음 <표 42>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정책적 제언의 우선순위를 비교한 것임. 먼저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36명의 응답자가 인식한 문화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가 문화예술 활동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빈도수가 23명으로 다음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여비용의 지원을 응답한 빈도수가 13명으로 그 뒤의 순서로 나타남. 2순위에 관한 것은 먼저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에 관한 응답이 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이 15명, 프로그램홍보, 참여비용의 지원이 각각 14명으로 그 다음의 순서를 보이고 있음

[표 4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정책적 제언 우선순위 비교(단위: 건수)

항목	1순위	2순위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23	25
프로그램 질적 수준	8	15
문화인프라 구축	36	13
프로그램 홍보	8	14
참여비용 지원	12	14
동호회 지원	1	0
기타	1	0

(5) 문화예술 활동 참여 의사 인식 현황 분석

① 문화예술 참여의사

- 다음 <표 43>은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묻은 질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 49명으로 69.0%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22명으로 31.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43] 문화예술 참여의사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있다	49	69.0
없다	22	31.0
합계	71	100.0

- 다음 <그림 36>은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의사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6]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의사 비율(단위: %)



- 다음 <표 44>는 대상집단별 문화예술 참여의사에 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분포가 다수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 분석을 살펴보더라도 각 연령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다수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 이런 분포는 각 학력별, 직업별, 혼인상태, 수입정도, 거주형태와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44] 대상집단별 문화예술 참여의사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

구분		참여의사		전체
		있다	없다	
성 별	남	21	18	39
	여	25	7	32
	유효(전체)	46	25	71
연 령	10대	2	5	7
	20대	39	17	56
	30대	4	3	7
	40대	1	0	1
	유효(전체)	46	25	71
혼 인	기혼	2	0	2
	비혼	44	24	68
	무응답	0	0	1
	유효(전체)	46	24	71
학 력	고졸 이하	1	2	3
	대재	27	13	40
	대졸 이상	15	10	25
	대학원	3	0	3
	유효(전체)	46	25	71
직 업	학생	28	11	39
	일반사무	7	2	9
	판매 및 서비스직	0	3	3
	생산 및 기술직	2	3	5
	전문직	5	4	9
	무직(은퇴)	1	0	1
	공무원 및 군인	1	2	3
	기타	0	0	0
	무응답	0	0	2
	유효(전체)	44	25	71
월 수 입	100만원 미만	9	4	13
	100-200만원	11	6	17
	200-300만원	8	3	11
	300-400만원	3	3	6
	500만원 이상	0	2	2
	용돈(아르바이트)	15	7	22
	유효(전체)	46	25	71
주 거 형 태	자가	7	3	10
	전세	10	3	13
	기숙사	3	5	8
	월세	21	10	31
	기타	2	0	2
	유효(전체)	43	21	64
	결측(무응답)	7		
주 거 방 식	자취	41	14	55
	하숙(기숙사)	3	5	8
	쉐어 및 동거	1	3	4
	기타	0	1	1
	유효(전체)	45	23	68
	결측(무응답)	3		

② 참여하고 싶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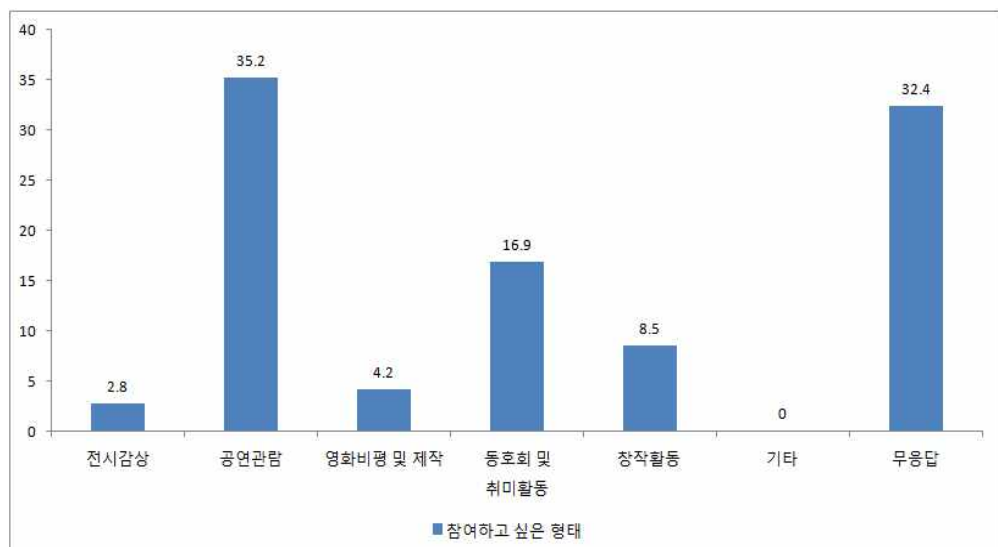
- 다음 <표 45>는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에 참여하고 싶은 형태에 관한 질문의 빈도분석 결과임. 참여하고 싶은 형태의 경우 공연관람이 25명으로 35.2%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동호회 및 취미활동이 12명으로 16.9%의 비율을 그 뒤로 영화비평 및 제작이 4.2%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45] 참여하고 싶은 형태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전시감상	2	2.8
공연관람	25	35.2
영화비평 및 제작	3	4.2
동호회 및 취미활동	12	16.9
창작활동	6	8.5
기타	0	0.0
무응답	23	32.4
전체	71	100.0

- 다음 <그림 37>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형태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7]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형태 비율(단위: %)



- 다음 <표 46>은 대상집단별 참여하고 싶은 행태에 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연관람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더라도 각 연령별로 공연관람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냄. 이러한 특징은 각 학력별, 혼인상태, 직업별, 수입정도, 거주방식과 거주형태에 따라서도 역시 공연관람이 높게 나타나 비슷한 분포의 형태를 가짐

[표 46] 대상집단별 참여하고 싶은 형태에 대한 응답결과

구분		참여하고 싶은 형태					전체
		전시 감상	공연 관람	영화비평 및 제작	동호회 및 취미활동	창작 활동	
성별	남	1	11	1	6	3	22
	여	1	14	2	6	3	26
	유효(전체)	2	25	3	12	6	48
	결측(무응답)	23					
연령	10대	0	2	1	0	0	3
	20대	2	20	2	11	5	40
	30대	0	2	0	1	1	4
	40대	0	1	0	0	0	1
	유효(전체)	2	25	3	12	6	48
	결측(무응답)	23					
혼인	기혼	0	0	0	1	1	2
	비혼	2	25	3	11	5	46
	유효(전체)	2	25	3	12	6	48
	결측(무응답)	23					
학력	고졸 이하	0	0	0	1	0	1
	대재	2	15	3	4	4	28
	대졸 이상	0	7	0	7	2	16
	대학원	0	3	0	0	0	3
	유효(전체)	2	25	3	12	6	48
	결측(무응답)	23					
직업	학생	2	16	3	4	4	29
	일반사무	0	2	0	4	1	7
	판매 및 서비스직	0	0	0	1	1	2
	생산 및 기술직	0	0	0	0	0	0
	전문직	0	4	0	2	0	6
	무직(은퇴)	0	1	0	0	0	1
	공무원 및 군인	0	1	0	0	0	1
	기타	0	0	0	0	0	0
	유효(전체)	2	24	3	11	6	46
월수입	100만원 미만	2	6	0	1	1	10
	100~200만원	0	4	0	5	2	11
	200~300만원	0	3	0	4	1	8
	300~400만원	0	4	0	0	0	4
	500만원 이상	0	0	0	0	0	0
	용돈(아르바이트)	0	8	3	2	2	15
	유효(전체)	2	25	3	12	6	48
	결측(무응답)	23					
주거형태	자가	1	3	1	0	2	7
	전세	0	5	1	4	1	11
	기숙사	0	3	0	0	0	3
	월세	1	11	1	8	1	22
	기타	0	1	0	0	1	2
	유효(전체)	2	23	3	12	5	45
	결측(무응답)	26					
주거방식	자취	2	21	3	12	5	43
	하숙(기숙사)	0	3	0	0	0	3
	쉐어 및 동거	0	1	0	0	0	1
	기타	0	0	0	0	0	0
	유효(전체)	2	25	3	12	5	47
	결측(무응답)	24					

③ 방문예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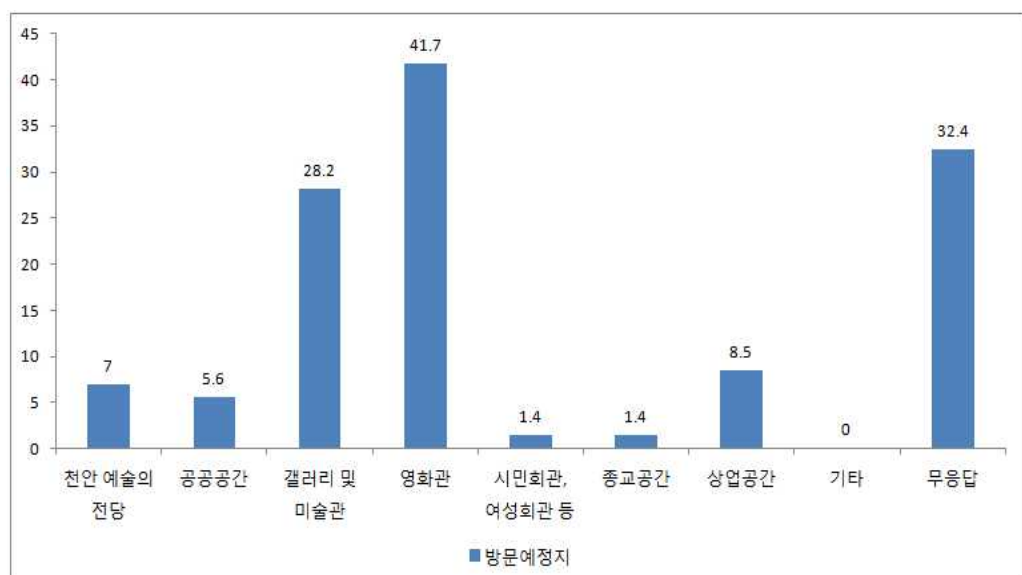
- 다음 <표 47>은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에 방문하고 싶은 장소 관한 질문의 빈도분석 결과임. 방문하고 싶은 예정지의 경우 영화관이 20명이 응답하여 41.7%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갤러리 및 미술관의 경우 28.2%로 그다음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상업공간(카페 등)이 그 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7] 방문예정지에 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천안 예술의 전당	5	7.0
공공공간	4	5.6
갤러리 및 미술관	11	28.2
영화관	20	41.7
시민회관, 여성회관 등	1	1.4
종교공간	1	1.4
상업공간	6	8.5
기타	0	0.0
무응답	23	32.4
합계	48	100.0

- 다음 <그림 38>은 문화예술활동 방문예정지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8]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방문예정지 비율(단위: %)



- 다음 <표 48>은 대상집단별 방문예정지에 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영화관에 방문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성향은 연령별, 직업별, 혼인상태, 수입정도, 거주형태 및 방식에서도 역시 영화관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48] 대상집단별 방문예정지에 관한 응답결과

구분		방문 예정지							전체
		천안 예술의 전당	공공 공간	갤러리 및 미술관	영화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등	종교 공간	상업 공간	
성별	남	2	2	2	12	0	1	3	22
	여	3	2	9	8	1	0	3	26
	유효(전체)	5	4	11	20	1	1	6	48
	결측(무응답)	23							
연령	10대	0	0	0	2	0	0	1	3
	20대	4	4	10	16	1	0	5	40
	30대	1	0	1	1	0	1	0	4
	40대	0	0	0	1	0	0	0	1
	유효(전체)	5	4	11	20	1	1	6	48
	결측(무응답)	23							
혼인	기혼	0	1	0	1	0	0	0	2
	비혼	5	3	11	19	1	1	6	46
	유효(전체)	5	4	11	20	1	1	6	48
	결측(무응답)	23							
학력	고졸 이하	0	0	0	1	0	0	0	1
	대재	3	2	9	11	0	0	3	28
	대졸 이상	2	2	1	6	1	1	3	16
	대학원	0	0	1	2	0	0	0	3
	유효(전체)	5	4	11	20	1	1	6	48
	결측(무응답)	23							
직업	학생	3	2	9	12	0	0	3	29
	일반사무	1	1	1	3	1	0	0	7
	판매 및 서비스직	0	0	0	2	0	0	0	2
	생산 및 기술직	0	0	0	0	0	0	0	0
	전문직	0	1	1	2	0	0	2	6
	무직(은퇴)	0	0	0	0	0	0	1	1
	공무원 및 군인	0	0	0	1	0	0	0	1
	기타	0	0	0	0	0	0	0	0
	유효(전체)	4	4	11	20	1	0	6	46
	결측(무응답)	25							
월수입	100만원 미만	0	0	3	5	0	0	2	10
	100~200만원	0	2	2	5	1	0	1	11
	200~300만원	2	1	0	4	0	0	1	8
	300~400만원	0	1	1	1	0	1	0	4
	500만원 이상	0	0	0	0	0	0	0	0
	용돈(아르바이트)	3	0	5	5	0	0	2	15
	유효(전체)	5	4	11	20	1	1	6	48
	결측(무응답)	23							
주거형태	자가	1	0	3	1	0	1	1	7
	전세	1	2	2	4	0	0	2	11
	기숙사	0	0	1	2	0	0	0	3
	월세	3	2	3	10	1	0	3	22
	기타	0	0	1	1	0	0	0	2
	유효(전체)	5	4	10	18	1	1	6	45
	결측(무응답)	26							
주거방식	자취	5	4	10	16	1	1	6	43
	하숙(기숙사)	0	0	1	2	0	0	0	3
	쉐어 및 동거	0	0	0	1	0	0	0	1
	기타	0	0	0	0	0	0	0	0
	유효(전체)	5	4	11	19	1	1	6	47
	결측(무응답)	24							

④ 문화예술지출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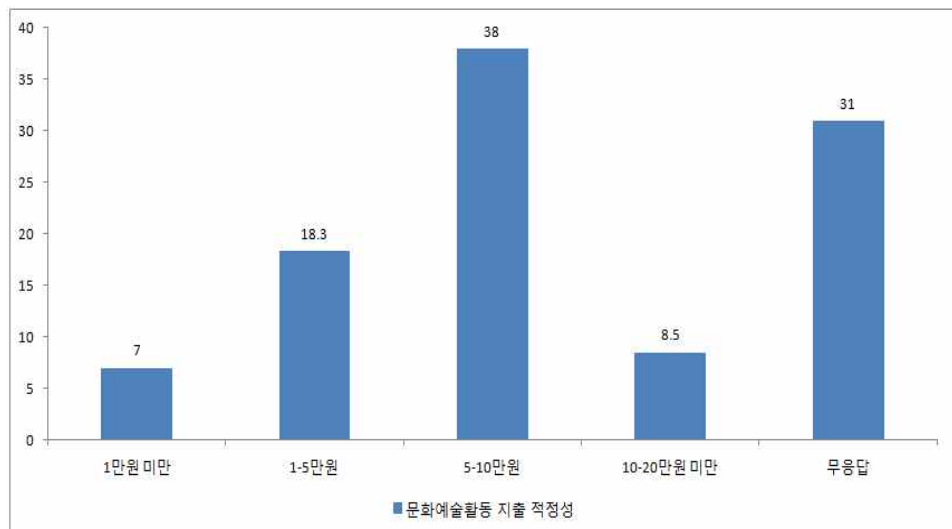
- 다음 <표 49>는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적절한 지출에 관한 질문의 빈도분석 결과임. 먼저 5-10만원이 27명이 응답하여 38.0%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5만원이 18.3%의 비율을 그리고 10-20만원이 8.5%의 비율을 보이며 그 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9] 문화예술지출 적정성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1만원 미만	3	7.0
1-5만원	13	18.3
5-10만원	27	38.0
10-20만원 미만	6	8.5
무응답	22	31.0
합계	71	100.0

- 다음 <그림 39>는 문화예술활동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9]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지출의 적정성 비율(단위: %)



- 다음 <표 50>은 대상집단별 문화예술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5-10만원의 월별지출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남자의 경우 1시간 미만의 경우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경우가 각각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2시간 미만-4시간 미만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며 20대와 30대는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냄. 혼인 상태에 따른 분석결과 기혼의 경우 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비혼의 경우 2-4시간 미만의 의 인터넷 접속시간이 높은 분포를 보임.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과 졸업, 그리고 대학원의 경우 각각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분포가 다른 시간대별 분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역시 학생의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인터넷 접속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일반사무직의 경우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판매 및 서비스, 그리고 생산직의 경우 1시간 미만의 인터넷 접속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전문직의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의 경우 분포가 다른 시간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수입이 100만원 미만과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충당하는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에 가장 높은 분포로 인터넷 접속시간을 할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0-200만원, 200-300만원의 경우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으로 인터넷 접속을 하는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남. 주거형태별로 보면 자가, 전세, 기숙사의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으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의 경우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으로 인터넷 접속이 높게 나타남

[표 50] 대상집단별 문화예술지출 적정성에 대한 응답결과

구분		문화예술 지출 적정성				전체
		1만원 미만	1-5만원	5-10만원	10-20만원	
성별	남	1	6	14	2	23
	여	2	7	13	4	26
	유효(전체)	3	13	27	6	49
	결측(무응답)	22				
연령	10대	0	2	0	1	3
	20대	1	10	25	4	40
	30대	2	1	2	0	5
	40대	0	0	0	1	1
	유효(전체)	3	13	27	6	49
	결측(무응답)	22				
혼인	기혼	0	0	2	0	2
	비혼	3	13	25	6	47
	유효(전체)	3	13	27	6	49
	결측(무응답)	22				
학력	고졸 이하	0	0	1	0	1
	대재	1	9	15	3	28
	대졸 이상	2	3	10	2	17
	대학원	0	1	1	1	3
	유효(전체)	3	13	27	6	49
	결측(무응답)	22				
직업	학생	1	10	15	3	29
	일반사무	1	2	3	1	7
	판매 및 서비스직	0	0	2	0	2
	생산 및 기술직	0	0	0	0	0
	전문직	1	1	3	2	7
	무직(은퇴)	0	0	1	0	1
	공무원 및 군인	0	0	1	0	1
	기타	0	0	0	0	0
	유효(전체)	3	13	25	6	47
월수입	100만원 미만	0	2	7	1	10
	100-200만원	1	1	9	1	12
	200-300만원	1	2	4	1	8
	300-400만원	0	0	3	1	4
	500만원 이상	0	0	0	0	0
	용돈(아르바이트)	1	8	4	2	15
	유효(전체)	3	13	27	6	49
	결측(무응답)	22				
주거형태	자가	0	1	4	2	7
	전세	1	3	7	0	11
	기숙사	1	1	1	0	3
	월세	1	8	10	4	23
	기타	0	0	2	0	2
	유효(전체)	3	13	24	6	46
	결측(무응답)	25				
주거방식	자취	2	11	25	6	44
	하숙(기숙사)	1	1	1	0	3
	쉐어 및 동거	0	1	0	0	1
	기타	0	0	0	0	0
	유효(전체)	3	13	26	6	48
	결측(무응답)	23				

(6)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사회에 관한 현황분석

① 정책적 지원과 환경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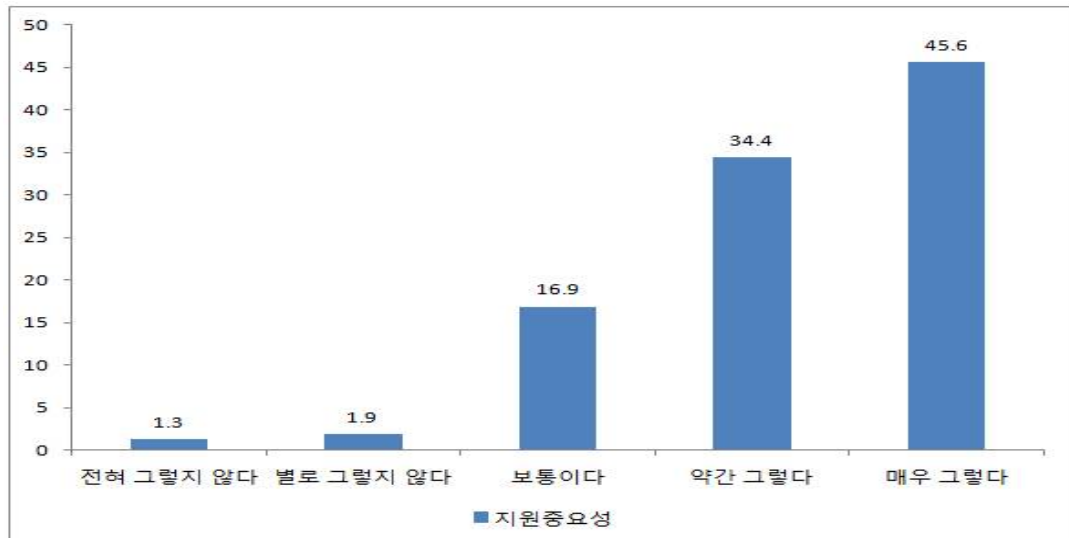
- 다음 <표 51>은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정책적 지원과 환경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임. 먼저 정책지원에 있어서 응답결과를 보면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가 각각 45.6%, 34.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4.21로 나타나 지원의 중요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리고 적극적 지원의 요구 역시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28.1%, 49.4%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이 4.25로 매우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을 보임.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그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과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가 각각 54.7%, 23.9%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환경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임

[표 5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과 환경인식 응답결과(단위: 건수, %)

구분		빈도	%	평균
지원 중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2	1.3	4.21
	별로 그렇지 않다	3	1.9	
	보통이다	27	16.9	
	약간 그렇다	55	34.4	
	매우 그렇다	73	45.6	
	합계	160	100.0	
적극적 지원요구	전혀 그렇지 않다	3	1.9	4.25
	별로 그렇지 않다	0	0.0	
	보통이다	33	20.6	
	약간 그렇다	45	28.1	
	매우 그렇다	79	49.4	
	합계	160	100.0	
좋은환경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10	6.3	2.79
	별로 그렇지 않다	38	23.8	
	보통이다	87	54.4	
	약간 그렇다	22	13.8	
	매우 그렇다	2	1.3	
	무응답	1	0.6	
	합계	1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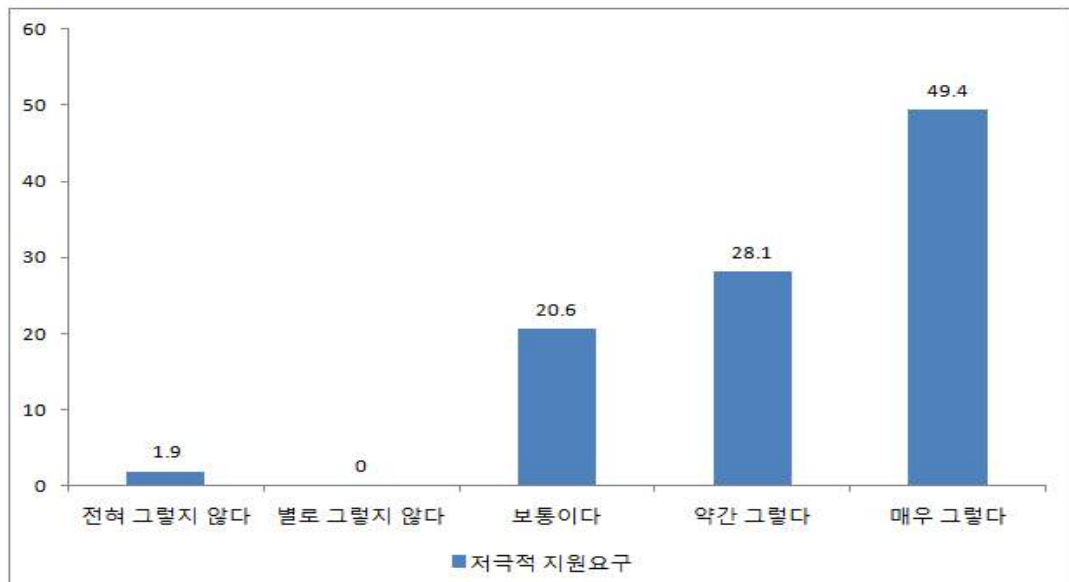
- 다음 <그림 40>은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0] 1인 가구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비율(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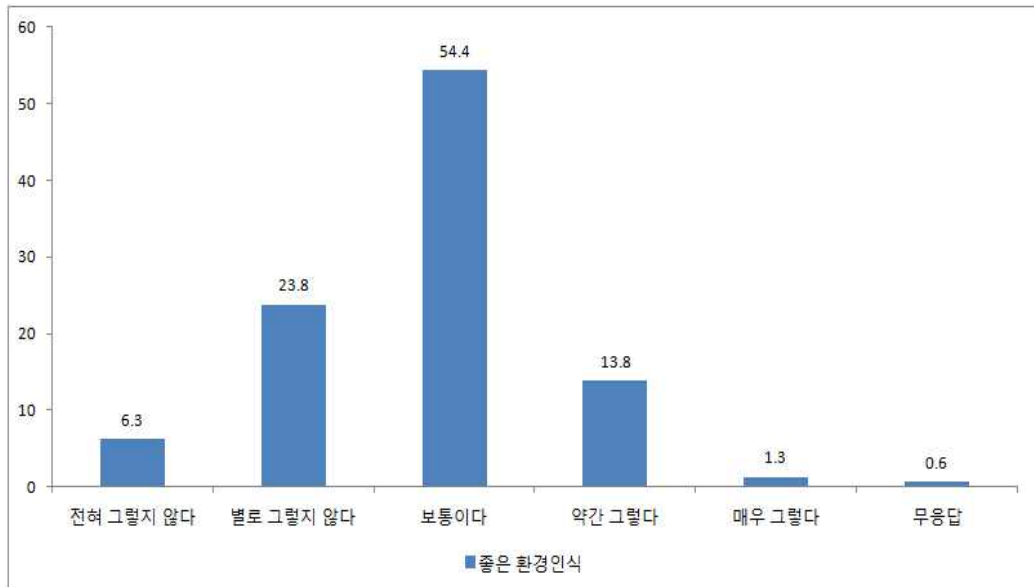
- 다음 <그림 41>은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 지원요구 인식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1]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 지원요구 인식에 관한 비율(단위: %)



- 다음 <그림 42>는 문화예술활동의 환경 인식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2] 1인 가구 문화예술활동의 환경 인식에 관한 비율(단위: %)



- 다음 <표 52>는 대상집단별 정책지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모두 그렇다’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그렇다’에 응답한 분포가 높게 나타남. 이 역시 성별, 연령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학력별, 혼인상태별, 수입정도, 직업별, 거주형태 및 방식에 따라 다른 집단별 구분을 통한 결과 역시도 ‘모두 그렇다’에 응답한 분포가 높게 나타남

[표 52] 대상집단별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구분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					전체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0	3	13	25	27	68	4.118
	여	2	0	14	30	46	92	4.283
	유효(전체)	2	3	27	55	73	160	
연령	10대	0	0	5	7	13	25	4.320
	20대	2	2	21	42	54	121	4.190
	30대	0	1	1	5	6	13	4.231
	40대	0	0	0	1	0	1	4.000
	유효(전체)	2	3	27	55	73	160	
혼인	기혼	0	0	2	2	3	7	4.000
	비혼	2	3	24	53	71	153	4.229
	유효(전체)	2	3	26	55	74	160	
학력	고졸 이하	0	0	3	1	1	5	3.600
	대재	2	1	16	45	45	109	4.193
	대졸 이상	0	2	6	9	24	41	4.341
	대학원	0	0	2	0	3	5	4.200
	유효(전체)	2	3	27	55	73	160	
직업	학생	2	1	16	44	40	103	4.155
	일반사무	0	1	1	3	13	18	4.556
	판매 및 서비스직	0	0	0	2	3	5	4.600
	생산 및 기술직	0	0	5	1	1	7	3.429
	전문직	0	1	2	4	7	14	4.214
	무직(은퇴)	0	0	1	0	0	1	3.000
	공무원 및 군인	0	0	2	0	1	3	3.667
	기타	0	0	0	0	2	2	5.000
	유효(전체)	2	3	27	54	67	153	
월수입	무응답	7						
	100만원 미만	2	1	7	13	23	46	4.174
	100~200만원	0	0	4	7	22	33	4.545
	200~300만원	0	1	6	4	6	17	3.882
	300~400만원	0	1	2	4	1	8	3.625
	500만원 이상	0	0	0	1	1	2	4.500
	용돈(아르바이트)	0	0	8	26	20	54	4.222
	유효(전체)	2	3	27	55	73	160	
주거형태	자가	0	0	2	6	13	21	4.524
	전세	0	0	3	10	11	24	4.333
	기숙사	1	1	3	7	5	17	3.824
	월세	1	1	13	25	37	77	4.247
	기타	0	0	1	0	1	2	4.000
	유효(전체)	2	2	22	48	67	141	
	무응답	19						
주거방식	자취	0	2	20	45	59	126	4.278
	하숙(기숙사)	2	1	3	6	6	18	3.722
	쉐어 및 동거	0	0	0	2	5	7	4.714
	기타	0	0	1	1	0	2	3.500
	유효(전체)	2	3	24	54	70	154	
	무응답	6						

- 다음 <표 53>은 대상집단별 정책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모두 그렇다’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그렇다’에 응답한 분포가 높게 나타남. 이 역시 성별, 연령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학력별, 혼인상태별, 수입정도, 직업별, 거주형태 및 방식에 따라 다른 집단별 구분을 통한 결과 역시도 ‘모두 그렇다’에 응답한 분포가 높게 나타남

[표 53] 대상집단별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구분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					전체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0	1	14	18	35	68	4,279
	여	0	2	19	27	44	92	4,228
	유효(전체)	0	3	33	45	79	160	
연령	10대	0	0	5	7	13	25	4,320
	20대	0	3	27	32	59	121	4,215
	30대	0	0	1	5	7	13	4,462
	40대	0	0	0	1	0	1	4,000
	유효(전체)	0	3	33	45	79	160	
혼인	기혼	0	0	2	2	2	6	4,000
	비혼	0	3	30	43	77	153	4,268
	유효(전체)	0	3	32	45	79	159	
	결측(무응답)	1						
학력	고졸 이하	0	0	3	1	1	5	.8944
	대재	0	3	20	35	51	109	.8458
	대졸 이상	0	0	8	9	24	41	.8024
	대학원	0	0	2	0	3	5	1,0954
	유효(전체)	0	3	33	45	79	160	
직업	학생	0	3	20	35	45	103	4,184
	일반사무	0	0	0	5	13	18	4,722
	판매 및 서비스직	0	0	1	1	3	5	4,400
	생산 및 기술직	0	0	5	1	1	7	3,429
	전문직	0	0	4	2	8	14	4,286
	무직(은퇴)	0	0	1	0	0	1	3,000
	공무원 및 군인	0	0	2	0	1	3	3,667
	기타	0	0	0	0	2	2	5,000
	유효(전체)	0	3	33	44	73	153	
	결측(무응답)	7						
월수입	100만원 미만	0	3	10	11	22	46	4,130
	100~200만원	0	0	7	8	18	33	4,333
	200~300만원	0	0	4	2	11	17	4,412
	300~400만원	0	0	2	3	3	8	4,125
	500만원 이상	0	0	0	1	1	2	4,500
	용돈(아르바이트)	0	0	10	20	24	54	4,259
	유효(전체)	0	3	33	45	79	160	
주거형태	자가	0	0	2	6	13	21	4,524
	전세	0	0	4	8	12	24	4,333
	기숙사	0	1	2	6	8	17	4,235
	월세	0	1	18	21	37	77	4,221
	기타	0	0	1	0	1	2	4,000
	유효(전체)	0	2	27	41	71	141	
	결측(무응답)	19						
주거방식	자취	0	1	27	37	61	126	4,254
	하숙(기숙사)	0	2	1	5	10	18	4,278
	쉐어 및 동거	0	0	0	2	5	7	4,714
	기타	0	0	1	1	0	2	3,500
	유효(전체)	0	3	29	45	76	153	
	결측(무응답)	7						

- 다음 <표 54>는 대상집단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환경인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보통이다’에 응답한 분포가 높게 나타남. 이 역시 성별, 연령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학력별, 혼인상태별, 수입정도, 직업별, 거주형태 및 방식에 따라 다른 집단별 구분을 통한 결과 역시도 ‘보통이다’에 응답한 분포가 높게 나타남

[표 54] 대상집단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환경인식에 대한 응답결과

구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환경인식					전체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5	18	34	10	0	67	2,731
	여	5	20	53	12	2	92	2,848
	유효(전체)	10	38	87	22	2	159	
	결측(무응답)	1						
연령	10대	0	3	17	4	1	25	3,120
	20대	9	29	64	18	1	121	2,777
	30대	1	6	6	0	0	13	2,385
	40대	0	0	0	0	0	0	-
	유효(전체)	10	38	87	22	2	159	
	결측(무응답)	1						
혼인	기혼	1	1	4	0	0	6	2,500
	비혼	9	36	83	22	2	152	2,816
	유효(전체)	10	37	87	22	2	158	
	결측(무응답)	2						
학력	고졸 이하	0	1	4	0	0	5	2,800
	대재	4	24	60	19	2	109	2,917
	대졸 이상	4	13	20	3	0	40	2,550
	대학원	2	0	3	0	0	5	2,200
	유효(전체)	10	38	87	22	2	159	
	결측(무응답)	1						
직업	학생	2	23	59	17	2	103	2,942
	일반사무	1	7	8	1	0	17	2,529
	판매 및 서비스직	1	2	2	0	0	5	2,200
	생산 및 기술직	0	2	4	1	0	7	2,857
	전문직	3	2	8	1	0	14	2,500
	무직(은퇴)	0	0	1	0	0	1	3,000
	공무원 및 군인	1	0	2	0	0	3	2,333
	기타	0	0	1	1	0	2	3,500
	유효(전체)	8	36	85	21	2	152	
	결측(무응답)	8						
월수입	100만원 미만	2	16	23	4	1	46	2,696
	100~200만원	3	9	15	5	1	33	2,758
	200~300만원	3	2	10	2	0	17	2,647
	300~400만원	0	4	3	0	0	7	2,429
	500만원 이상	0	0	2	0	0	2	3,000
	용돈(아르바이트)	2	7	34	11	0	54	3,000
	유효(전체)	10	38	87	22	2	159	
	결측(무응답)	1						
주거형태	자가	1	5	10	4	1	21	2,952
	전세	2	8	13	1	0	24	2,542
	기숙사	0	6	11	0	0	17	2,647
	월세	6	17	39	13	1	76	2,816
	기타	0	1	1	0	0	2	2,500
	유효(전체)	9	37	74	18	2	140	
	결측(무응답)	20						
주거방식	자취	8	28	68	19	2	125	2,832
	하숙(기숙사)	0	8	10	0	0	18	2,556
	쉐어 및 동거	2	1	3	1	0	7	2,429
	기타	0	0	1	1	0	2	3,500
	유효(전체)	10	37	82	21	2	152	
	결측(무응답)	8						

②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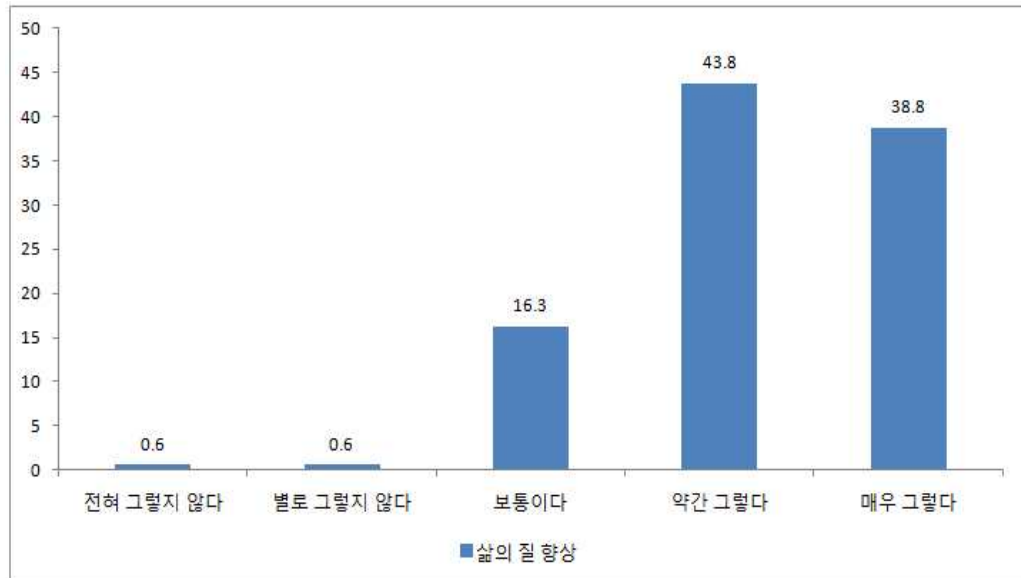
- 다음 <표 55>는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임. 먼저 삶의 질 향상 있어서 응답결과를 보면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43.8%, 38.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4.19로 나타나 문화예술활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인식되고 있음.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에 도움 역시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40.6%, 41.3%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이 4.21로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남을 알 수 있음. 지역사회의 애착심 증가에 있어서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32.5%, 33.8%의 비중을 각각 보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3.95로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요구됨을 보임. 천안시의 이미지 향상에 있어서는 역시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35.6%, 43.1%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이 4.18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응답결과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35.0%, 34.4%의 비율을 각각 보이고 있으며 평균이 3.96으로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55]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평균
삶의질 향상	전혀 그렇지 않다	1	.6	4.19
	별로 그렇지 않다	1	.6	
	보통이다	26	16.3	
	약간 그렇다	70	43.8	
	매우 그렇다	62	38.8	
	합계	160	100.0	
아동 및 청소년 성장에 도움	전혀 그렇지 않다	1	.6	4.21
	별로 그렇지 않다	2	1.3	
	보통이다	26	16.3	
	약간 그렇다	65	40.6	
	매우 그렇다	66	41.3	
	합계	160	100.0	
지역사회에 대한 액착심 증가	전혀 그렇지 않다	1	.6	3.95
	별로 그렇지 않다	5	3.1	
	보통이다	48	30.0	
	약간 그렇다	52	32.5	
	매우 그렇다	54	33.8	
	합계	160	100.0	
천안시의 이미지향상	전혀 그렇지 않다	1	.6	4.18
	별로 그렇지 않다	3	1.9	
	보통이다	30	18.8	
	약간 그렇다	57	35.6	
	매우 그렇다	69	43.1	
	합계	160	100.0	
지역경제 활성화	전혀 그렇지 않다	2	1.3	3.96
	별로 그렇지 않다	9	5.6	
	보통이다	38	23.8	
	약간 그렇다	56	35.0	
	매우 그렇다	55	34.4	
	합계	1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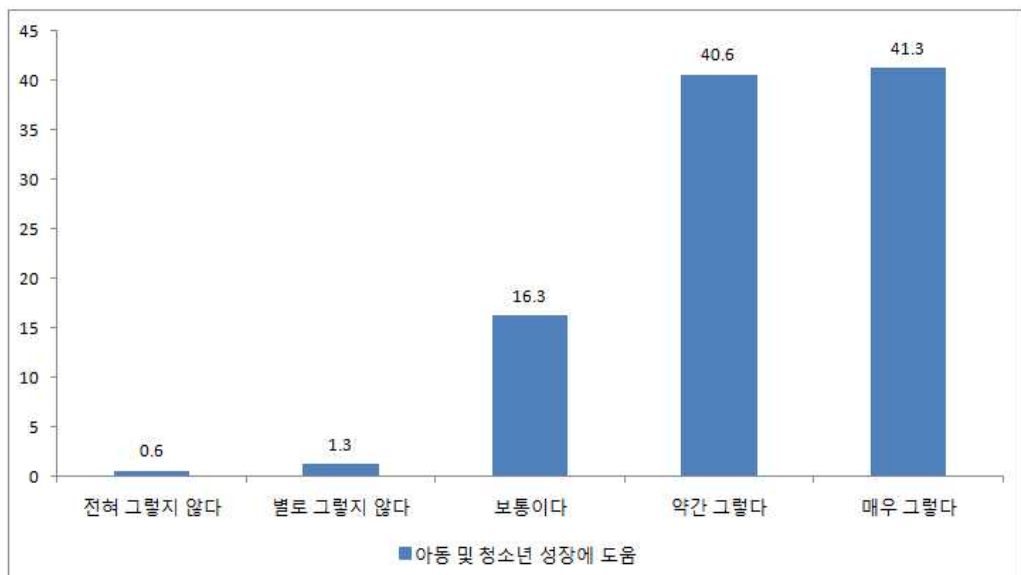
- 다음 <그림 43>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3]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인식 비율(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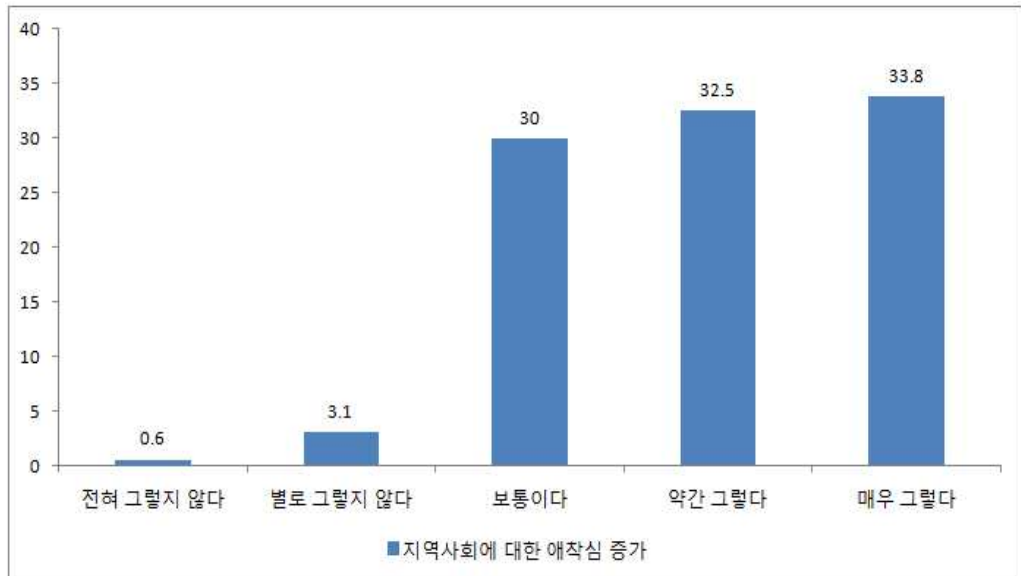
- 다음 <그림 44>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 성장 도움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4]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 성장 도움 인식 비율(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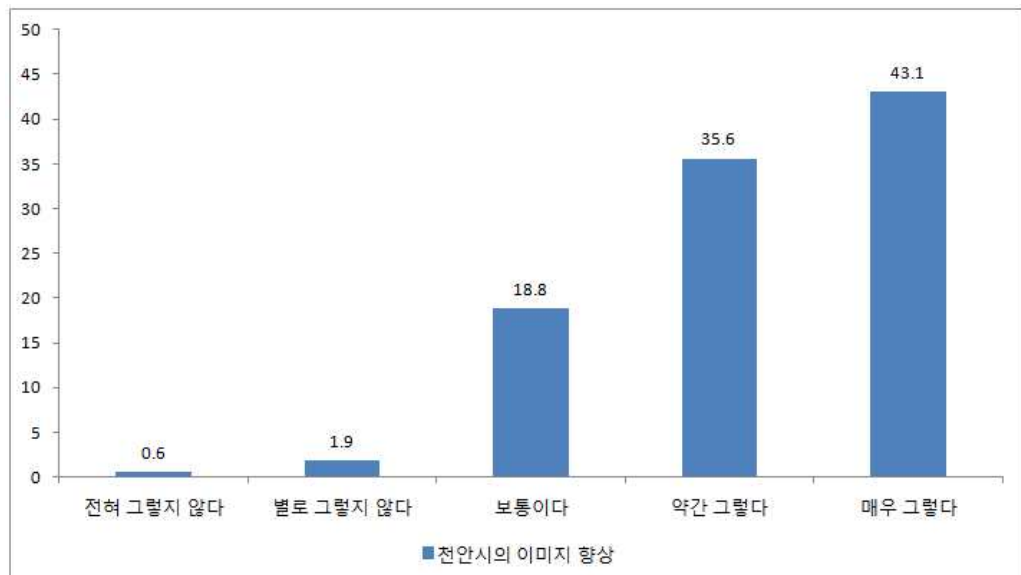
- 다음 <그림 45>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애착심 증가 인식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5]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애착심 증가 인식 비율(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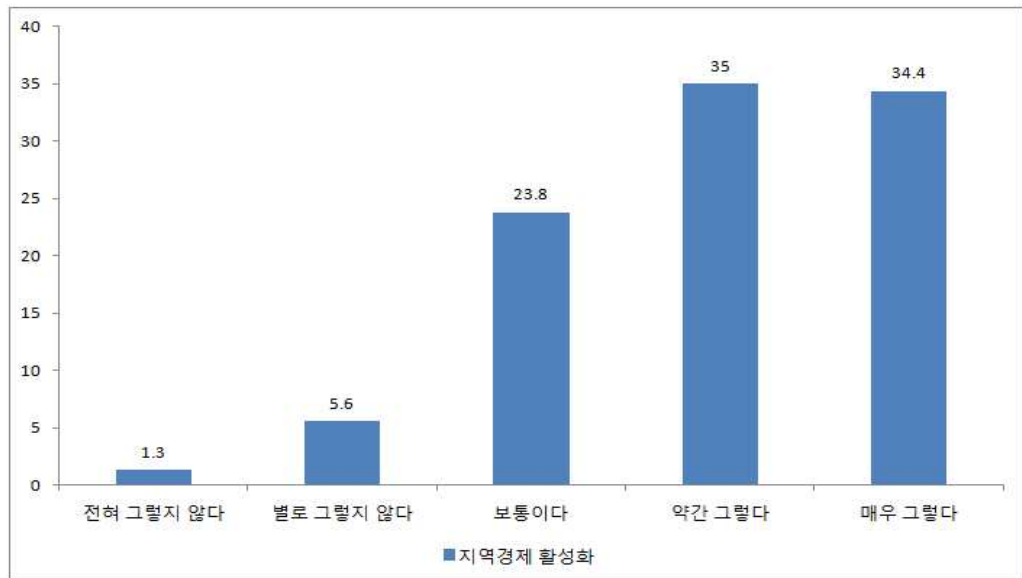
- 다음 <그림 46>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천안시의 이미지 향상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6] 문화예술활동을 천안시의 이미지 향상 인식 비율(단위: %)



- 다음 <그림 47>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응답 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7]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식 비율(단위: %)



- 다음 <표 56>은 대상집단별 삶의 질에 대하여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약간 그렇다’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대의 경우는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30대에 경우는 ‘약간 그렇다’와 ‘모두 그렇다’가 동일한 분포를 보임. 그리고 혼인상태별 분포는 기혼과 비혼 모두 ‘약간 그렇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의 경우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다른 학력별 항목은 모두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임.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생과 전문직의 경우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직업항목은 ‘매우 그렇다’가 대체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월수입별 분포는 각 항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임. 거주 형태별 분포 역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남

[표 56] 대상집단별 삶의 질에 관한 응답결과

구분		삶의 질					전체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0	0	9	33	26	68	4,250
	여	1	1	17	37	36	92	4,152
	유효(전체)	1	1	26	70	62	160	
연령	10대	0	0	5	9	11	25	4,240
	20대	1	1	20	54	45	121	4,165
	30대	0	0	1	6	6	13	4,385
	40대	0	0	0	1	0	1	4,000
	유효(전체)	1	1	26	70	62	160	
혼인	기혼	0	0	2	2	2	6	4,000
	비혼	1	1	23	68	60	153	4,209
	유효(전체)	1	1	25	70	62	158	
	결측(무응답)	2						
학력	고졸 이하	0	0	3	2	0	5	3,400
	대재	1	1	18	51	38	109	4,138
	대졸 이상	0	0	5	16	20	41	4,366
	대학원	0	0	0	1	4	5	4,800
	유효(전체)	1	1	26	70	62	160	
직업	학생	1	1	17	51	33	103	4,107
	일반사무	0	0	1	5	12	18	4,611
	판매 및 서비스직	0	0	0	2	3	5	4,600
	생산 및 기술직	0	0	5	1	1	7	3,429
	전문직	0	0	2	7	5	14	4,214
	무직(은퇴)	0	0	0	1	0	1	4,000
	공무원 및 군인	0	0	1	0	2	3	4,333
	기타	0	0	0	1	1	2	4,500
	유효(전체)	1	1	26	68	57	153	
	결측(무응답)	7						
월수입	100만원 미만	1	1	8	19	17	46	4,087
	100-200만원	0	0	5	8	20	33	4,455
	200-300만원	0	0	3	9	5	17	4,118
	300-400만원	0	0	1	5	2	8	4,125
	500만원 이상	0	0	0	1	1	2	4,500
	용돈(아르바이트)	0	0	9	28	17	54	4,148
	유효(전체)	1	1	26	70	62	160	
주거형태	자가	0	0	3	6	12	21	4,429
	전세	0	0	4	13	7	24	4,125
	기숙사	0	1	2	9	5	17	4,059
	월세	1	0	10	35	31	77	4,234
	기타	0	0	0	1	1	2	4,500
	유효(전체)	1	1	19	64	56	141	
	결측(무응답)	19						
주거방식	자취	0	0	16	58	52	126	4,286
	하숙(기숙사)	1	1	2	8	6	18	3,944
	쉐어 및 동거	0	0	2	2	3	7	4,143
	기타	0	0	1	1	0	2	3,500
	유효(전체)	1	1	21	69	61	153	
	결측(무응답)	7						

- 다음 <표 57>은 대상집단별 아동 및 청소년 교육에 대하여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매우 모두 그렇다’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30대의 경우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임. 혼인상태별 분포는 모두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과 대학원의 경우 ‘매우 그렇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대학재학과 고졸은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나타냄.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학생, 전문직, 판매 및 서비스직, 공무원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며 생산직 및 기술직은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월수입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과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며 나머지는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거주행태에 있어서는 전세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여 높은 분포를 보임

[표 57] 대상집단별 아동 및 청소년 교육에 관한 응답결과

구분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전체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0	2	10	30	26	68	4,176
	여	1	0	16	35	40	92	4,228
	유효(전체)	1	2	26	65	66	160	
연령	10대	0	0	4	10	11	25	4,280
	20대	1	2	21	48	49	121	4,174
	30대	0	0	1	7	5	13	4,308
	40대	0	0	0	0	1	1	5,000
	유효(전체)	1	2	26	65	66	160	
혼인	기혼	0	0	1	3	2	6	4,167
	비혼	1	1	25	62	64	153	4,222
	유효(전체)	1	1	26	65	66	159	
	결측(무응답)	1						
학력	고졸 이하	0	1	2	2	0	5	3,200
	대재	1	0	18	49	41	109	4,183
	대졸 이상	0	1	6	13	21	41	4,317
	대학원	0	0	0	1	4	5	4,800
	유효(전체)	1	2	26	65	66	160	
직업	학생	1	0	16	49	37	103	4,175
	일반사무	0	0	2	5	11	18	4,500
	판매 및 서비스직	0	0	1	1	3	5	4,400
	생산 및 기술직	0	2	2	2	1	7	3,286
	전문직	0	0	3	5	6	14	4,214
	무직(은퇴)	0	0	1	0	0	1	3,000
	공무원 및 군인	0	0	1	0	2	3	4,333
	기타	0	0	0	1	1	2	4,500
	유효(전체)	1	2	26	63	61	153	
	결측(무응답)	7						
월수입	100만원 미만	1	0	8	19	18	46	4,152
	100~200만원	0	2	2	8	21	33	4,455
	200~300만원	0	0	5	6	6	17	4,059
	300~400만원	0	0	2	3	3	8	4,125
	500만원 이상	0	0	0	1	1	2	4,500
	용돈(아르바이트)	0	0	9	28	17	54	4,148
	유효(전체)	1	2	26	65	66	160	
주거형태	자가	0	1	2	7	11	21	4,333
	전세	0	1	1	13	9	24	4,250
	기숙사	0	0	5	6	6	17	4,059
	월세	1	0	13	29	34	77	4,234
	기타	0	0	0	1	1	2	4,500
	유효(전체)	1	2	21	56	61	141	
	결측(무응답)	19						
주거방식	자취	0	0	16	55	55	126	4,310
	하숙(기숙사)	1	0	5	5	7	18	3,944
	쉐어 및 동거	0	0	1	3	3	7	4,286
	기타	0	0	1	1	0	2	3,500
	유효(전체)	1	0	23	64	65	153	
	결측(무응답)	7						

- 다음 <표 58>은 대상집단별 시민의 애착심에 대하여 응답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모두 ‘약간 모두 그렇다’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더 높은 분포를 보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30대의 경우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임. 혼인상태별 분포는 모두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과 대학원의 경우 ‘매우 그렇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대학재학과 고졸은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나타냄.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학생, 전문직, 판매 및 서비스 직, 공무원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며 생산직 및 기술직은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월수입에 따라서는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며 나머지는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거주행태에 따른 부분은 다수가 모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8] 대상집단별 시민의 애착심에 관한 응답결과

구분		시민의 애착심					전체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0	0	17	26	25	68	4,118
	여	1	5	31	26	29	92	3,837
	유효(전체)	1	5	48	52	54	160	
연령	10대	0	0	11	6	8	25	3,880
	20대	1	4	33	40	43	121	3,992
	30대	0	1	4	5	3	13	3,769
	40대	0	0	0	1	0	1	4,000
	유효(전체)	1	5	48	52	54	160	
혼인	기혼	0	0	2	2	2	6	4,000
	비혼	1	5	45	50	52	153	3,961
	유효(전체)	1	5	47	52	54	159	
	결측(무응답)	1						
학력	고졸 이하	0	1	2	2	0	5	3,200
	대재	1	2	37	37	32	109	3,890
	대졸 이상	0	2	8	13	18	41	4,146
	대학원	0	0	1	0	4	5	4,600
	유효(전체)	1	5	48	52	54	160	
직업	학생	1	2	36	36	28	103	3,854
	일반사무	0	2	2	5	9	18	4,167
	판매 및 서비스직	0	0	1	1	3	5	4,400
	생산 및 기술직	0	0	4	2	1	7	3,571
	전문직	0	0	3	6	5	14	4,143
	무직(은퇴)	0	1	0	0	0	1	2,000
	공무원 및 군인	0	0	1	0	2	3	4,333
	기타	0	0	0	1	1	2	4,500
	유효(전체)	1	5	47	51	49	153	
월수입	결측(무응답)	7						
	100만원 미만	1	1	16	14	14	46	3,848
	100~200만원	0	2	5	8	18	33	4,273
	200~300만원	0	0	5	5	7	17	4,118
	300~400만원	0	0	4	3	1	8	3,625
	500만원 이상	0	0	1	0	1	2	4,000
	용돈(아르바이트)	0	2	17	22	13	54	3,852
주거형태	유효(전체)	1	5	48	52	54	160	
	자가	0	0	6	7	8	21	4,095
	전세	0	1	7	7	9	24	4,000
	기숙사	0	1	8	3	5	17	3,706
	월세	1	2	18	28	28	77	4,039
	기타	0	0	0	2	0	2	4,000
	유효(전체)	1	4	39	47	50	141	
주거방식	결측(무응답)	19						
	자취	0	4	33	45	44	126	4,024
	하숙(기숙사)	1	1	6	4	6	18	3,722
	쉐어 및 동거	0	0	3	1	3	7	4,000
	기타	0	0	1	1	0	2	3,500
	유효(전체)	1	5	43	51	53	153	
	결측(무응답)	7						

- 다음 <표 59>는 대상집단별 시민의 애착심에 대하여 응답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매우 그렇다’가 더 높은 분포를 보임. 연령과 혼인상태별, 직업별, 월별 수입, 분포 역시도 ‘모두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의 경우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대졸 이상과 대학원의 경우 ‘매우 그렇다’ 높은 분포를 나타냄. 거주행태에 따른 부분은 전세와 기타의 경우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며 그 외는 모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9] 대상집단별 천안시의 이미지에 관한 응답결과

구분		천안시의 이미지					전체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0	1	6	28	33	68	4,368
	여	1	2	24	29	36	92	4,054
	유효(전체)	1	3	30	57	69	160	
연령	10대	0	0	8	8	9	25	4,040
	20대	1	3	18	46	53	121	4,215
	30대	0	0	4	3	6	13	4,154
	40대	0	0	0	0	1	1	5,000
	유효(전체)	1	3	30	57	69	160	
혼인	기혼	0	0	2	2	2	6	4,000
	비혼	1	3	28	54	67	153	4,196
	유효(전체)	1	3	30	56	69	159	
	결측(무응답)	1						
학력	고졸 이하	0	0	2	2	1	5	3,800
	대재	1	1	21	46	40	109	4,128
	대졸 이상	0	2	7	8	24	41	4,317
	대학원	0	0	0	1	4	5	4,800
	유효(전체)	1	3	30	57	69	160	
직업	학생	1	1	20	45	36	103	4,107
	일반사무	0	1	4	2	11	18	4,278
	판매 및 서비스직	0	0	0	2	3	5	4,600
	생산 및 기술직	0	1	2	3	1	7	3,571
	전문직	0	0	2	4	8	14	4,429
	무직(은퇴)	0	0	1	0	0	1	3,000
	공무원 및 군인	0	0	1	1	1	3	4,000
	기타	0	0	0	0	2	2	5,000
	유효(전체)	1	3	30	57	62	153	
월수입	100만원 미만	1	1	9	17	18	46	4,087
	100~200만원	0	2	5	7	19	33	4,303
	200~300만원	0	0	3	6	8	17	4,294
	300~400만원	0	0	1	2	5	8	4,500
	500만원 이상	0	0	0	1	1	2	4,500
	용돈(아르바이트)	0	0	12	24	18	54	4,111
	유효(전체)	1	3	30	57	69	160	
주거형태	자가	0	1	3	6	11	21	4,286
	전세	0	1	2	8	13	24	4,375
	기숙사	0	1	3	8	5	17	4,000
	월세	1	0	17	23	36	77	4,208
	기타	0	0	0	2	0	2	4,000
	유효(전체)	1	3	25	47	65	141	
	결측(무응답)	19						
주거방식	자취	0	1	22	46	57	126	4,262
	하숙(기숙사)	1	1	3	6	7	18	3,944
	쉐어 및 동거	0	0	2	2	3	7	4,143
	기타	0	0	1	1	0	2	3,500
	무응답	0	0	0	0	0	7	
	유효(전체)	1	2	28	55	67	160	

- 다음 <표 60>은 대상집단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매우 그렇다’가 더 높은 분포를 보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와 30대의 경우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임. 혼인상태별 분포는 모두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중심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며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음.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과 대의 대학원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대학재학과 고졸은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나타냄.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학생의 경우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며 그 외 다수는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월수입에 따라서는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충당하거나 월수입이 300-400만원인 경우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보이며 나머지는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거주행태에 따른 부분은 자가와 월세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며 나머지의 경우 ‘약간 그렇다’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표 60] 대상집단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응답결과

구분		지역경제 활성화					전체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0	5	16	22	25	68	3,985
	여	2	4	22	34	30	92	3,935
	유효(전체)	2	9	38	56	55	160	
연령	10대	0	1	5	12	7	25	4,000
	20대	2	8	29	37	45	121	3,950
	30대	0	0	4	6	3	13	3,923
	40대	0	0	0	1	0	1	4,000
	유효(전체)	2	9	38	56	55	160	
혼인	기혼	0	0	3	1	2	6	3,833
	비혼	2	9	34	55	53	153	3,967
	유효(전체)	2	9	37	56	55	159	
	결측(무응답)	1						
학력	고졸 이하	0	0	2	3	0	5	3,600
	대재	1	7	27	42	32	109	3,890
	대졸 이상	1	1	9	11	19	41	4,122
	대학원	0	1	0	0	4	5	4,400
	유효(전체)	2	9	38	56	55	160	
직업	학생	1	7	26	42	27	103	3,845
	일반사무	1	0	2	6	9	18	4,222
	판매 및 서비스직	0	0	1	1	3	5	4,400
	생산 및 기술직	0	1	3	2	1	7	3,429
	전문직	0	1	4	2	7	14	4,071
	무직(은퇴)	0	0	0	1	0	1	4,000
	공무원 및 군인	0	0	1	0	2	3	4,333
	기타	0	0	0	0	2	2	5,000
	유효(전체)	2	9	37	54	51	153	
	결측(무응답)	7						
월수입	100만원 미만	1	2	11	12	20	46	4,043
	100~200만원	1	3	5	8	16	33	4,061
	200~300만원	0	1	4	5	7	17	4,059
	300~400만원	0	0	5	3	0	8	3,375
	500만원 이상	0	0	0	1	1	2	4,500
	용돈(아르바이트)	0	3	13	27	11	54	3,852
	유효(전체)	2	9	38	56	55	160	
주거형태	자가	0	1	4	6	10	21	4,190
	전세	1	1	4	11	7	24	3,917
	기숙사	0	3	3	6	5	17	3,765
	월세	1	1	21	24	30	77	4,052
	기타	0	0	0	2	0	2	4,000
	유효(전체)	2	6	32	49	52	141	
	결측(무응답)	19						
주거방식	자취	1	5	29	47	44	126	4,016
	하숙(기숙사)	1	3	3	5	6	18	3,667
	쉐어 및 동거	0	0	2	2	3	7	4,143
	기타	0	0	1	1	0	2	3,500
	유효(전체)	2	8	35	55	53	153	
	결측(무응답)	7						

③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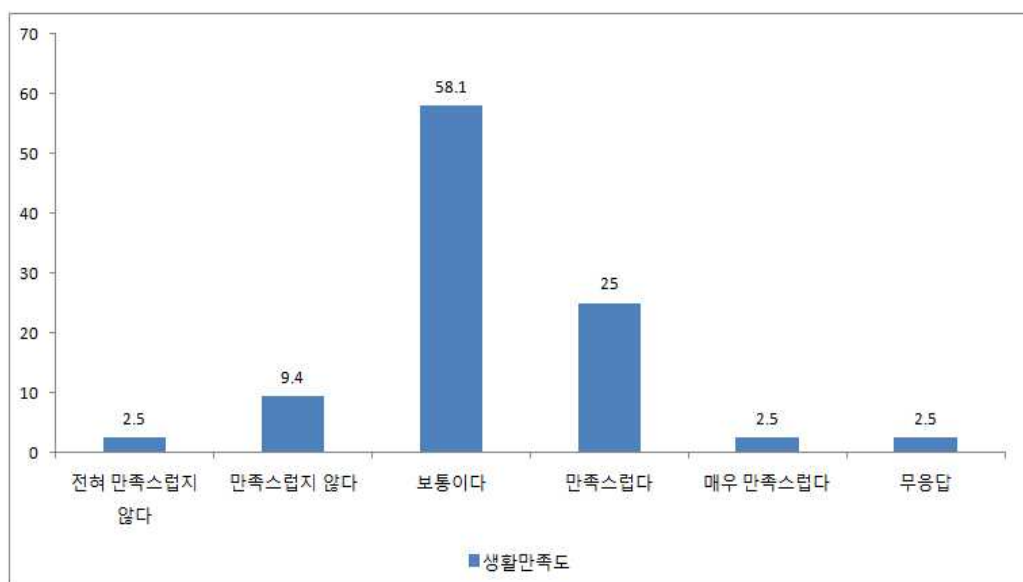
- 다음 <표 61>은 생활만족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빈도분석 결과임. 먼저 삶의 질 향상 있어서 응답결과를 보면 ‘보통이다’와 ‘만족스럽다’가 각각 58.1%, 25.0%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3.16로 나타나 생활만족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보통수준으로 보이고 있음

[표 61] 생활만족도에 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평균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4	2.5	3.16
만족스럽지 않다	15	9.4	
보통이다	93	58.1	
만족스럽다	40	25.0	
매우 만족스럽다	4	2.5	
무응답	4	2.5	
합계	160	100.0	

- 다음 <그림 48>은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8]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 인식 비율(단위: %)



- 다음 <표 62>는 대상집단별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보통이다’에 응답한 분포가 높게 나타남. 이 역시 성별, 연령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학력별, 혼인상태별, 수입정도, 직업별, 거주형태 및 방식에 따라 다른 집단별 구분을 통한 결과 역시도 ‘보통이다’에 응답한 분포가 높게 나타남

[표 62] 대상집단별 생활만족도에 관한 응답결과

구분		생활 만족도					전체	평균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만족 스럽지 않다	보통 이다	만족 스럽다	매우 만족 스럽다		
성별	남	1	6	36	21	3	67	3,284
	여	3	9	57	19	1	89	3,067
	유효(전체)	4	15	93	40	4	156	
	결측(무응답)	4						
연령	10대	1	0	15	5	1	22	3,227
	20대	3	14	70	30	3	120	3,133
	30대	0	1	7	5	0	13	3,308
	40대	0	0	1	0	0	1	3,000
	유효(전체)	4	15	93	40	4	156	
	결측(무응답)	4						
혼인	기혼	1	0	3	2	0	6	3,000
	비혼	3	15	90	37	4	149	3,161
	유효(전체)	4	15	93	39	4	155	
	결측(무응답)	5						
학력	고졸 이하	0	0	1	4	0	5	3,800
	대재	3	10	62	28	2	105	3,152
	대졸 이상	1	5	28	5	2	41	3,049
	대학원	0	0	2	3	0	5	3,600
	유효(전체)	4	15	93	40	4	156	
	결측(무응답)	4						
직업	학생	3	10	59	25	2	99	3,131
	일반사무	0	1	13	3	1	18	3,222
	판매 및 서비스직	0	2	3	0	0	5	2,600
	생산 및 기술직	0	0	5	2	0	7	3,286
	전문직	1	2	7	3	1	14	3,071
	무직(은퇴)	0	0	1	0	0	1	3,000
	공무원 및 군인	0	0	2	1	0	3	3,333
	기타	0	0	1	1	0	2	3,500
	유효(전체)	4	15	91	35	4	149	
	결측(무응답)	11						
월수입	100만원 미만	1	4	26	12	1	44	3,182
	100~200만원	0	3	20	9	1	33	3,242
	200~300만원	0	1	9	5	2	17	3,471
	300~400만원	1	1	3	3	0	8	3,000
	500만원 이상	0	0	2	0	0	2	3,000
	용돈(아르바이트)	2	6	33	11	0	52	3,019
	유효(전체)	4	15	93	40	4	156	
	결측(무응답)	4						
주거형태	자가	0	1	12	7	1	21	3,381
	전세	1	1	13	9	0	24	3,250
	기숙사	1	0	11	4	1	17	3,235
	월세	2	10	45	17	1	75	3,067
	기타	0	1	0	1	0	2	3,000
	유효(전체)	4	13	81	38	3	139	
	결측(무응답)	21						
주거방식	자취	3	14	72	30	3	122	3,131
	하숙(기숙사)	1	0	11	5	1	18	3,278
	쉐어 및 동거	0	1	5	1	0	7	3,000
	기타	0	0	0	2	0	2	4,000
	유효(전체)	4	15	88	38	4	149	
	결측(무응답)	11						

④ 휴일 및 주말에 천안시 상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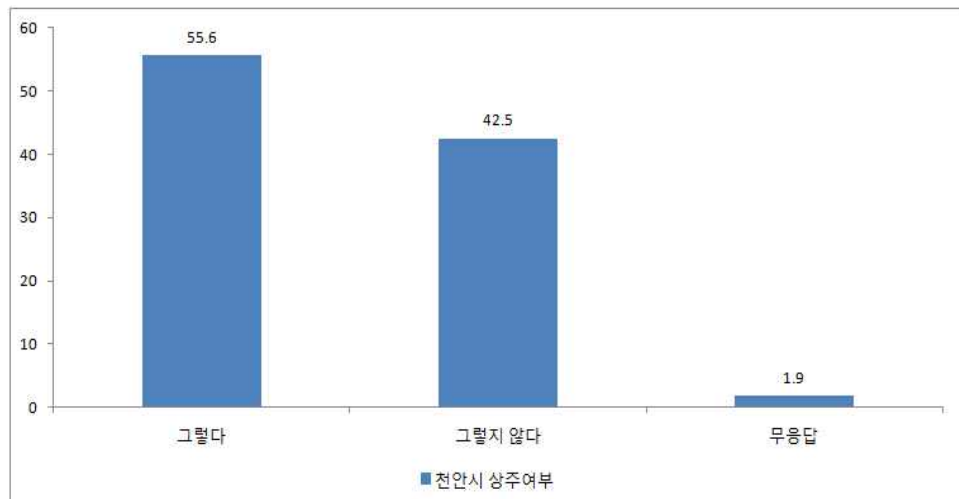
- 다음 <표 63>은 천안시에 주말이나 휴일에 상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 먼저 삶의 질 향상 있어서 응답결과를 보면 ‘그렇다’가 89명이 응답하여 55.6%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그렇지 않다’가 각각 68명이 응답하여 42.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63] 천안시 상주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89	55.6
그렇지 않다	68	42.5
무응답	3	1.9
합계	160	100.0

- 다음 <그림 49>는 1인 가구대상 주말 및 휴일에 천안시 상주여부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9] 1인 가구의 주말 및 휴일 천안시 상주 여부 비율(단위: %)



- 다음 <표 64>는 대상집단별 천안시 상주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천안시에 상주하겠다고 답한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상주하지 않겠다고 답한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30대의 경우 상주하겠다고 답한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혼인 상태에 따른 분석결과 기혼 유무에 관계없이 상주하겠다는 의견이 더 높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상주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다수의 분포를 보이며, 그밖의 다른 직군 모두는 상주하겠다는 의견이 더 높은 분포를 보임.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수입이 용돈과 아르바이트, 50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상주하겠다는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주하겠다고 답한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남

[표 64] 대상집단별 천안시 상주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구분		천안시 상주여부		전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성 별	남	39	29	68
	여	50	39	89
	유효(전체)	89	68	157
	결측(무응답)	3		
연 령	10대	7	15	22
	20대	72	49	121
	30대	9	4	13
	40대	1	0	1
	유효(전체)	89	68	157
	결측(무응답)	3		
혼 인	기혼	4	2	6
	비혼	84	66	150
	유효(전체)	88	68	156
	결측(무응답)	4		
학 력	고졸 이하	5	0	5
	대재	49	57	106
	대졸 이상	31	10	41
	대학원	4	1	5
	유효(전체)	89	68	157
	결측(무응답)	3		
직 업	학생	44	56	100
	일반사무	15	3	18
	판매 및 서비스직	2	3	5
	생산 및 기술직	5	2	7
	전문직	12	2	14
	무직(은퇴)	1	0	1
	공무원 및 군인	2	1	3
	기타	2	0	2
	유효(전체)	83	67	150
	결측(무응답)	10		
월 수 입	100만원 미만	25	19	44
	100-200만원	24	9	33
	200-300만원	15	2	17
	300-400만원	5	3	8
	500만원 이상	0	2	2
	용돈(아르바이트)	20	33	53
	유효(전체)	89	68	157
	결측(무응답)	3		
주 거 형 태	자가	10	11	21
	전세	17	7	24
	기숙사	6	11	17
	월세	47	29	76
	기타	0	2	2
	유효(전체)	80	60	140
	결측(무응답)	20		
주 거 방 식	자취	74	49	123
	하숙(기숙사)	5	13	18
	쉐어 및 동거	4	3	7
	기타	2	0	2
	유효(전체)	85	65	150
	결측(무응답)	10		

⑤ 향후 지속적 거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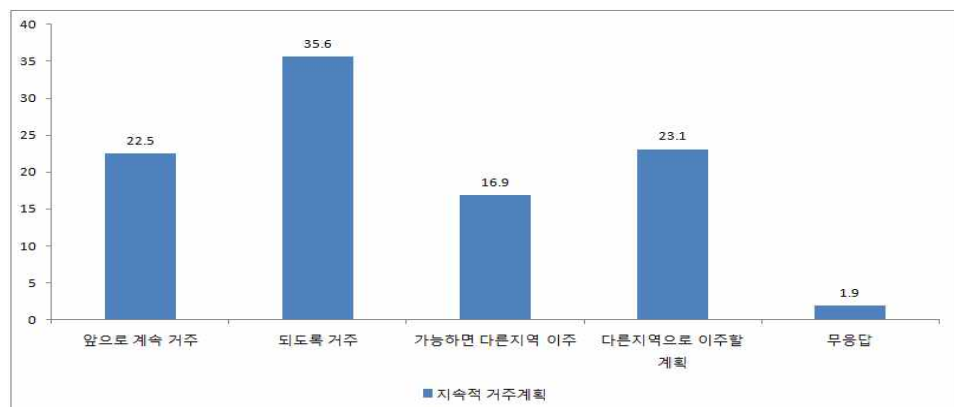
- 다음 <표 65>는 향후 천안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계획에 관한 질문의 분석결과임. 먼저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앞으로 계속거주’와 ‘되도록이면 거주할 것이다’라는 긍정적 답변이 각각 22.5%, 35.6%를 보이고 있으며 ‘가능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각각 16.9%, 23.1%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긍정적 답변의 경우가 58.1%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적 응답은 40.0%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5] 향후 지속적 거주계획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
앞으로 계속 거주	36	22,5
되도록 거주	57	35,6
가능하면 다른지역 이주	27	16,9
다른지역으로 이주할 계획	37	23,1
무응답	3	1,9
합계	160	100,0

- 다음 <그림 50>은 1인 가구대상 지속적 거주계획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50] 1인 가구의 지속적 거주계획에 인식 비율(단위: %)



- 다음 <표 66>는 대상집단별 향후 거주계획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되도록 거주할 것이다’라는 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력, 연령, 혼인상태, 직업별, 월수입정도, 거주형태, 거주방식을 보더라도 ‘되도록 거주할 것이다’의 경우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표 66] 대상집단별 향후 거주계획 응답결과

구분		주말 인터넷				전체
		계속 거주할 것이다	되도록 거주할 것이다	가능하면 이주할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다	
성별	남	15	29	8	16	68
	여	21	28	19	21	89
	무응답	36	57	27	37	157
	전체	3				
연령	10대	4	8	7	3	22
	20대	29	43	20	29	121
	30대	2	6	0	5	13
	40대	1	0	0	0	1
	유효(전체)	36	57	27	37	157
	결측(무응답)	3				
혼인	기혼	4	0	1	1	6
	비혼	32	56	26	36	150
	유효(전체)	36	56	27	37	156
	결측(무응답)	4				
학력	고졸 이하	2	3	0	0	5
	대재	20	33	25	28	106
	대졸 이상	11	20	2	8	41
	대학원	3	1	0	1	5
	유효(전체)	36	57	27	37	157
	결측(무응답)	3				
직업	학생	19	30	23	28	100
	일반사무	5	11	1	1	18
	판매 및 서비스직	1	1	1	2	5
	생산 및 기술직	2	4	1	0	7
	전문직	4	7	1	2	14
	무직(은퇴)	0	1	0	0	1
	공무원 및 군인	2	0	0	1	3
	기타	0	1	0	1	2
	유효(전체)	33	55	27	35	150
	결측(무응답)	10				
월수입	100만원 미만	9	17	12	6	44
	100~200만원	10	15	2	6	33
	200~300만원	7	8	1	1	17
	300~400만원	3	2	1	2	8
	500만원 이상	0	1	0	1	2
	용돈(아르바이트)	7	14	11	21	53
	유효(전체)	36	57	27	37	157
	결측(무응답)	3				
주거형태	자가	4	9	3	5	21
	전세	8	10	1	5	24
	기숙사	1	8	5	3	17
	월세	16	26	14	20	76
	기타	1	0	0	1	2
	유효(전체)	30	53	23	34	140
	결측(무응답)	20				
주거방식	자취	30	40	22	31	123
	하숙(기숙사)	2	8	4	4	18
	쉐어 및 동거	0	6	0	1	7
	기타	2	0	0	0	2
	유효(전체)	34	54	26	36	150
	결측(무응답)	10				

⑥ 적극적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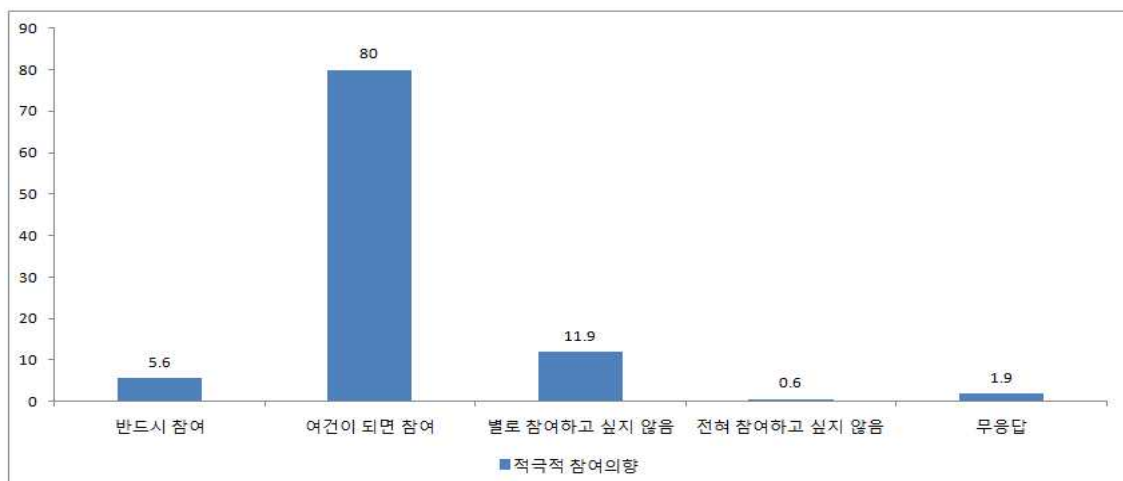
- 다음 <표 67>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 먼저 응답결과를 보면 ‘반드시 참여’가 5.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건이 되면 참여’가 80.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음’이 11.9%,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음’은 0.6%로 1%미만의 비율을 보임

[표 67] 적극적 참여의향에 대한 응답결과(단위: 건수, %)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반드시 참여	9	5.6
여건이 되면 참여	128	80.0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음	19	11.9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음	1	0.6
무응답	3	1.9
합계	160	100.0

- 다음 <그림 51>은 1인 가구 대상 문화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의향 정도에 관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51]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적극적 참여의향 정도 인식 비율(단위: %)



- 다음 <표 68>은 대상집단별 적극적 참여의향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임. 먼저 대상집단에 있어서 성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의 분포를 차지함. 연령별로 보더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그리고 역시 혼인상태 학력별, 직업별, 수입정도별, 주거형태와 주거방식별 상황을 보더라도 ‘되도록 거주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의 분포를 차지함

[표 68] 대상집단별 적극적 참여의향에 대한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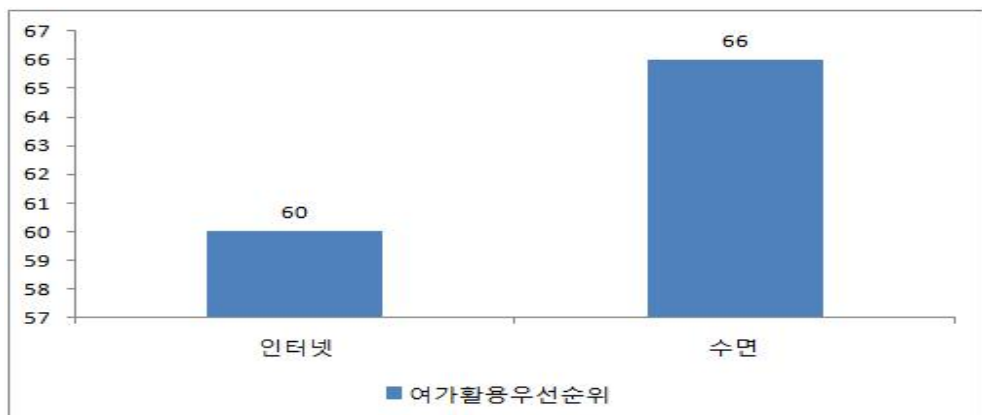
구분		적극적 참여의향				전체
		반드시 참여	여건이 되면 참여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음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음	
성별	남	3	52	12	1	68
	여	6	76	7	0	89
	무응답	9	128	19	1	157
	전체	3				
연령	10대	1	17	3	1	22
	20대	7	100	14	0	121
	30대	1	10	2	0	13
	40대	0	1	0	0	1
	무응답	9	128	19	1	157
	전체	3				
혼인	기혼	1	5	0	0	6
	비혼	8	123	18	1	150
	무응답	9	128	18	1	156
	전체	4				
학력	고졸 이하	0	4	1	0	5
	대재	6	86	13	1	106
	대졸 이상	2	34	5	0	41
	대학원	1	4	0	0	5
	무응답	9	128	19	1	157
	전체	3				
직업	학생	5	81	13	1	100
	일반사무	1	16	1	0	18
	판매 및 서비스직	1	3	1	0	5
	생산 및 기술직	0	4	3	0	7
	전문직	1	12	1	0	14
	무직(은퇴)	0	1	0	0	1
	공무원 및 군인	0	3	0	0	3
	기타	0	2	0	0	2
	무응답	8	122	19	1	150
	전체	10				
월수입	100만원 미만	3	37	4	0	44
	100~200만원	2	25	6	0	33
	200~300만원	1	15	1	0	17
	300~400만원	1	6	1	0	8
	500만원 이상	0	2	0	0	2
	용돈(아르바이트)	2	43	7	1	53
	무응답	9	128	19	1	157
	전체	3				
주거형태	자가	4	9	3	5	21
	전세	8	10	1	5	24
	기숙사	1	8	5	3	17
	월세	16	26	14	20	76
	기타	1	0	0	1	2
	무응답	30	53	23	34	140
	전체	20				
주거방식	자취	7	100	15	1	123
	하숙(기숙사)	2	13	3	0	18
	쉐어 및 동거	0	7	0	0	7
	기타	0	2	0	0	2
	무응답	9	122	18	1	150
	전체	10				

(7) 분석결과 요약 및 비교

① 여가활용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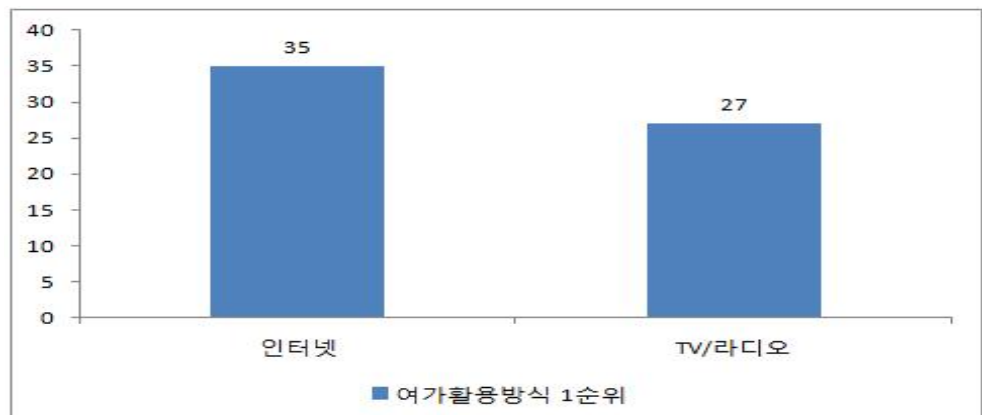
- 다음 <그림 52>에서 보듯이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게 하였음. 먼저 천안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경우 여가 시간에 주로 수면/휴식과 인터넷의 활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음
- 그리고 <그림 53> 역시 중복응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여가활용의 1 순위는 인터넷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리고 그 뒤를 이어 TV/라디오 시청이 높은 빈도를 보임
- 다음 <그림 52>는 1인 가구의 여가활용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52] 1인 가구의 여가활용 우선순위(단위: 건수)



- 다음 <그림 53>은 1인 가구의 여가활용 1순위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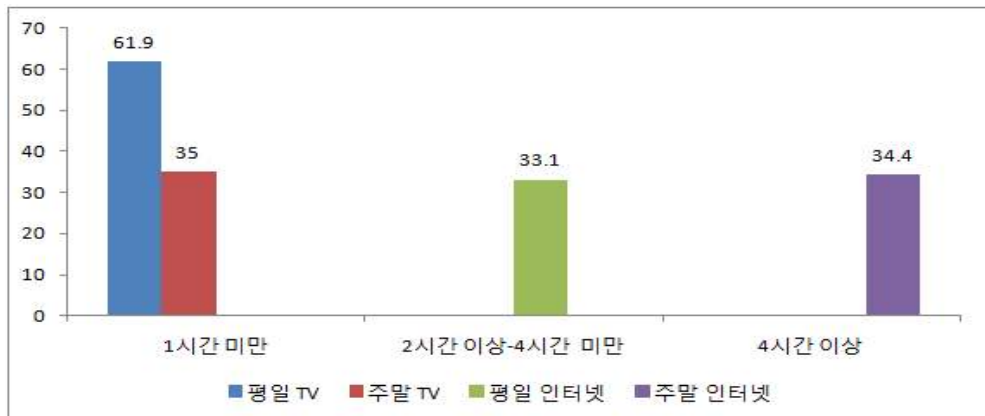
[그림 53] 1인 가구의 여가활용 1순위(단위: 건수)



② 평일과 주말의 TV, 인터넷 활용시간

- 다음 <그림 54>에서 보듯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평일과 주말의 TV 시청은 1시간 미만이 각각 61.9%, 35%의 높은 비중을 보임. 이에 반하여 평일 인터넷 활용은 2시간 이상에서 4시간 미만이 33.1%의 비중으로 가장 높으며 주말에는 4시간 이상이 34.4%의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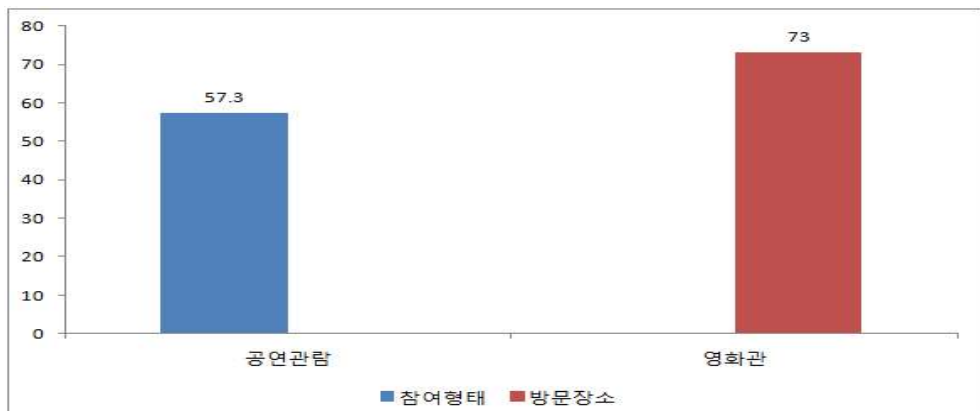
[그림 54] 평일과 주말의 TV, 인터넷 활용시간(단위: %)



③ 문화예술 활동 참여집단의 참여형태와 방문장소

- 다음 <그림 55>는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에 참여 형태와 주방문 장소에 관한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 참여형태에 있어서는 공연관람이 5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방문장소에는 영화관이 73%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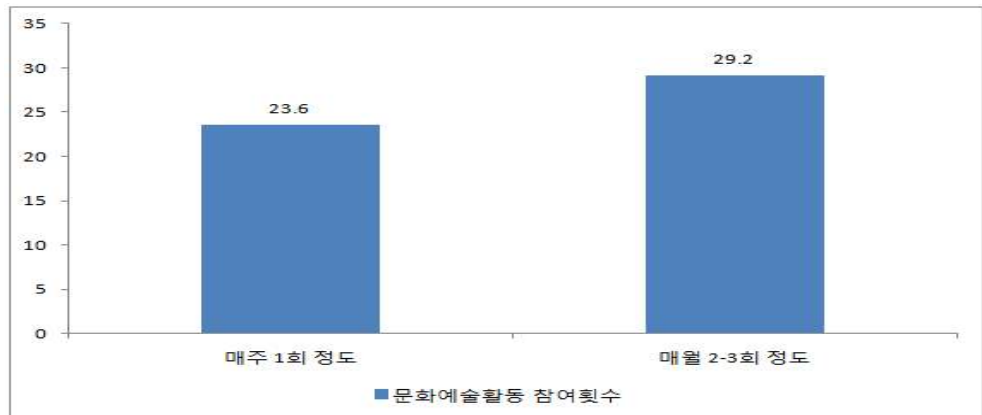
[그림 55] 참여형태와 방문장소(단위: %)



④ 문화예술 활동 참여집단의 참여횟수

- 다음 <그림 56>은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참여 횟수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월 2-3회 정도가 29.2%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매주 1회 정도가 23.6%의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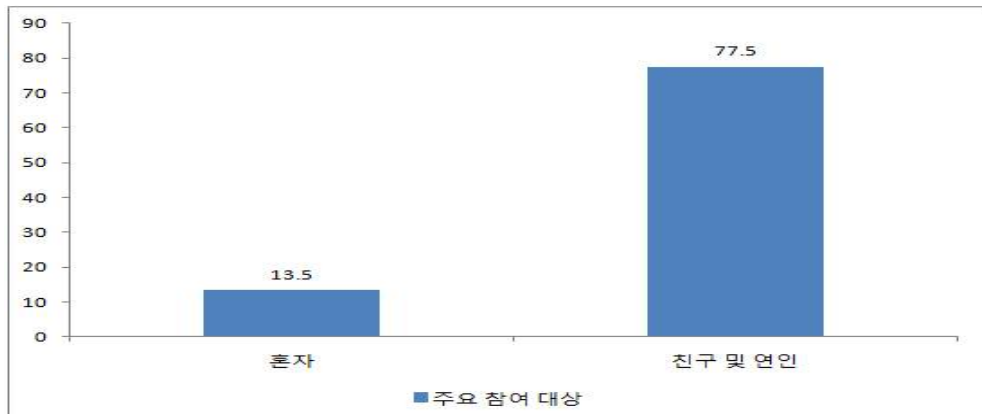
[그림 56] 참여횟수(단위: %)



⑤ 문화예술 활동 참여집단의 주요참여 대상

- 다음 <그림 57>에 있어서 주로 누구와 함께 참여하는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친구 및 연인이 7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로 혼자가는 경우가 13.5%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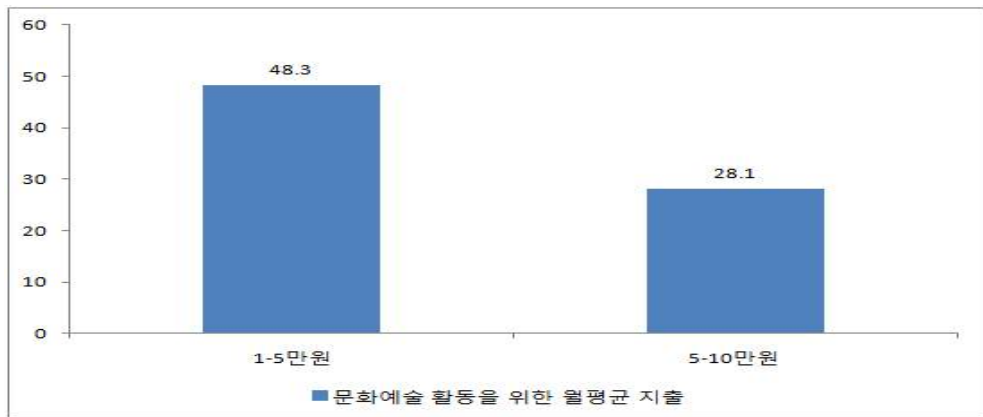
[그림 57] 주요참여 대상(단위: %)



⑥ 문화예술 활동 참여집단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월별 평균지출

- 다음 <그림 58>은 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월별 평균지출 관한 대한 빈도분석 결과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월별 1-5만원 미만이 48.3%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5-10만원이 28.1%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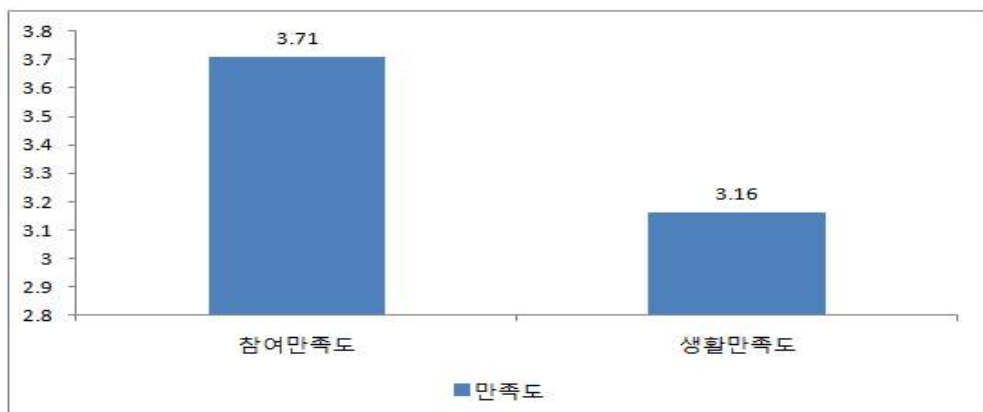
[그림 58]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월평균 지출(단위: %)



⑦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 다음 <그림 59>는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참여의 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지표임.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만족도는 3.71로 생활만족도 3.1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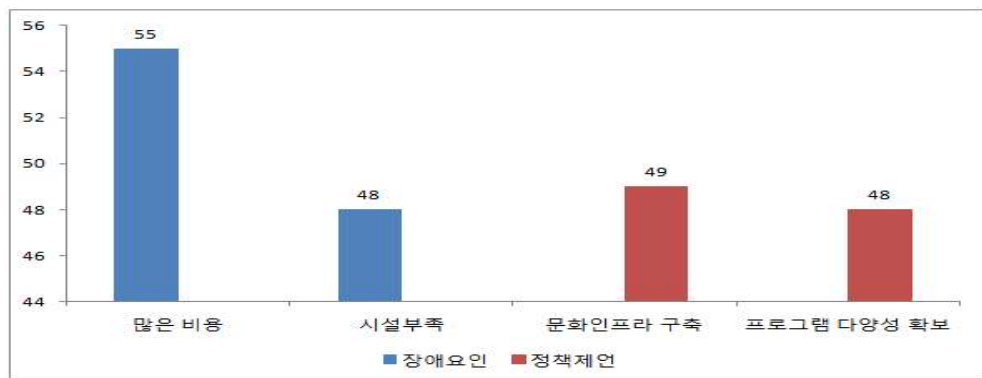
[그림 5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만족도(단위: %)



⑧ 문화예술활동의 장애요인 및 정책적 제언 우선순위

- 다음 <그림 60>은 중복응답이 가능하게 하였음. 즉,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복수로 하게끔 하였으며 그에 따라 중복응답에 대한 처리를 하였음.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비용과 주변시설이 부족임
- 정책적 제언으로는 문화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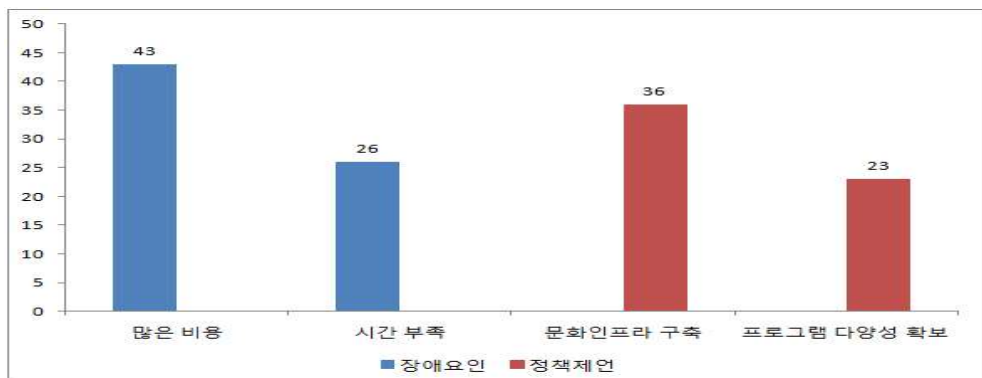
[그림 60] 장애요인 및 정책제언 우선순위(단위: 건수)



⑨ 문화예술활동의 장애요인 및 정책적 제언 1순위

- 다음 <그림 61>은 중복응답이 가능하게 하였음.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1순위로 꼽히는 장애요인은 비용이며 그 뒤에 시간부족이 제기됨
- 정책적 제언으로는 역시 문화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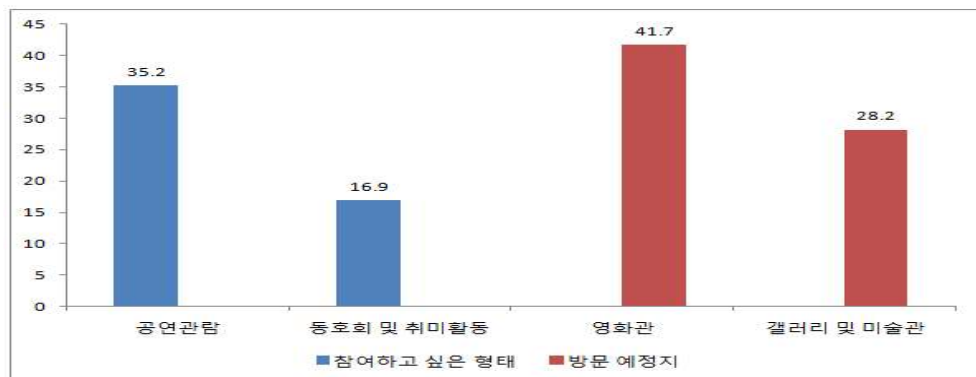
[그림 61] 장애요인 및 정책제언 1순위(단위: 건수)



⑩ 문화예술활동 비참여집단의 참여하고 싶은 형태와 방문예정지

- 다음 <그림 62>는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에 참여하고 싶은 형태에 관한 질문의 빈도분석 결과임. 참여하고 싶은 형태의 경우 공연관람이 35.2%, 동호회 및 취미활동이 16.9%의 높은 비율을 보임
-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에 방문하고 싶은 장소 관한 질문의 빈도분석 결과임. 방문하고 싶은 예정지의 경우 영화관이 41.7%, 갤러리 및 미술관의 경우 28.2%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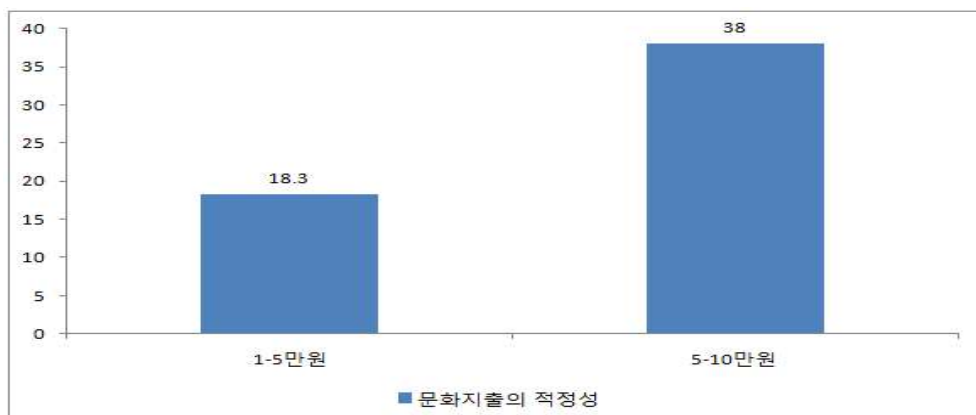
[그림 62] 참여하고 싶은 형태와 방문예정지(단위: %)



⑪ 문화예술활동 비참여집단의 지출의 적정성

- 다음 <그림 63>은 문화예술의 활동(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적정한 지출에 관한 질문의 빈도분석 결과임. 먼저 5-10만원이 38.0%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5만원이 18.3%의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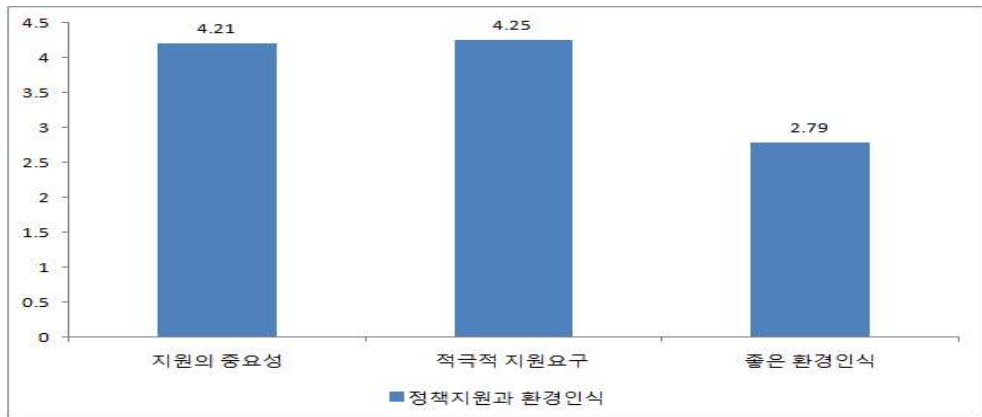
[그림 63] 문화예술활동 비참여집단의 지출의 적정성(단위: %)



⑫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정책지원과 환경인식

- 다음 <그림 64>는 문화예술의 활동의 정책지원과 환경인식에 관한 평균 값임, 먼저 적극적 지원의 요구가 4.25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지원의 중요성이 4.21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환경인식이 2.79로 가장 낮은 값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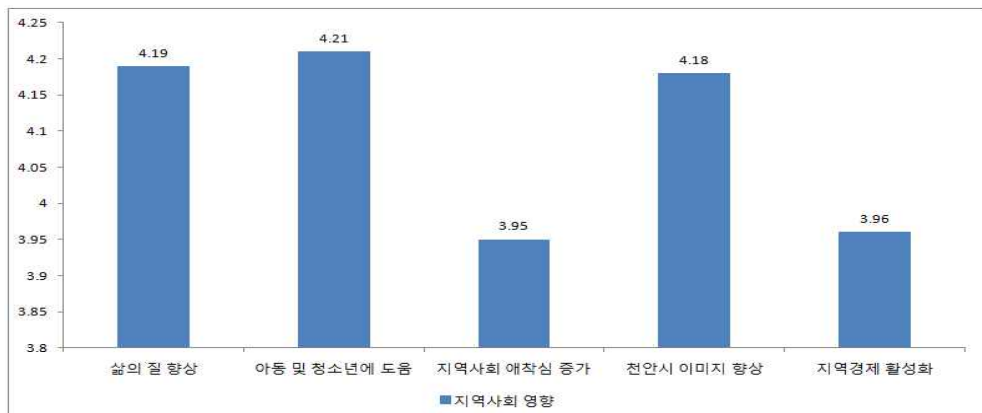
[그림 64]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정책지원과 환경인식(단위: %)



⑬ 문화예술활동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 다음 <그림 65>는 문화예술의 활동의 지역사회 영향에 관한 평균 값임. 아동 및 청소년에 도움이 4.21로 가장 높은 평값을 보이며, 삶의 질 향상 4.19, 천안시의 이미지 향상이 4.18 보임.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애착심 증가가 각각 3.96, 3.9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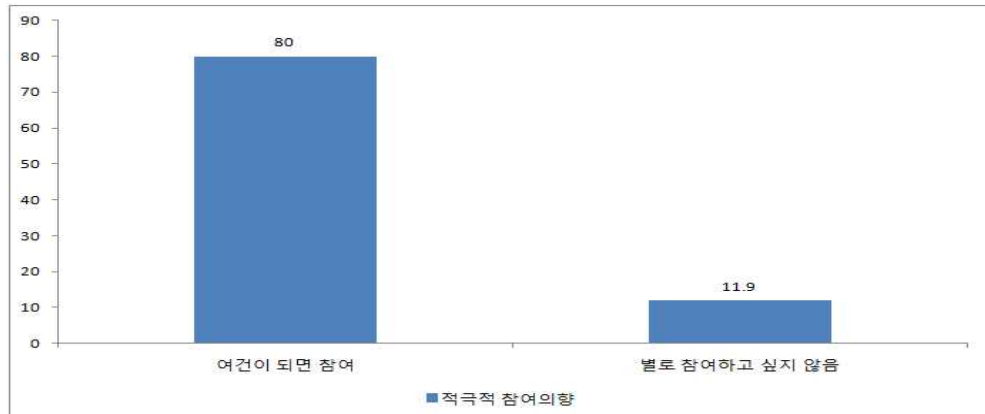
[그림 65] 문화예술활동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단위: %)



⑭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

- 다음 <그림 66>은 문화예술의 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에 관한 질문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여건이 되면 참여가 80%,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음
고 싶지 않음이 11.9%로 높게 나타남

[그림 66]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단위: %)



3)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집단 특성별 인식비교

(1) 성별에 따른 인식비교

①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분석

- 성별 남, 여로 구분하여, TV시청과 인터넷 접속시간에 대하여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69>에서 나타나듯이, 평일과 주말에 TV 시청시간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가 $p < 0.1$, $p < 0.01$ 수준에서 각각 유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여자의 경우 TV 시청시간이 남성보다 많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반하여 평일 인터넷 접속시간의 경우와 주말의 인터넷 접속시간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음

[표 69]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TV	남	67	1.463	.7653	3.452*
	여	91	1.637	.8884	
평일 인터넷	남	66	2.409	.9278	.727
	여	92	2.663	.9975	
주말 TV	남	67	1.836	.9629	8.438***
	여	91	2.484	1.1582	
주말 인터넷	남	67	2.672	1.0356	.002
	여	92	2.957	1.0784	

* $p < 0.1$, ** $P < 0.05$, *** $P < 0.01$

②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환경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70>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적극적 활동지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 환경 인식에 대한 각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음. 즉 각 항목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음

[표 70]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에 다양한 정책지원	남	68	4.118	.8730	.042
	여	92	4.283	.8811	
적극적인 활동지원	남	68	4.279	.8437	.003
	여	92	4.228	.8530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환경	남	68	2.731	.8087	.954
	여	92	2.848	.7975	

* p<0.1, ** P<0.05, ***P<0.01

③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영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71>에서 나타남. 먼저 삶의 질 향상과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성장에 도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과 천안의 이미지 향상에 각각 p<0.05, p<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즉 남성이 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이미지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71]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삶의질 향상	남	68	4.250	.6775	1.576
	여	92	4.152	.8378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	남	68	4.176	.7906	.313
	여	92	4.228	.8134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남	68	4.118	.7828	5.305**
	여	92	3.837	.9753	
천안의 이미지 향상	남	68	4.368	.7104	2.855*
	여	92	4.054	.9182	
지역경제 활성화	남	68	3.985	.9541	.018
	여	92	3.935	.9699	

* p<0.1, ** P<0.05, ***P<0.01

④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분석

-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의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72>에서 나타남. 먼저 생활만족도는 $p < 0.1$ 수준에서 남녀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 역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즉, 두 항목 모두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지속적 거주계획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

[표 72]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생활만족도	남	68	3.284	.7549	3.872*
	여	89	3.067	.7038	
지속적 거주계획	남	68	2.368	1.0776	.341
	여	89	2.449	1.0976	
문화예술 활동 적극적 참여 의향	남	68	2.162	.5070	11.442***
	여	89	2.011	.3842	

* $p < 0.1$, ** $P < 0.05$, *** $P < 0.01$

(2) 연령별 인식비교

①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분석

- TV시청과 인터넷 접속시간에 대하여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73>에서 나타나듯이, 평일과 주말의 인터넷 접속시간의 경우 연령별 성별 차이가 $p < 0.01$ 수준에서 각각 유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에 반하여 평일 TV와 주말 TV 시청시간은 연령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표 73]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분석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TV	10대	25	1,440	.8699	.297
	20대	119	1,580	.8586	
	30대	13	1,615	.6504	
	40대	1	2,000		
평일 인터넷	10대	25	3,080	.9539	5.829***
	20대	119	2,529	.9462	
	30대	13	1,769	.7250	
	40대	1	3,000		
주말 TV	10대	25	2,160	1,1060	.191
	20대	119	2,218	1,1436	
	30대	13	2,154	1,0682	
	40대	1	3,000		
주말 인터넷	10대	25	3,480	.7141	5.872***
	20대	120	2,783	1,0705	
	30대	13	2,077	1,0377	
	40대	1	3,000		

* p<0.1, ** P<0.05, ***P<0.01

②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환경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74>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적극적 활동지원 등의 각 항목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 환경 인식에 대한 항목은 p<0.05수준으로 연령별 차이가 있음이 보여짐

[표 74]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10대	25	4,320	.8021	.170
	20대	121	4,190	.8973	
	30대	13	4,231	.9268	
	40대	1	4,000		
적극적인 활동지원	10대	25	4,320	.8021	.421
	20대	121	4,215	.8776	
	30대	13	4,462	.6602	
	40대	1	4,000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환경	10대	25	3,120	.6658	3.927**
	20대	121	2,777	.8215	
	30대	13	2,385	.6504	
	40대	0	—	—	

* p<0.1, ** P<0.05, ***P<0.01

③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영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75>에서 나타남.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삶의 질 향상과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성장에 도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천안의 이미지 향상 등의 각각의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 즉 연령별 인식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표 75]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삶의질 향상	10대	25	4.240	.7789	.356
	20대	121	4.165	.7890	
	30대	13	4.385	.6504	
	40대	1	4.000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	10대	25	4.280	.7371	.529
	20대	121	4.174	.8334	
	30대	13	4.308	.6304	
	40대	1	5.000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10대	25	3.880	.8813	.302
	20대	121	3.992	.9174	
	30대	13	3.769	.9268	
	40대	1	4.000		
천안의 이미지 향상	10대	25	4.040	.8406	.602
	20대	121	4.215	.8486	
	30대	13	4.154	.8987	
	40대	1	5.000		
지역경제 활성화	10대	25	4.000	.8165	.024
	20대	121	3.950	1.0153	
	30대	13	3.923	.7596	
	40대	1	4.000		

* p<0.1, ** P<0.05, ***P<0.01

④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분석

-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의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76>에서 나타남. 생활만족도,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 지속적 거주계획 등의 각각의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음. 이 역시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표 76]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생활만족도	10대	22	3.227	.7516	.303
	20대	120	3.133	.7440	
	30대	13	3.308	.6304	
	40대	1	3.000		
지속적 거주계획	10대	22	2.409	.9591	.713
	20대	121	2.405	1.0998	
	30대	13	2.615	1.1929	
	40대	1	1.000		
문화예술 활동 적극적 참여 의향	10대	22	2.182	.5885	.484
	20대	121	2.058	.4143	
	30대	13	2.077	.4935	
	40대	1	2.000		

* p<0.1, ** P<0.05, ***P<0.01

(3) 혼인상태별 인식비교

①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분석

- TV시청과 인터넷 접속시간에 대하여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77>에서 보여주고 있음. 다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일과 주말에 TV 시청시간의 경우 그리고 평일과 주말에 인터넷 접속시간에 따른 차이가 혼인 상태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여줌

[표 77]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TV	기혼	6	2.167	1.1690	1.221
	비혼	151	1.530	.8149	
평일 인터넷	기혼	6	2.000	1.0954	.657
	비혼	151	2.576	.9691	
주말 TV	기혼	6	2.500	1.2247	.025
	비혼	151	2.192	1.1238	
주말 인터넷	기혼	6	2.333	1.5055	3.337
	비혼	152	2.855	1.0511	

* p<0.1, ** P<0.05, ***P<0.01

②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환경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78>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적극적 활동지원,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환경인식 등의 각 항목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표 78]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에 다양한 정책지원	기혼	6	4.000	.8944	.055
	비혼	153	4.229	.8773	
적극적인 활동지원	기혼	6	4.000	.8944	.170
	비혼	153	4.268	.8430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환경	기혼	6	2.500	.8367	.090
	비혼	153	2.816	.8008	

* p<0.1, ** P<0.05, ***P<0.01

③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영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혼인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79>에서 나타남.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삶의 질 향상과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성장에 도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천안의 이미지 향상 등의 각각의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 즉 혼인상태에 따른 인식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표 79]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삶의질 향상	기혼	6	4.000	.8944	.061
	비혼	153	4.209	.7665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	기혼	6	4.167	.7528	.268
	비혼	153	4.222	.7883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기혼	6	4.000	.8944	.086
	비혼	153	3.961	.9096	
천안의 이미지 향상	기혼	6	4.000	.8944	.036
	비혼	153	4.196	.8512	
지역경제 활성화	기혼	6	3.833	.9832	.139
	비혼	153	3.967	.9626	

* p<0.1, ** P<0.05, ***P<0.01

④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분석

-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의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80>에서 나타남. 생활만족도,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 지속적 거주계획 등의 각각의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음. 이 역시 혼인상태의 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표 80]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생활만족도	기혼	6	3.000	1.0954	.506
	비혼	149	3.161	.7172	
지속적 거주계획	기혼	6	1.833	1.3292	.613
	비혼	150	2.440	1.0774	
문화예술 활동 적극적 참여 의향	기혼	6	1.833	.4082	.043
	비혼	150	2.080	.4415	

* p<0.1, ** P<0.05, ***P<0.01

(4) 학력별 인식비교

①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분석

- TV시청과 인터넷 접속시간에 대하여 학력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81>에서 보여주고 있음. 다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일과 주말에 TV 시청시간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반하여 평일과 주말에 인터넷 접속시간에 따른 차이는 각각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학력별로 인터넷 접속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81]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TV	고졸이하	5	1.800	.8367	1.031
	대재	109	1.495	.8566	
	대졸	39	1.744	.8181	
	대학원	5	1.400	.5477	
평일 인터넷	고졸이하	5	2.400	.8944	7.177***
	대재	108	2.769	.9629	
	대졸	40	2.150	.8336	
	대학원	5	1.400	.5477	
주말 TV	고졸이하	5	2.200	.8367	1.210
	대재	109	2.128	1.1147	
	대졸	39	2.487	1.1892	
	대학원	5	1.800	.8367	
주말 인터넷	고졸이하	5	2.800	1.0954	4.555***
	대재	108	3.009	.9906	
	대졸	41	2.537	1.1423	
	대학원	5	1.600	.8944	

* $p < 0.1$, ** $P < 0.05$, *** $P < 0.01$

②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환경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82>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적극적 활동지원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 환경 인식에 대한 항목은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즉, 학력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표 82]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고졸이하	5	3.600	.8944	1.126
	대재	109	4.193	.8550	
	대졸	41	4.341	.9113	
	대학원	5	4.200	1.0954	
적극적인 활동지원	고졸이하	5	3.600	.8944	1.395
	대재	109	4.229	.8458	
	대졸	41	4.390	.8024	
	대학원	5	4.200	1.0954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환경	고졸이하	5	2.800	.4472	3.131**
	대재	109	2.917	.7833	
	대졸	40	2.550	.7828	
	대학원	5	2.200	1.0954	

* $p<0.1$, ** $P<0.05$, *** $P<0.01$

③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영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83>에서 나타남.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이 각각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리고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성장에 도움 역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학력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줌. 그러나 천안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표 83]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삶의질 향상	고졸이하	5	3.400	.5477	3.848**
	대재	109	4.138	.7873	
	대졸	41	4.366	.6984	
	대학원	5	4.800	.4472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	고졸이하	5	3.200	.8367	4.051***
	대재	109	4.183	.7718	
	대졸	41	4.317	.8197	
	대학원	5	4.800	.4472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고졸이하	5	3.200	.8367	2.895**
	대재	109	3.890	.8855	
	대졸	41	4.146	.9100	
	대학원	5	4.600	.8944	
천안의 이미지 향상	고졸이하	5	3.800	.8367	1.736
	대재	109	4.128	.8176	
	대졸	41	4.317	.9338	
	대학원	5	4.800	.4472	
지역경제 활성화	고졸이하	5	3.600	.5477	1.169
	대재	109	3.890	.9363	
	대졸	41	4.122	1.0049	
	대학원	5	4.400	1.3416	

* $p < 0.1$, ** $P < 0.05$, *** $P < 0.01$

④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분석

-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의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84>에서 나타남. 생활만족도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며 지속적 거주계획의 경우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 이 역시 학력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표 84]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생활만족도	고졸이하	5	3.800	.4472	2.250*
	대재	105	3.152	.7309	
	대졸	41	3.049	.7400	
	대학원	5	3.600	.5477	
지속적 거주계획	고졸이하	5	1.600	.5477	3.050**
	대재	106	2.575	1.0775	
	대졸	41	2.171	1.0465	
	대학원	5	1.800	1.3038	
문화예술 활동 적극적 참여 의향	고졸이하	5	2.200	.4472	.777
	대재	106	2.085	.4602	
	대졸	41	2.073	.4117	
	대학원	5	1.800	.4472	

* $p < 0.1$, ** $P < 0.05$, *** $P < 0.01$

(5) 직업별 인식비교

①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분석

- TV시청과 인터넷 접속시간에 대하여 직업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85>에서 보여주고 있음. 다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일 TV 시청시간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리고 이와 함께 주말의 인터넷 접속시간 역시 직업별 차이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줌. 그러나 이에 반하여 주말의 TV시청과 평일의 인터넷 접속시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표 85]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TV	학생	103	1,485	.8268	1.788*
	일반사무	17	1,647	.7859	
	판매 및 서비스직	5	1,400	.5477	
	생산직 및 기술직	7	2,000	1.1547	
	전문직	13	1,692	.7511	
	무직(은퇴)	1	3,000		
	공무원 및 군인	3	2,667	1.5275	
	기타	2	1,000	0.0000	
평일 인터넷	학생	102	2,716	.9583	1.635
	일반사무	17	2,471	.7998	
	판매 및 서비스직	5	2,000	1.4142	
	생산직 및 기술직	7	2,000	1.0000	
	전문직	14	2,071	.8287	
	무직(은퇴)	1	2,000		
	공무원 및 군인	3	3,000	1.7321	
	기타	2	2,500	.7071	
주말 TV	학생	103	2,165	1.0945	.680
	일반사무	17	2,412	1.2277	
	판매 및 서비스직	5	2,400	1.1402	
	생산직 및 기술직	7	2,714	1.1127	
	전문직	13	2,231	1.2352	
	무직(은퇴)	1	4,000		
	공무원 및 군인	3	2,000	1.7321	
	기타	2	2,000	1.4142	
주말 인터넷	학생	102	3,039	.9639	1.797*
	일반사무	18	2,667	1.2367	
	판매 및 서비스직	5	2,200	.4472	
	생산직 및 기술직	7	2,714	1.2536	
	전문직	14	2,286	1.3260	
	무직(은퇴)	1	2,000		
	공무원 및 군인	3	2,000	1.7321	
	기타	2	3,000	0.0000	

* p<0.1, ** P<0.05, ***P<0.01

②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환경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86>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적극적 활동지원은 각각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 환경 인식에 대한 항목 역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즉 직업에 따른 각각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줌

[표 86]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학생	103	4.155	.8604	2.108**
	일반사무	18	4.556	.8556	
	판매 및 서비스직	5	4.600	.5477	
	생산직 및 기술직	7	3.429	.7868	
	전문직	14	4.214	.9750	
	무직(은퇴)	1	3.000		
	공무원 및 군인	3	3.667	1.1547	
	기타	2	5.000	0.0000	
적극적인 활동지원	학생	103	4.184	.8488	2.739**
	일반사무	18	4.722	.4609	
	판매 및 서비스직	5	4.400	.8944	
	생산직 및 기술직	7	3.429	.7868	
	전문직	14	4.286	.9139	
	무직(은퇴)	1	3.000		
	공무원 및 군인	3	3.667	1.1547	
	기타	2	5.000	0.0000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환경	학생	103	2.942	.7386	1.953*
	일반사무	17	2.529	.7174	
	판매 및 서비스직	5	2.200	.8367	
	생산직 및 기술직	7	2.857	.6901	
	전문직	14	2.500	.9405	
	무직(은퇴)	1	3.000		
	공무원 및 군인	3	2.333	1.1547	
	기타	2	3.500	.7071	

* $p<0.1$, ** $P<0.05$, *** $P<0.01$

③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영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87>에서 나타남.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삶의 질 향상과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성장에 도움이 각각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천안의 이미지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표 87]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삶의질 향상	학생	103	4.107	.7785	2.269**
	일반사무	18	4.611	.6077	
	판매 및 서비스직	5	4.600	.5477	
	생산직 및 기술직	7	3.429	.7868	
	전문직	14	4.214	.6993	
	무직(은퇴)	1	4.000		
	공무원 및 군인	3	4.333	1.1547	
	기타	2	4.500	.7071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	학생	103	4.175	.7596	2.168**
	일반사무	18	4.500	.7071	
	판매 및 서비스직	5	4.400	.8944	
	생산직 및 기술직	7	3.286	1.1127	
	전문직	14	4.214	.8018	
	무직(은퇴)	1	3.000		
	공무원 및 군인	3	4.333	1.1547	
	기타	2	4.500	.7071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학생	103	3.854	.8790	1.637
	일반사무	18	4.167	1.0432	
	판매 및 서비스직	5	4.400	.8944	
	생산직 및 기술직	7	3.571	.7868	
	전문직	14	4.143	.7703	
	무직(은퇴)	1	2.000		
	공무원 및 군인	3	4.333	1.1547	
	기타	2	4.500	.7071	
천안의 이미지 향상	학생	103	4.107	.8154	1.158
	일반사무	18	4.278	1.0178	

	판매 및 서비스직	5	4,600	.5477	
	생산직 및 기술직	7	3,571	.9759	
	전문직	14	4,429	.7559	
	무직(은퇴)	1	3,000		
	공무원 및 군인	3	4,000	1.0000	
	기타	2	5,000	0.0000	
지역경제 활성화	학생	103	3,845	.9263	1.278
	일반사무	18	4,222	1.0603	
	판매 및 서비스직	5	4,400	.8944	
	생산직 및 기술직	7	3,429	.9759	
	전문직	14	4,071	1.0716	
	무직(은퇴)	1	4,000		
	공무원 및 군인	3	4,333	1.1547	
	기타	2	5,000	0.0000	

* p<0.1, ** P<0.05, ***P<0.01

④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분석

-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의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88>에서 나타남. 생활만족도와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함. 그러나 지속적 거주계획의 경우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 이 역시 직업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88]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생활만족도	학생	99	3.131	.7374	.571
	일반사무	18	3.222	.6468	
	판매 및 서비스직	5	2.600	.5477	
	생산직 및 기술직	7	3.286	.4880	
	전문직	14	3.071	.9972	
	무직(은퇴)	1	3.000		
	공무원 및 군인	3	3.333	.5774	
	기타	2	3.500	.7071	

지속적 거주계획	학생	100	2,600	1,0918	1.836*
	일반사무	18	1,889	.7584	
	판매 및 서비스직	5	2,800	1,3038	
	생산직 및 기술직	7	1,857	.6901	
	전문직	14	2,071	.9972	
	무직(은퇴)	1	2,000		
	공무원 및 군인	3	2,000	1,7321	
	기타	2	3,000	1,4142	
문화예술 활동 적극적 참여 의향	학생	100	2,100	.4606	.819
	일반사무	18	2,000	.3430	
	판매 및 서비스직	5	2,000	.7071	
	생산직 및 기술직	7	2,429	.5345	
	전문직	14	2,000	.3922	
	무직(은퇴)	1	2,000		
	공무원 및 군인	3	2,000	0.0000	
	기타	2	2,000	0.0000	

* p<0.1, ** P<0.05, **P<0.01

(6) 수입정도에 따른 인식비교

①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분석

- TV시청과 인터넷 접속시간에 대하여 수입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89>에서 보여주고 있음. 다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일과 주말의 TV 시청시간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음. 이에 반하여 평일과 주말의 인터넷 접속시간은 수입정도에 따라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표 89]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TV	100만원 미만	46	1.500	.8628	.297
	100-200만원	31	1.677	.7911	
	200-300만원	17	1.706	1.0467	
	300-400만원	8	1.500	.5345	
	500만원 이상	2	1.500	.7071	
	용돈(아르바이트)	54	1.519	.8410	
평일 인터넷	100만원 미만	45	2.800	.9677	5.829***
	100-200만원	33	2.424	.9024	
	200-300만원	16	2.000	.8165	
	300-400만원	8	1.875	.8345	
	500만원 이상	2	1.000	0.0000	
	용돈(아르바이트)	54	2.759	.9504	
주말 TV	100만원 미만	46	2.087	1.0504	.191
	100-200만원	31	2.323	1.2217	
	200-300만원	17	2.000	1.1180	
	300-400만원	8	2.000	.9258	
	500만원 이상	2	2.000	0.0000	
	용돈(아르바이트)	54	2.352	1.1841	
주말 인터넷	100만원 미만	45	3.022	.9650	5.872***
	100-200만원	33	2.667	1.1365	
	200-300만원	17	2.000	1.1180	
	300-400만원	8	2.750	1.0351	
	500만원 이상	2	2.000	0.0000	
	용돈(아르바이트)	54	3.093	.9765	

* $p<0.1$, ** $P<0.05$, *** $P<0.01$

②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환경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수입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90>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각각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적극적 지원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 환경 인식에 대한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

[표 90]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100만원 미만	46	4.174	1.0605	2.294**
	100-200만원	33	4.545	.7111	
	200-300만원	17	3.882	.9926	
	300-400만원	8	3.625	.9161	
	500만원 이상	2	4.500	.7071	
	용돈(아르바이트)	54	4.222	.6914	
적극적인 활동지원	100만원 미만	46	4.130	.9800	.435
	100-200만원	33	4.333	.8165	
	200-300만원	17	4.412	.8703	
	300-400만원	8	4.125	.8345	
	500만원 이상	2	4.500	.7071	
	용돈(아르바이트)	54	4.259	.7570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환경	100만원 미만	46	2.696	.7851	1.308
	100-200만원	33	2.758	.9364	
	200-300만원	17	2.647	.9315	
	300-400만원	7	2.429	.5345	
	500만원 이상	2	3.000	0.0000	
	용돈(아르바이트)	54	3.000	.7004	

* $p < 0.1$, ** $P < 0.05$, *** $P < 0.01$

③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영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91>에서 나타남.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삶의 질 향상과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성장에 도움,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천안의 이미지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표 91]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삶의질 향상	100만원 미만	46	4.087	.9147	1.076
	100-200만원	33	4.455	.7538	
	200-300만원	17	4.118	.6966	
	300-400만원	8	4.125	.6409	
	500만원 이상	2	4.500	.7071	
	용돈(아르바이트)	54	4.148	.6843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	100만원 미만	46	4.152	.8684	.914
	100-200만원	33	4.455	.8693	
	200-300만원	17	4.059	.8269	
	300-400만원	8	4.125	.8345	
	500만원 이상	2	4.500	.7071	
	용돈(아르바이트)	54	4.148	.6843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100만원 미만	46	3.848	.9653	1.420
	100-200만원	33	4.273	.9445	
	200-300만원	17	4.118	.8575	
	300-400만원	8	3.625	.7440	
	500만원 이상	2	4.000	1.4142	
	용돈(아르바이트)	54	3.852	.8334	
천안의 이미지 향상	100만원 미만	46	4.087	.9387	.657
	100-200만원	33	4.303	.9515	
	200-300만원	17	4.294	.7717	
	300-400만원	8	4.500	.7559	
	500만원 이상	2	4.500	.7071	
	용돈(아르바이트)	54	4.111	.7439	
지역경제 활성화	100만원 미만	46	4.043	1.0319	1.035
	100-200만원	33	4.061	1.1440	
	200-300만원	17	4.059	.9663	
	300-400만원	8	3.375	.5175	
	500만원 이상	2	4.500	.7071	
	용돈(아르바이트)	54	3.852	.8105	

* p<0.1, ** P<0.05, ***P<0.01

④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분석

-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의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수입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92>에서 나타남. 생활만족도와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함. 그러나 지속적 거주계획의 경우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 이 역시 직업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92]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생활만족도	100만원 미만	44	3,182	.7241	1.192
	100-200만원	33	3,242	.6629	
	200-300만원	17	3,471	.7998	
	300-400만원	8	3,000	1,0690	
	500만원 이상	2	3,000	0.0000	
	용돈(아르바이트)	52	3,019	.6999	
지속적 거주계획	100만원 미만	44	2,341	.9631	4.110***
	100-200만원	33	2,121	1.0535	
	200-300만원	17	1,765	.8314	
	300-400만원	8	2,250	1.2817	
	500만원 이상	2	3,000	1.4142	
	용돈(아르바이트)	53	2,868	1.0926	
문화예술 활동 적극적 참여 의향	100만원 미만	44	2,023	.4028	.509
	100-200만원	33	2,121	.4846	
	200-300만원	17	2,000	.3536	
	300-400만원	8	2,000	.5345	
	500만원 이상	2	2,000	0.0000	
	용돈(아르바이트)	53	2,132	.4819	

* $p < 0.1$, ** $P < 0.05$, *** $P < 0.01$

(7) 주거형태별 인식비교

①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분석

- TV시청과 인터넷 접속시간에 대하여 주거형태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93>에서 보여주고 있음. 다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일 TV 시청시간, 주말의 TV 시청시간, 그리고 평일의 인터넷 접속시간, 주말의 인터넷 접속시간 각각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음

[표 93]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TV	자가	21	1,333	.7303	.892
	전세	23	1,696	.8757	
	기숙사	17	1,824	1,1311	
	월세	76	1,605	.8013	
	기타	2	1,500	.7071	
평일 인터넷	자가	21	2,476	1,0779	.323
	전세	24	2,333	1,0495	
	기숙사	15	2,467	.9155	
	월세	77	2,584	.9083	
	기타	2	2,500	2,1213	
주말 TV	자가	21	2,476	1,2498	.329
	전세	23	2,130	1,2175	
	기숙사	17	2,176	1,1311	
	월세	76	2,184	1,1280	
	기타	2	2,000	1,4142	
주말 인터넷	자가	21	2,714	1,0071	.101
	전세	24	2,833	1,2394	
	기숙사	16	2,875	1,2583	
	월세	77	2,818	.9831	
	기타	2	2,500	2,1213	

* p<0.1, ** P<0.05, ***P<0.01

②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환경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주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94>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적극적 활동지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 환경 인식에 대한 항목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

[표 94]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자가	21	4.524	.6796	1.663
	전세	24	4.333	.7020	
	기숙사	17	3.824	1.1311	
	월세	77	4.247	.8759	
	기타	2	4.000	1.4142	
적극적인 활동지원	자가	21	4.524	.6796	.650
	전세	24	4.333	.7614	
	기숙사	17	4.235	.9034	
	월세	77	4.221	.8526	
	기타	2	4.000	1.414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환경	자가	21	2.952	.9207	.954
	전세	24	2.542	.7211	
	기숙사	17	2.647	.4926	
	월세	76	2.816	.8596	
	기타	2	2.500	.7071	

* $p < 0.1$, ** $P < 0.05$, *** $P < 0.01$

③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영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주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95>에서 나타남.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삶의 질 향상과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성장에 도움,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천안의 이미지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표 95]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삶의질 향상	자가	21	4.429	.7464	.747
	전세	24	4.125	.6797	
	기숙사	17	4.059	.8269	
	월세	77	4.234	.7762	
	기타	2	4.500	.7071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	자가	21	4.333	.8563	.330
	전세	24	4.250	.7372	
	기숙사	17	4.059	.8269	
	월세	77	4.234	.8255	
	기타	2	4.500	.7071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자가	21	4.095	.8309	.539
	전세	24	4.000	.9325	
	기숙사	17	3.706	.9852	
	월세	77	4.039	.9096	
	기타	2	4.000	0.0000	
천안의 이미지 향상	자가	21	4.286	.9024	.530
	전세	24	4.375	.8242	
	기숙사	17	4.000	.8660	
	월세	77	4.208	.8787	
	기타	2	4.000	0.0000	
지역경제 활성화	자가	21	4.190	.9284	.562
	전세	24	3.917	1.0180	
	기숙사	17	3.765	1.0914	
	월세	77	4.052	.9162	
	기타	2	4.000	0.0000	

* p<0.1, ** P<0.05, **P<0.01

④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분석

-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의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주거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96>에서 나타남. 생활만족도와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함. 그러나 지속적 거주계획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 이 역시 직업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96]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생활만족도	자가	21	3.381	.6690	.923
	전세	24	3.250	.7372	
	기숙사	17	3.235	.8314	
	월세	75	3.067	.7229	
	기타	2	3.000	1.4142	
지속적 거주계획	자가	21	2.429	1.0757	.643
	전세	24	2.125	1.1156	
	기숙사	17	2.588	.8703	
	월세	76	2.500	1.1015	
	기타	2	2.500	2.1213	
문화예술 활동 적극적 참여 의향	자가	21	2.048	.3842	.421
	전세	24	2.083	.4082	
	기숙사	17	2.059	.5557	
	월세	76	2.053	.3613	
	기타	2	2.500	.7071	

* $p < 0.1$, ** $P < 0.05$, *** $P < 0.01$

(8) 주거방식별 인식비교

①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분석

- TV시청과 인터넷 접속시간에 대하여 주거방식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97>에서 보여주고 있음. 다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일 TV 시청시간, 주말의 TV 시청시간, 그리고 평일의 인터넷 접속시간, 주말의 인터넷 접속시간 각각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음

[표 97]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TV	자취	124	1,500	.7490	1,113
	하숙(기숙사)	18	1,611	.9785	
	쉐어 및 동거	7	1,571	.7868	
	기타	2	2,500	2,1213	
평일 인터넷	자취	126	2,627	.9694	1,410
	하숙(기숙사)	16	2,188	.9106	
	쉐어 및 동거	7	2,143	.8997	
	기타	2	2,500	2,1213	
주말 TV	자취	124	2,169	1,1169	1,053
	하숙(기숙사)	18	2,056	1,1618	
	쉐어 및 동거	7	2,000	1,1547	
	기타	2	3,500	.7071	
주말 인터넷	자취	126	2,865	1,0381	1,049
	하숙(기숙사)	17	2,706	1,2632	
	쉐어 및 동거	7	2,571	1,1339	
	기타	2	4,000	0.0000	

* p<0.1, ** P<0.05, ***P<0.01

②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환경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주거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98>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적극적 활동지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 환경 인식에 대한 항목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

[표 98]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자취	126	4.278	.7863	3.481**
	하숙(기숙사)	18	3.722	1.3198	
	쉐어 및 동거	7	4.714	.4880	
	기타	2	3.500	.7071	
적극적인 활동지원	자취	126	4.254	.8191	1.249
	하숙(기숙사)	18	4.278	1.0178	
	쉐어 및 동거	7	4.714	.4880	
	기타	2	3.500	.707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환경	자취	125	2.832	.8205	1.608
	하숙(기숙사)	18	2.556	.5113	
	쉐어 및 동거	7	2.429	1.1339	
	기타	2	3.500	.7071	

* $p < 0.1$, ** $P < 0.05$, *** $P < 0.01$

③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영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주거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99>에서 나타남.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삶의 질 향상과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성장에 도움,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천안의 이미지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표 99]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삶의질 향상	자취	126	4.286	.6795	1.760
	하숙(기숙사)	18	3.944	1.1100	
	쉐어 및 동거	7	4.143	.8997	
	기타	2	3.500	.7071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	자취	126	4.310	.6866	1.930
	하숙(기숙사)	18	3.944	1.1100	
	쉐어 및 동거	7	4.286	.7559	
	기타	2	3.500	.7071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자취	126	4.024	.8622	.678
	하숙(기숙사)	18	3.722	1.1785	
	쉐어 및 동거	7	4.000	1.0000	
	기타	2	3.500	.7071	
천안의 이미지 향상	자취	126	4.262	.7713	1.281
	하숙(기숙사)	18	3.944	1.1618	
	쉐어 및 동거	7	4.143	.8997	
	기타	2	3.500	.7071	
지역경제 활성화	자취	126	4.016	.9032	.943
	하숙(기숙사)	18	3.667	1.2834	
	쉐어 및 동거	7	4.143	.8997	
	기타	2	3.500	.7071	

* p<0.1, ** P<0.05, ***P<0.01

④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분석

-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의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주거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100>에서 나타남. 생활만족도와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 지속적 거주계획의 경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음

[표 100]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생활만족도	자취	122	3.131	.7380	1.177
	하숙(기숙사)	18	3.278	.8264	
	쉐어 및 동거	7	3.000	.5774	
	기타	2	4.000	0.0000	
지속적 거주계획	자취	123	2.439	1.1173	1.280
	하숙(기숙사)	18	2.556	.9835	
	쉐어 및 동거	7	2.286	.7559	
	기타	2	1.000	0.0000	
문화예술 활동 적극적 참여 의향	자취	123	2.081	.4544	.100
	하숙(기숙사)	18	2.056	.5393	
	쉐어 및 동거	7	2.000	0.0000	
	기타	2	2.000	0.0000	

* $p < 0.1$, ** $P < 0.05$, *** $P < 0.01$

(9) 문화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인식비교

①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분석

- TV시청과 인터넷 접속시간에 대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아래의 <표 101>에서 보여주고 있음. 다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일 TV의 경우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간에 $p < 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즉 비참여집단의 경우 여가시간에 TV를 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에 시청시간, 주말의 TV 시청시간,

그리고 평일의 인터넷 접속시간, 주말의 인터넷 접속시간 각각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음

[표 101] TV/인터넷 활용시간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TV	참여집단	89	1,461	.7985	3.364*
	비참여집단	69	1,696	.8796	
평일 인터넷	참여집단	89	2,640	.9323	1.329
	비참여집단	69	2,449	1.0223	
주말 TV	참여집단	89	2,169	1,1000	.756
	비참여집단	69	2,261	1,1588	
주말 인터넷	참여집단	89	2,955	1,0543	.310
	비참여집단	70	2,686	1,0706	

* p<0.1, ** P<0.05, ***P<0.01

②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환경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주거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102>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적극적 활동지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 환경 인식에 대한 항목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 즉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에 있어서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인식에 대한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표 102]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에 다양한 정책지원	참여집단	89	4,371	.8710	.099
	비참여집단	71	4,014	.8534	
적극적인 활동지원	참여집단	89	4,371	.8172	.192
	비참여집단	71	4,099	.8645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좋은환경	참여집단	89	2,708	.8285	2.461
	비참여집단	70	2,914	.7565	

* p<0.1, ** P<0.05, ***P<0.01

③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영향 인식 비교 분석

- 문화예술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영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주거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103>에서 나타남.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삶의 질 향상이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 이는 참여집단의 경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함.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역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성장에 도움, 천안의 이미지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표 103] 문화예술 지원과 환경 인식 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삶의질 향상	참여집단	89	4.270	.8362	6.182**
	비참여집단	71	4.099	.6794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	참여집단	89	4.303	.8035	1.142
	비참여집단	71	4.085	.7882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애착심	참여집단	89	3.989	.9942	5.982* *
	비참여집단	71	3.915	.7882	
천안의 이미지 향상	참여집단	89	4.258	.8858	1.639
	비참여집단	71	4.099	.7956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집단	89	4.056	1.0375	1.506
	비참여집단	71	3.831	.8449	

* $p < 0.1$, ** $P < 0.05$, *** $P < 0.01$

④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분석

-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의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주거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아래의 <표 104>에서 나타남. 생활만족도와 지속적 거주계획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 그러나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참여의향의 경우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104] 생활만족도 및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 인식비교

구분		관찰수	평균	표준편차	F
생활만족도	참여집단	85	3.035	.7311	2.025
	비참여집단	71	3.310	.7090	
지속적 거주계획	참여집단	86	2.419	1.1111	.631
	비참여집단	71	2.408	1.0634	
문화예술 활동 적극적 참여 의향	참여집단	86	1.953	.3728	15.650***
	비참여집단	71	2.225	.4839	

* $p < 0.1$, ** $P < 0.05$, *** $P < 0.01$

2. FGI 조사

1) 전문가 심층면접 1

(1) 일시 : 2015년 10월 05일

(2) 인터뷰 대상자 : 주찬 무기공장 대표

(3) 인터뷰 내용

- 지역활동가로서 천안지역의 자발적 커뮤니티인 ‘무기공장’ (2014년 9월)설립함
 -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무기를 갖자는 취지에서 커뮤니티 이름을 무기공장 으로 명명
- 400명의 대학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천안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4년에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는 교통비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천안내에서도 교통편이 좋지 않을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분석됨
 - 교통문제로 병행하여 천안시 문화적 인프라인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됨
 - cgV 2개, 메가박스 1개, 아우리시네마 1개, 소극장 2개 등 영화관람 외에 이렇다 하게 향유할 문화시설이 없음
- 천안에서 1인 가구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발생원인이 전국과 차별성이 있고 외지에서 유입된 1인 가구의 교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됨
 - 천안에 삼성 등 대기업 하청업체 생산라인 일자리 때문에 2만명 이상 유입 (대학생과 함께 이들이 주로 1인 가구 형성)되지만 이들간의 교류가 없고 천안에서 문화적 활동도 되고 있지 않음
 - 천안에 매년 2만명(근로자+학생) 이상 유입이 되지만 정착이 안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도 나가므로 나가는 인원이 더 많음
 - 천안 토박이들은 기존의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어 교류의 문제가 없으나 천안-외지인들은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음
 - 천안-외지인들은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모험이기 때문에 모험을 감행하기 보다는 본래 고향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림

- 1인 가구의 정의(개념)는 다양해서 합의된 것이 없으나 심리적 것에 주목하여 접근하고 있음
 - 가족과 같이 살고 있고 방을 같이 써도 고독감을 느낀다면 1인 가구임
 - 같이 산다는 것은 심정적 소통까지 포함하는 것임
- 1인 가구의 증가가 반드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자주 친구를 찾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음
 - 가족이 있으면 행사나 모임 뒤에도 바로 집에 가게 되지만 혼자 살게 되면 모임에 더 참여하고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음. 따라서 1인 가구의 증가가 오히려 사람들간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천안 1인 가구를 연구할때는 반드시 삼성 협력업체의 존재를 고려해야 함
 - 천안은 기본적으로 삼성협력업체의 생산라인 때문에 24시간 동안에 3교대가 이루어 지고 있음
 - 천안시민 60만 중 외지인은 30만 정도이고 그 중 삼성에 관계된 인력이 10만이니 삼성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음
 - 3교대 시스템에 따라 근로자들의 문화활동이 좌우됨. 한 쪽에선 일하고 한 쪽에선 술 마시고 한 쪽에서는 자고 있음
 - 3교대 하는 근로자들의 문화활동은 술 마시는 외에 다른 문화 활동이 없음.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온 외지인(근로자)를 묶을 공통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고 천안의 문화정책은 천안-외지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천안의 1인 가구를 범주화한다면 토박이, 학생, 근로자, 독거노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일반적인 1인 가구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빈곤이라면 천안시 1인 가구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문화적 소외자라고 할 수 있음
 - 삼성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월별 적당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빈곤과는 거리가 있으나 음주이외에는 이렇다 할 문화 및 여가 활동이 없는 것이 문제임
- 1인 가구의 문화적 욕구가 반드시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1인 가구 중 개인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힘든 젊은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것을 볼 때 1인 가구의 문화적 욕구가 반드시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대학생들은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빈곤하기도 해서 오히려 직장인들의 문화적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천안시 차원의 문화정책이 1인 가구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청년층은 음악이라는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전략임
- 1인 가구 사이에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은 현재로서는 가시적이지 않고 시작단계임
 - 현재 대학가에서 나도는 밥터디 모임 결성이나 소셜 다이닝같은 자발적인 커뮤니티 시도는 행하여지고 있음
 - 소셜 다이닝 같은 경우, 반드시 청년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동네 사람들 끼리 밥이나 같이 먹자는 수준임. 진정한 소셜 다이닝은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밥 먹는 것이 진짜 소셜 다이닝임
- 문화예술의 발전은 1인 가구와 무관하게 문화인집단의 존재 때문에 (국가의 제재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봄
 - 1인 가구는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번성과는 무관하고 소비는 1인 가구의 공동구매가 가능하고 이미 마케팅의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 번성하리라고 봄

2) 전문가 심층면접 2

(1) 일시 : 2015년 10월 08일

(2) 인터뷰 대상자 : 장동순 협동조합 우리동네 사무국장

(3) 인터뷰 내용

- 천안은 대중교통이 안 좋아서 직장인들은 자가차를 이용하고 조금만 이동하면 자연환경을 접할 기회가 많이 주어짐
 - 단점이라면 서울처럼 문화공연을 향유할 기회가 없다는 것임
 - 천안은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고 심지어 천안의 대학생들은 개강파티를 서울에서 여는 등, 교통편의의 발달로 준수도권이 됨

- 20년 전만 해도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서 천안에 오면 천안에 살아야 했지만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져서 천안에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적 특성을 보이는 인구가 늘고 있음
- 천안시 1인 가구의 필요성은 서울 용산 해방촌의 청년1인 가구의 공동체를 접하게 된 것과 오랫동안 천안시 1인 가구의 생활상을 관찰한 것에서 연유함
 - 지역활동가로서 사회적 경제영역에 있다보니 빈 집을 공동주거로 이용하고 빈 곳을 대안금융화 하는 용산의 해방촌 활동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1인 가구에 주목하게 됨
 - 한편으로는 2년 전까지 1인 가구로 살면서 천안에서 일하는 삼성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활상을 지켜본 것도 1인 가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됨
- 천안의 1인 가구는 수도권에서 온 대학생들과 산업공단이 근로자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 천안의 특성은 산업공단이 존재하므로 지역적 경제와 근로자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임
 - 천안의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수도권에서 내려온 학생들과 함께 독거청년층을 형성함
 -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과 천안 본토박이들과의 관계는 단절됨
 -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은 특정욕구 때문에 모이기는 함(동호회 결성 등)
 - 대학생들은 전입신고를 하자 않아 행정적으로 천안시민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4년정도 생활을 하므로 관찰할 필요는 있음
- 1인 가구는 잠자리와 식사를 혼자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음
- 1인 가구의 증가가 반드시 고립이나 고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 천안에서도 원도심 복원 등, 관계맺기에 주력하는 친구들을 보면 네트워크 형성에 가능성을 봄
 - 친척 결혼식은 가지 않아도 친구 결혼식은 가는 등 가족의 끈이 약해지더라도 개인의 특정욕구는 표출될 수 있음
- 천안의 1인 가구는 대학생, 산업단지근로자 등의 독거청년과 실버 1인 가구로 유형화 할 수 있음
 - 천안시 1인 가구의 유형화는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적인 1인 가구와 달리, 천안의 1인 가구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빈곤보다는 천안에 정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입과 유출이 반복되는 유목민적 특성이라 볼 수 있음
 - 천안 1인 가구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 빈곤이 천안에서 청년 1인 가구 형성의 원인은 아니고 특징도 아님
 -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천안에서 3교대하는 근로자는 2년 정도 천안에 거주하고 길어야 3,4년 정도임
- 천안의 1인 가구의 문화활동은 음주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은 대학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음주 등, 유흥문화를 많이 향유함
 - 구조적으로 고급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어서 문화적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아예 흥대로 가는 사람도 있음
 - 예술의 전당은 3년전에 만들어졌지만 이용자 연령대가 높고 접근성이 떨어짐
-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1인 가구 대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 독거청년을 대상으로 공동주거를 통해서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주는 등의 실험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봄
 - 현재 천안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음
 - 천안에서 많이 시도되는 것은 벼룩시장이지만 독거청년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이 이루어져야 함
 - 자생적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임
- 1인 가구의 번성은 소비문화를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나 문화예술의 번영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천안에서 1인 가구와 연관된 소비문화가 지역의 경제문제와 엮이는 것이 바람직함
 -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경제적 지형과 대학문화 등을 참고하여 문화예술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적절함

3) 전문가 심층면접 3

(1) 일시 : 2015년 10월 08일

(2) 인터뷰 대상자 : 서울연구원 변미리 박사

(3) 인터뷰 내용

- 서울의 1인 가구 연구와는 다르게, 독특한 천안의 특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
 - 천안은 GRDP가 높고, 가처분소득도 높은 지역이나 근거지가 서울인 청년이 많고 홍대에서 여가를 즐기는 등, 뿌리를 내리지 못한 유목민적 특성을 보이는 인구가 많음
 - 같은 맥락에서 천안으로 유출되는 인구 만큼 유입되는 인구도 많은 지역임
 - 서울의 1인 가구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천안에 적용될 수 있고 천안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 가령, 공단으로 유입된 인구와 서울에서 온 사람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일 것임
- 1인 가구는 없어질 세력이 아니고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함
 - 1인 가구의 형성을 말할 때 자발적/비자발적 부분이 많이 논의됨
 - 대학졸업 후 취직이 안되고, 연애도 못해서 비자발적으로 가족형성이 지연되는 층과 서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15%로 추정되는 이른바 골드족이라 불리는 집단은 선택해서 1인 가구가 된 것임
 - 서울시는 1인 가구 연구의 결과로 조례가 제정되었음
 - 서울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1인 가구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지만 최근,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그룹간에도 이질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인 가구의 개념은 한 집에서 잠을 혼자자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컨센서스를 얻은 정의는 없음

- 1인 가구의 등장이 관계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 저자인 에릭 클라이네버그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경험적인 연구는 한국에 아직 없음
 - 1인 가구는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다른 가구에 비하여 관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빈곤해서 문화적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천안에서는 청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됨
 - 관악구 사례를 보면 꼭 문화라는 범주에 한정짓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관계가 단절된 부분에 대한 1인 가구의 욕구가 강함
 - 일례로, 경험적 연구를 보면 혼자 밥 먹는 것을 가장 불편해 함
 - 밥터디 등,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이번 천안에 관한 연구는 문화관련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음
- 1인 가구의 연대(공동체 가능성)는, 한번 모이는 것은 가능하니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함
 - 1인 가구의 공동체를 만드는 시도가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지금 시도되고 있는 벼룩시장이나 일회성 공연 등도 생활상의 욕구를 반영시킨다면 지속가능할 수 있음
 - 1인 가구가 사회의 대세가 된다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있을것이고 그런 행동들이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으로 이어질 것임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주거공동체사업은 공공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속가능성이 문제인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 지원이 발판이 되어서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도시문화의 리딩(leading)그룹으로서 1인 가구가 대두할 가능성이 크고 1인 가구의 번성이 소비문화를 촉진할 것은 분명함
 - 서울시의 연구를 보면 여성의 경우, 초혼연령이 31세로 30세가 넘었고 십년 전에는 25세에서 35세까지 비혼인구가 10%도 넘지 않았으나 지금은 70%를 넘고 있음
 - 전체사회에서 1인 가구가 30%정도 되면 1인 가구는 포화된 상태이고 그 변화양상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시점에서는 25세에서 35세까지 연령대가 혼자사는 기간이 길어졌고 라이프스타일도 달라졌음
- 도시의 경우, 1인 가구를 보는 부정적 시선도 사라지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음
- 1인 가구가 과거에는 결혼도 하지 않아서 공공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지금은 공공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현재 공공이 개입하는 1인 가구의 정책영역은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어져 있음
- 중고령자 1인 가구는 거의 정책에서 사각지대였지만 지금은 개입이 되고 있음
-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고 공공의 자원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시점까지 공공의 개입해야 하는 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가령, 주거라고 했을 때 4인 가구 대상은 정책적 개입이 되고 1인 가구는 밀리는 현상임
- 대학생은 공공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꼭 개입을 해야하는 지도 의문이 듦
-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어떤 가구가 메이저 그룹인지 파악하여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 중고령자 중 가정이 해체되서 어려운 남성을 도와주는 등, 같은 1인 가구라도 집단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져야 함
- 1인 가구의 대두에 따라 가족이 해체되기 보다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모자이크 가족’ 으로 개념이 변화될 것임
 - 혈연의 가족도 존재하면서 전통적인 혈연중심에서 동거혼, 기능적인 결합, 다국적결혼 등, 일종의 모자이크처럼 가족이 구성될 것임
 - 지금도 그런 단초가 보이고 있고, 가족에 대한 법들도 바뀌고 있음

4) 1인 가구 당사자 심층면접 1

(1) 일시 : 2015년 10월 27일

(2) 인터뷰 대상자 : 송혜진(삼성디스플레이근로자)

(3) 인터뷰 내용

- 현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8년째 일하고 있음
- 천안은 조용한 도시이지만 재미있는 도시는 아니며, 주관적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점임
 - 천안에서 다른지역으로의 이동은 좋지만 정작 천안에서는 문화체험이나 여가를 즐길수 없는 것은 불만족한 사항임
-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외에는 사람을 만난든지 아니면 만드는 것 등의 활동을 주로 함
 - 천안에 오래 살아서 지인들이 많으므로 업무외에는 주로 사람을 만남
 - 사람 만나는 것 이외에는 방향제, 화장품 등을 만듦
 - 수원, 서울 등, 인근도시에 한 달에 6~7번 정도 왕래하고 있음
- 혼자사는 것이 비자발적이지는 않음. 회사의 기숙사는 저렴하고 편리하지만 나만의 공간을 선호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음
- 사무직이나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것보다 (본인은) 3교대 근무를 선호함
 - 3교대 근무는 평균 3~4년 정도 일하고 길어야 7년 정도 일함
- 최근 문화활동은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고 쇼핑정도가 전부임
 - 여가(문화)활동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쇼핑과 식도락임
 - 영화감상은 상영관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다운로드해서 보고 TV시청은 뉴스만 봄
 - 천안에는 아라리오 미술관 외에는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음
 - 미술관, 박물관 등은 서울에 갈 때만 방문함
 - 예술의 전당은 2년 전 리쌍 콘서트때 가보았는데 만족도가 떨어져 다음부터는 가지 않고 있음

-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로는 홍타령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고 한 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으나 시끄러운 행사가 되고 교통도 마비되어서 몇 번 가본 사람은 흥이 없음
 - 물총축제나 벼룩시장에도 참여했지만 별로였음. 구경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선호함
 - 천안에서 행하지는 행사에 참여거리가 있어도 기대치가 낮음
- 3교대 근무하는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유형은 음주, 학원강습 등 자기 계발, 잠만 자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음
- 1인 가구로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어 떳떳함
- 천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천안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아래의 표는 전문가 및 1인 가구 당사자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한 것임

[표 105]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천안시 1인 가구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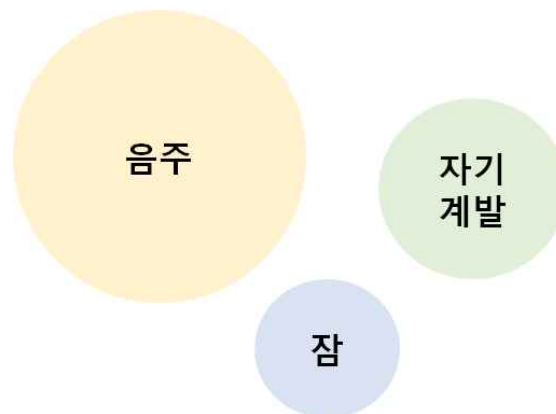
- 천안내에서 문화를 향유하기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음
-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함
- 1인 가구를 묶을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부재함
- 1인 가구는 문화적 욕구가 강하지 않음
- 천안에서 벌어지는 문화행사에 대한 기대치나 만족도가 낮음
- 음주 등 유흥문화가 1인 가구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주종을 이룸

[표 106]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천안시 1인 가구 네트워킹의 문제점

- 외지에서 유입된 1인 가구(대학생+근로자)는 뿌리를 못 내린 유목민적 특성을 보임
- 관계맺기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수동적 태도를 보임
- 1인 가구간 공동체형성에 대한 실험은 진행중이나 일회성이 강하고 가시적이지는 않음
- 생활상에 욕구와 결부된 문화예술정책이 지속가능하고 1인 가구의 교류에 도움이 됨
- 1인 가구는 수동적인 참여보다는 능동적인 문화행사를 선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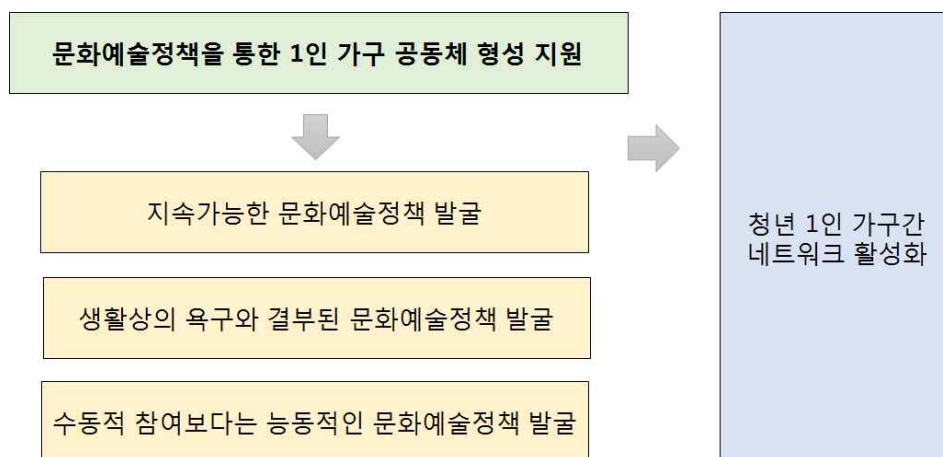
- 아래의 그림은 1인 가구 당사자 심층면접을 통해서 나타난 여가 활동 유형임. 음주 등 유흥이 여가활동의 주종을 차지하였으나 여성들의 경우, 자기계발의 수요가 있고 여가를 잠으로 대체하는 사람들도 있음

[그림 67] 1인 가구 근로자의 여가 활동 유형



- 아래의 그림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미래의 천안시 문화정책을 도식화 한 것임. 문화(예술)정책을 통하여 1인 가구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1인 가구 생활상의 욕구와 결부된 정책이어야 함. 단순히 수동적인 1인 가구의 참여보다는 능동적으로 1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 바람직함

[그림 68]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천안시 문화정책의 방향성



제4장

정책제언

1. 정책제언

제4장 정책제언

1. 정책제언

■ 설문조사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여가 시간 활용방식에 있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수면 및 휴식이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접속 및 TV/라디오 시청 등으로 능동적인 여가생활 보다는 수동적인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1인 가구가 적극적인 문화여가 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요인으로서는 비용적 측면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연관람시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티켓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서울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 1인 가구가 향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69.0%으로 압도적이고 다인가구에 비하여 1인 가구가 문화예술활동에 보다 적극적이므로 이러한 긍정적 의사가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함
- 천안시 청년 1인 가구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유목민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되도록 거주’ ‘앞으로 계속 거주’가 각각 22.9%, 36.3%으로, 천안에서 정착할 의사가 있으므로 수도권이나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를 정착시킬 문화(예술)정책을 도시정책과 병행하여야 함

■ FGI(면접조사)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천안시 1인 가구는 전국의 1인 가구와 비교하여, 발생원인과 생활실태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그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천안에서 청년 1인 가구가 생겨난 원인은 수도권에서 유입된 대학생과 더불어, 외지에서 온 삼성 등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3교대 근무하는 근로자들임
- 천안시의 경우 천안시 이외의 지역에서 통학 및 근무를 위해 이주한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소속감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이 중요함
- 천안에서 청년 1인 가구간 교류가 부족한 것은 현실이나 관계맺기에 대한 욕구는 존재하므로 문화(예술)정책이 1인 가구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천안에서 현재 실험중인 청년 1인 가구의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시도는 일회적인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의 일상적인 삶의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천안문화재단과 지역소재 대학과의 연계사업

- 천안시 1인 가구는 개별화되기 보다는 조직(대학이나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천안문화재단이 조직과 연계된 협력사업을 수행한다면 효과적일 것임
 - 천안문화재단이 직접사업을 하는 것은 정책대상(1인 가구)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천안문화재단과 천안소재대학과의 양해각서(MOU)을 맺고 (대학의) 문화성격의 동호회를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천안문화재단과 지역소재 기업과의 연계사업

- 천안문화재단과 기업과의 공동기획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강좌나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역소재 대학을 활용하여 교양강좌성격의 인문학 사업을 수행하되 장기적인 계획하에 눈높이를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함
 - 인문학 프로그램은 강좌형태도 좋지만 직접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문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오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로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천안문화재단에서 악기대여, 문화강사섭외, 공연기획 등의 창작적인 동호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기업과 공동으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천안에서 충남 인근으로 떠나는 문화투어를 기획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1인 가구 간 교류의 기회도 될 수 있음

■ 청년 1인 가구의 생활상의 욕구와 결부된 문화예술 정책 개발

- 천안시 1인 가구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데 생활상의 욕구와 결부된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해야 함
 - 이른바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으로 지역마다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카페(아지트)를 조성하여 1인 가구들이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천안 1인 가구의 특징이 관계맺기에 대한 ‘수동적 태도’ 이므로 지역별 거점카페는 1인 가구 간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될 수 있음
 - 거점카페(아지트)가 다양한 생활문화동호회원이 1인 가구의 문화활동을 다른 1인 가구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삼으로써 1인 가구 생활문화예술의 지속화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 1인 가구는 다인가구보다 문화적측면에서 활동적이므로 수동적 공연관람보다 1인 가구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을 일반인도 공연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은 좋은 예임
 - 아라리오 미술관을 1인 가구에게 무료로 관람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천안시 1인 가구대상 조례 제정

- 천안시 청년 1인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방향과 1인 가구 간 교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1인 가구 연구의 결과로 1인 가구 대상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내용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이었으나 천안은 빈곤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청년 1인 가구 교류활성화 정책방안을 조례로 명시할 수 있음

■ 천안을 문화도시로서 외부에 브랜딩하는 작업

-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천안을 외부로 브랜딩하는 작업도 필요함

- 문화(예술)정책에서 지자체와 지역문화정책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나 지역 고유의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며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부족한 상황임
- 천안시는 인구 약 60만 명으로 수도권에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인근 소재 대학과 대기업 협력업체가 들어서 있으며 경제규모도 충남도내 1위를 차지하며 불당동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의 가로수길, 경리단길처럼 등 경관조성사업을 병행하면서 조성된 거리에 거점이 될수있도록 문화적인 것을 가미한 카페가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구의 김광석거리의 조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천안출신의 문화예술가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함
- 천안의 호두과자를 모티브해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거나 예술가들의 개입으로 병천순대를 브랜딩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사업의 제안도 중요하지만 문화 관련 사업에 천안 지역의 문화예술 인력이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천안문화재단의 적극적 매개 활동이 중요함
- 예술인 통계집계의 어려움으로 정확히 집계는 안되어 있으나 천안에도 많은 예술가 거주하는 상황임. 하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천안과 관련을 맺는 예술가들은 제한적으로 사료됨
- 좀 더 많은 예술가들이 천안과 관련을 맺고 지역 배경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함
- 문화공간의 관광 기능 강화로 박물관, 공공미술 공간의 관광 자원화하는 시도가 필요함
- 도시관광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나 기존 콘텐츠의 관광 자원화 사업 수행하고 더불어 공연, 페스티벌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주민참여시장, 프리마켓, 바자회, 벼룩시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커뮤니티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충청도 내 15개 시·군과 비교하면 천안의 문화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으나 본 연구조사 결과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분석됨
- 천안의 문화자원과 지역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 관광자원을 파악하

여 지도나 웹(web)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자원과악과 병행하여 지역활동가 등의 인적자원의 파악도 필요함

- 천안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과악은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수행되어야 함
- 천안시 문화(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은 1인 가구의 문화적인 욕구 해소 및 교류 활성화, 도시의 문화공간화, 공공과 지역활동가간의 문화적 거버넌스 구축, 천안시의 유목민적 인구집단의 정체성 창출, 도시경쟁력 기반 제공이라 할 수 있음

부 록

1. 천안시 1인 가구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지 - 전문가

3.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지 - 일반인

ID			-			
----	--	--	---	--	--	--

(전화: 02-840-1235)

일반 현황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_____
주민등록 상 주소지역	<div>① 천안시</div> <div>② 천안시 이외 지역</div>			
응답자 거주지	<div>① 천안시 동남구 ()동/읍/면</div> <div>② 천안시 서북구 ()동/읍/면</div>			

▷ 여가와 문화예술 소비

문1. 귀하는 여가시간(주말, 휴일 등)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주로 하시는 것 세 가지만 우선순위 별로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구분	여가활동
독서/방송	11)독서 12)TV/라디오
컴퓨터/인터넷	21)인터넷 22)PC방 23)컴퓨터 게임
레저/문화	31)공연관람 32)미술/박물관 관람 33)영화관 34)운동경기관람 35)음악감상 36)비디오/DVD 37)문화예술창작 및 참여 활동(문학, 합창, 그림, 서예, 연극, 무용 등) 38)문화예술강좌 수강(문학, 합창, 그림, 서예, 연극, 무용 등) 39)공예 40)제과/제빵/커피 만들기 41)레저/스포츠(운동, 등산, 자전거 등) 42)여행
친목/유흥	51)가족모임 및 가족의식 52)친구동료모임 53)음주회식 54)노래방 55)기타 ()
기타	61)자기개발(학원, 공부 등) 62)가사일(요리, 빨래, 청소 등) 63)쇼핑(장보기, 홈쇼핑 등) 64)수면/휴식 65)종교활동 66)드라이브 67)산책 68)기타 ()

문2. 귀하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과 인터넷 사용시간(업무 이외)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항목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1) 평일	1) TV 시청시간	1	2	3	4
	2) 인터넷 사용시간 (SNS 포함)	1	2	3	4
2) 주말 및 휴일	1) TV 시청시간	1	2	3	4
	2) 인터넷 사용시간 (SNS 포함)	1	2	3	4

문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곳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없으면 0회 표시)

항 목	연간방문횟수
1) 전시회, 미술관	_____ 회
2) 전통문화공간(고궁 등) 방문 또는 전통공연(국악 등) 관람	_____ 회
3)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장	_____ 회
4) 대중음악 콘서트장	_____ 회
5) 영화관	_____ 회
6) 문화 커뮤니티 공간	_____ 회

▷ 문화예술 활동 참여

문4. 귀하는 문화예술의 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상업 영화관람 및 영화관 방문 제외)

- 1) 있다 (☑ 있으면, [문-5]로) 2) 없다 (☑ 없으면, [문-14]로)

문5. 귀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분야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분야	참여	분야	참여	분야	참여
1) 클래식	<input type="checkbox"/>	6) 무용 및 댄스	<input type="checkbox"/>	11) 서예	<input type="checkbox"/>
2) 대중음악	<input type="checkbox"/>	7) 사진	<input type="checkbox"/>	12) 수예	<input type="checkbox"/>
3) 국악	<input type="checkbox"/>	8) 영화애니메이션	<input type="checkbox"/>	13) 문학	<input type="checkbox"/>
4) 연극	<input type="checkbox"/>	9) 미술	<input type="checkbox"/>	14)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5) 뮤지컬	<input type="checkbox"/>	10) 공예·DIY	<input type="checkbox"/>		

문6. 귀하께서 문화예술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전시 감상 2) 공연 관람 3) 영화비평 및 제작 4) 강좌 및 교육
5) 동호회 및 취미활동 6) 창작활동 7) 기타 ()

문7. 귀하께서 문화예술 활동에 주로 방문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천안 예술의전당 2) 공공공간(주민자치센터, 학교, 공공문화센터) 3) 갤러리·미술관
4) 영화관 5) 백화점·마트의 문화센터 6) 시민회관·여성회관·학생회관
7) 종교 공간(교회, 성당, 사찰 등) 8) 상업공간(카페 등) 9) 사유 공간(집, 오피스텔 등)
10) 기타 ()

문8. 귀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 1) 매주 수차례 2) 매주 1회 정도 3) 매월 2-3번회
4) 매월 1회 정도 5) 1년 수차례 6) 1년 1-2회 정도

문9. 귀하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때 주로 누구와 같이 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혼자 2) 친구 및 연인 3) 가족 및 배우자 4) 동호회 및 종교단체 5) 직장동료 6) 기타

문10. 귀하께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월평균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 1) 1만원 미만 2) 1-5만원 3) 5-10만원 4) 10-20만원 미만 5) 20만원 이상

문11. 귀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시 보통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2) 만족스럽지 않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럽다 5) 매우 만족스럽다

문12. 귀하가 문화예술 활동(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등 관람이나 참여)을 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우선순위 별로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시간이 없다 2) 비용이 많이 든다 3) 관심이 별로 없다
4) 같이 갈 사람이 없다 5) 주변에 시설이 부족하다 6) 재미가 없다
7)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수준이 낮다 8) 기타 ()

문13. 귀하는 천안시에서 문화예술 활동 참여 시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우선순위 별로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2)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3) 문화인프라 구축(시설, 환경 등)
4) 프로그램 홍보 5) 참여비용 지원 6) 동호회 지원
7) 기타 ()

▷ 향 후 문화예술 활동 참여 의사

문14. 귀하는 향 후 문화예술의 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상업 영화관람 및 영화관 방문 제외)

- ① 있다 (☞, [문-15]로) ② 없다 (☞, [문19]로)

문15. 귀하는 향 후 문화예술 활동에 주로 참여를 원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분야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분야	참여	분야	참여	분야	참여
1) 클래식	<input type="checkbox"/>	6) 무용 및 댄스	<input type="checkbox"/>	11) 서예	<input type="checkbox"/>
2) 대중음악	<input type="checkbox"/>	7) 사진	<input type="checkbox"/>	12) 수예	<input type="checkbox"/>
3) 국악	<input type="checkbox"/>	8) 영화·애니메이션	<input type="checkbox"/>	13) 문학	<input type="checkbox"/>
4) 연극	<input type="checkbox"/>	9) 미술	<input type="checkbox"/>	14) 기타 ()	<input type="checkbox"/>
5) 뮤지컬	<input type="checkbox"/>	10) 공예·DIY	<input type="checkbox"/>		

문16. 귀하께서 향 후 문화예술 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싶은 형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전시 감상 2) 공연 관람 3) 영화비평 및 제작 4) 강좌 및 교육
5) 동호회 및 취미활동 6) 창작활동 7) 기타 ()

문17. 귀하께서 향 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면 다음의 장소 중 어디에 방문할 예정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천안 예술의전당 2) 공공공간(주민자치센터, 학교, 공공문화센터) 3) 갤러리·미술관
4) 영화관 5) 백화점·마트의 문화센터 6) 시민회관·여성회관·학생회관
7) 종교 공간(교회, 성당, 사찰 등) 8) 상업공간(카페 등) 9) 사유 공간(집, 오피스텔 등)
10) 기타 ()

문18. 귀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고 하면, 문화예술 활동에 월평균 얼마 정도를 지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1만원 미만 2) 1-5만원 3) 5-10만원 4) 10-20만원 미만 5) 20만원 이상

19 귀하는 천안시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중요하다	1	2	3	4	5
2) 천안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	2	3	4	5
3) 천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환경이 좋은 편이다	1	2	3	4	5

20. 문화예술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속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천안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1	2	3	4	5
2) 천안시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3) 천안시와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심이 커질 것이다	1	2	3	4	5
4) 천안시의 이미지가 안팎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1	2	3	4	5
5) 좋은 회사와 인재들이 천안시로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문21. 귀하는 천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1)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2) 만족스럽지 않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럽다 5) 매우 만족스럽다

문22. 귀하가 어려움(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에 처했을 때, 천안시에서 즉시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친구, 이웃사람, 친척 등)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명)

문23. 귀하는 현재 주말이나 연휴(방학) 기간에도 주로 천안시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24. 귀하는 앞으로도 천안시에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십니까?

- 1)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계획이다 2) 확실하지 않지만 되도록 거주하고 싶다
- 3) 가능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 4)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다

문25. 귀하는 천안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동호회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반드시 참여 2) 여건이 되면 참여 3)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음 4)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음

▷ 통계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2) 여자

DQ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DQ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습니까?

- 1) 기혼 2) 비혼(미혼, 이혼, 사별 등)

DQ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중퇴, 재학도 포함)

- 1) 고등학교 졸업이하 2) 대학재학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재학 및 졸업

DQ5. 귀하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1) 학생 2) 일반사무직/ 관리직 3) 판매직/서비스직 4) 생산직/기술직
5) 농림/어업/축산업 6) 전문직/자유직 7) 가정주부 8) 무직/은퇴
9) 공무원/군인 10) 기타 ()

DQ6. 귀하의 출신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천안시 2) 충청권(대전, 세종) 3) 서울 및 경기 4) 기타 지역()

DQ7. 귀하의 한 달 평균 수입은?

-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3) 200-300만원 4) 300-400만원
5) 400-500만원 6) 500만원 이상 7) 용돈(+아르바이트)을 받아 생활

DQ8. 귀하의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자가 2) 전세 3) 기숙사 4) 월세(깎세) 5) 기타 ()

DQ9. 귀하의 주거 방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자취 2) 하숙(기숙사) 3) 친척집 4) 셰어·동거 5) 기타 ()

DQ10. 귀하의 천안시 거주에 필요한 주거비용은(관리비 포함)?

- 1) 10만원 미만 2) 10-20만원 3) 20-30만원 4) 30-50만원
5) 50-80만원 6) 80-100만원 7) 100만원 이상

DQ11. 귀하의 주거비 이외에 식비를 포함한 한달 평균 생활비(용돈)은?

- 1) 30만원 미만 2) 30-50만원 3) 50-80만원 4) 80-100만원
5) 100-150만원 6) 150-200만원 7) 200만원 이상

DQ12. 귀하가 천안시에 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년부터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지 -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지(전문가)

① 1인 가구 실태

Q : (전문가로서) 1인 가구 연구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 (전문가로서) 1인 가구란 어떠한 가구형태인가요(개념, 정의)?

Q : Eric Klinenberg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자주 친구를 찾고 모임에 참여한다 ” 고 되어있어, 우리나라(서울)의 연구결과와는 다른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Q : 서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천안에는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공통분모와 차별점을 설명해 주신다면?

Q : 서울시를 대상으로 분류한 문화적 특성(4종4색) 이 천안에도 유용할까요(범주설정은 천안에도 유용할 듯. 가령, 천안/외지인, 천안/천안 : 천안/도심지역, 천안/농촌지역)?

Q : 일반적인 1인 가구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빈곤’ 이라면 이에 준하는 ‘천안 1인 가구’ 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요?

Q : 선행연구자(혹은 전문가)로서 천안시 연구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② 1인 가구 문화 욕구

Q : 서울시의 연구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따른 가족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문화를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Q :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문화적 욕구는 강하다고 보시나요(경제적 조건과 연관이 있을 듯)?

③ 향후 1인 가구 관련 네트워크/커뮤니티 조성 방안

Q : 천안시 차원의 문화정책이 1인 가구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Q : 만약 도움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까요?

Q : 1인 가구의 연대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Q : 최근 대학가에서 ‘밥터디’ 모임을 결성하기 위한 광고가 많이 눈에 띄다고 하는데, 1인 가구 네트워크(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이에 관련한 국내외 사례가 있나요?

Q : 천안에서 문화(예술)정책을 통한 1인 가구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Q : 1인 가구의 증가와 문화예술의 번영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비문화의 번성으로 연결될까요?

[부록 3]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지 - 일반인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지(일반인)

① 천안의 특수성

Q. 언제부터 천안시민이 되셨는지? (본토박이인지 or 외지인인지)

Q. 혼자 사신 기간과 하시는 일은?

Q. 천안 어디에 사시는지?

Q. 천안시민으로서 만족하시는지? (10점 척도로 측정, 삶의 수준, 만족도)

Q. 불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불편한 점)?

Q. 천안시민으로서 문화적 만족도는? (10점 척도로 측정)

Q. 불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Q. 천안이 다양하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만한 여건이 되다고 보시는지?
(천안시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 문화정책 등)

Q. 대한민국과 천안을 비교한다면 ?
(여러층위에서 비교 가능 : 문화, 주택, 교육, 일자리...) /
천안-외지인에게 특히 중요한 질문

Q. 본인이 생각하기에 천안시 1인 가구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1인 가구 실태

Q : 1인 가구 형성 원인은? (자발적 對 비자발적, 혼인여부)

Q. 본인이 생각하기에 1인 가구란 어떠한 가구형태인가요(개념, 정의)?

Q : 주말에는 천안에 계십니까?

Q : 주말은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Q : 혼자 사시지만 가족과 어느 정도 가깝다고 느끼시는지?

Q : 현재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Q : 천안에서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만약 외롭다면 10점 척도로 측정)이나 경제적 문제는 없으신지요? (애로점)

Q : 1인 가구(혼자 사는 삶)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편견)이 느껴지십니까?

Q : 1인 가구로서 자부심을 느끼세요, 반대로 열패감은 느끼시나요?

Q : 혼자 사시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교류가 있으신지? (만약 아파트에 사신다면 바로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는지?)

Q : 천안에 혼자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나 지인의 수와 만남의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친구 수와, 전화통화, 만남의 빈도 측정 1주나 한 달에 몇 번)

Q : 혼자 사시는데 식사는 업무시간 외에 혼자 해결하시는지?

Q : 귀하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Q : 공적인 일(선거, 정치, 반사회, 동호회 등)에 관심이 있으신지?

Q : 정기적으로 신문을 읽거나 구독하는 신문은 있는지?

Q : 천안에 홀로 사시면서 직업외에 정기적으로 하시는 활동은 있으신지요? (가령, 자원봉사, 종교활동, 정당활동, 술자리모임, 연애 등)

Q : 귀하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동호회(인터넷동호회 포함)나 사교모임이 있으신지?

Q : 현재 본인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지요?(취업, 승진, 결혼, 내집마련 등)

③ 1인 가구 문화 욕구

Q : 귀하가 가장 최근에 수행한 문화(예술)활동은 무엇입니까?(날짜)

Q : 귀하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Q : 평일 퇴근 후나 주말 등, 여가 시간이 나실 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Q : 귀하가 가장 빈번히 향유하는 문화활동은 무엇입니까? (영화, 오페라관람, 미술관 방문, 스포츠 관람 등)

Q : 귀하가 가장 빈번히 출입하는 문화기관은 어느 장소입니까?
(예술의 전당,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기타 등)

Q : 귀하는 문화예술의 감상, 관람, 창작, 비평 등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Q : 귀하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Q : 귀하의 경우, 매체(TV,라디오, 비디어,DVD,CD플레이어)를 통해 예술행사를 관람하는 편입니까(전체문화향유활동 중 비율)?

Q : 귀하는 문화 예술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1주일, 1달, 6개월, 1년 단위)

Q : 귀하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때 주로 누구와 같이 하십니까?

Q : 귀하가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회 등 관람이나 참여 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문화예술행사 관람시 애로사항) ?

Q : 천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Q : 천안시가 주최한 문화프로그램 중에 알고 계시는 것이나 참여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Q : 천안시가 1인 가구를 위해 문화적으로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Q : 천안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Q : 천안시가 주관하고자 문화예술행사의 희망 유형은 어떠하십니까? (공연, 영화관람, 문학강좌, 미술전시회관람, 예술강좌교양강좌, 예술프로그램 참여 등)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김용현 책임연구원

총괄

□ 참여 연구진

고승희 연구위원

조사, 통계

이수철 책임연구원

설문지작성

신혜지 연구원

조사, 분석

김흥주 박사(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설문조사계량 분석

2015년 천안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천안시 1인 가구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311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5(성정동 694-9) 3층

Tel 041.900.0212 Fax 041.900.0213

<http://www.cfac.or.kr/> <https://www.facebook.com/cheonanfac>

이 연구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5년도 무지개다리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